

성경이 주장하는 사●회●변●혁●론

게리 노스 지음 / 김재영 옮김



도서
출판

나침반社



종합선교-나침반社 /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02-6321-3 / 주문처 ☎2356-1633, 358-2617



COMPASS HOUSE PUBLISHERS

**A DIVISION OF NACHIMBAN (=COMPASS) MINISTRIES
KWANGHWAMOON P.O. BOX 1641, SEOUL 110-616, KOREA**

LIBERATING PLANET EARTH

**An Introduction to
Biblical Blueprints**

Gary North

차례

◆한국어판을 출간하면서	7
◆이 책에 대하여	11
◆추천의 글	13
◆서론	15
1. 그리스도와 해방	35
2. 해방의 하나님	53
3. 해방의 대적들	65
4. 해방의 언약	81
5. 개인의 해방	97
6. 가정의 해방	113
7. 교회의 해방	133
8. 국가의 해방	149
9. 경제의 해방	169
10. 해방의 불가피성	187
◆결론	215
◆참고 문헌	229

한국어판을 출간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식이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 : 4-13).

세계 곳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체감(一體感)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체감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교회의 다양성을 부인하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영원히 연합되어 있음과 동시에 영원히 개별적 격위(格位)로 계시는 성삼위(聖三位)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현 역사와 영원한 세상에서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반영해야 한다.

바울은 교회가 본원적(本源的)으로 바로 이 요구사항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 장과 로마서 12 장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업(分業)의 예(例)를 교회 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고전 12:14-18).

교회가 국제적(international)이므로 이 분업 역시 국제적이다. 최근 5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교회와 자기 교파의 범위를 주로 자기 나라에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교회의 증거 사역에 손상을 입혀 왔다. 교회의 범위는 국제적이다. 더구나 역사의 어느 때엔가에는 그 범위가 행성계(行星界)에까지,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미칠 것이다. 마지막 부활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시기에 교회의 범위는 피조계(被造界) 자체와 마찬가지로 광대해질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세기 1 장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국제적 분업(分業)을 복음전도 사역의 주요 목표로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세계 인류에게 총체적 갱신(更新)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선교 활동은 마르크스나 레닌, 모택동이 꿈꾸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포괄적인 「국제적 문화 정복의 언약적 토대」를 놓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그저 한 교파 또는 한 나라의 영향력 확대 사업쯤으로 흔히 이해되어 왔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범세계적 교회, 즉 윤리적으로 타락한 문명(文明)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과 자본을 소유하게 될 다양한 교회의 창조를 위한 예비적 기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 여 년에 걸쳐 일단의 선교사들이 표면상으로는 잃어버린 국제적 비전(vision)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발견해 왔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특히 소장 제수이트파)과 개신교 양측의 해방신학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설파(說破)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 보면, 그들 신학의 내용이 성경적 기독교보다는 마르크스주의에 훨씬 더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급진적인 형태의 해방신학은 성경에서 취한 약간의 수사학적 구절들로 힘을 보강한 마르크스주의의 변종(變種)이다. 국제적 공산주의라는 실패한 이상(理想)은 새로운 종교적 이상에 의해 지탱되어야 했다.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그 변질된 노력들, 특히 이른바 제 3 세계에서 그 노력을 떠받치기 위해 자유주의 기독교를 필요로 했다는 이것이 바로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큰 아이러니 중의 하나이다.

이 작은 책이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원래 이상(理想)이 어떤 혁명적 공산주의 못지 않게 광범위했다는 점이다. 이 이상은 세계를 변혁시키는 데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죄의 속박과, 현실적으로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 하에 있는 타락한 인류가 필사적으로 해방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認知)했다. 포괄적 치유가 있는 구원의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즉 해방된 인류를 만들어내실 생각으로 주신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해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해방, 그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정당한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인류는 악(惡)의 초자연적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그릇된 관념(ideas)으로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하며, 그 그릇된 관념에 근거한 강력한 인습과 제도들로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한다. 성경은 이 세대와 또 역사의 모든 세대의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代案)을 제시한다. 성경은 해방의 안내서이다. 그리고 성령은 해방의 인격적 엔진(engine)이다. 성경과 성령, 이 둘이 있음으로 해서 각 세대는 세상에 새로운 국제적 질서가 임하게 할 수 있다. 그 새로운 국제 질서는 인본주의자의 새로운

세상 질서가 아니라, 약 이천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세계 질서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개인으로서,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복음이 가진 이러한 변혁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은 죄 자체만큼이나 포괄적이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 중에서 그 복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깨달음에 준하여 살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해방의 때, 하나님의 해방의 때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현재 쫓기어 도망하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無)가 유(有)를 대체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연계에는 물리적 진공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역사에는 영적, 문화적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쇠퇴해가는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더 광대한 비전(vision)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이다. 설령 수천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해도 그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4-26).

게리 노스

Gary North

이 책에 대하여

무신론적 실존주의(無神論的 實存主義)의 등장으로 젊
은 층에서, 특히 히피(Hippy), 여피(Yuppy)
가 생겨날 무렵, 대학(大學)의 지성(知性)은 마비되고 그 결과 미
국과 서구 사회는 문명의 쇠퇴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남미(南美)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에 해방신
학(解放神學)이 들어와, 모처럼 수백 년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시작한 이들 나라들은 다시 혼돈(混沌)과 가
치관의 파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유입(流入)된 해방신학은 그 본질이 곡해된, 잘못 해석된 해방신학
이었던 것입니다.

21 세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투쟁(鬭爭)으로서의 해방신학은
쇠퇴하고 있으며, 이제 새로운 「주의」(主義)가 태동(胎動)하고 있습
니다.

“사랑주의”(Lovism)=“예수주의”(Jesusism).

21 세기의 새로운 「주의」는 바로 “사랑주의”이며, 모든 인간주의
(人間主義)를 극복할 수 있는 신사상(新思想)의 형성(形成)임을
본 저서는 명쾌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김진경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객원 교수

중국 연변 조선족 과학기술대학 총장

추천의 글

「**정치적** 종교들」(political religions)이나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악(惡)은 환경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국가의 힘은 구원의 은혜이다. 국가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물질적인 환경과 영적인 환경을 재조성(再造成)해야 한다. 국가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사회 변화는 역사(役事) 중에 있는 국가의 은혜(statist grace)이다. 나쁜 환경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때때로 이 악한 환경에는 소시민, 자본가, 성직자, 그리스도인, 교회들, 사조직(private organizations), 사기업(private enterprise)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자들과 모든 것들은 구원 과정의 일부로서 “숙청”되거나 파멸당해야 할 수도 있으며, 또 흔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조(信條)와 탈(脫)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재교육”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성경적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악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만물의 회복(restitution)이다. 인간의 문제는 그가 속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즉 자기가 자신의 신(神)이 되고 궁극적인 법(法)과 원리(原理)가 되려는 인간의 소욕(所慾)에 있다. 인간은 정치에 의해서나 법의 역할에 의해서나 도덕성에 의해서나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인간은 자유롭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법 질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더구나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생명으로 하고 있는 일단의 믿는 자들이 없으면 그 법 질서는 영속(永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질서의 근본은 은혜이다.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시키고 자신의 활동을 활용하고 자신의 삶을 질서있게 할 특성을 결여하게 된다.

R.J. 러시도니(Rushdoony)¹

1. 러시도니, 『사회 질서의 토대』(*The Foundations of Social Order*, Fairfax, VA : Thoburn Press(1968)1978), pp.222-23.

서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 : 31, 32).

나는 본래 이 책을 우선적으로 무신론(無神論)과 공산주의와 또 「해방신학」으로 알려져 있는 민중적 사회주의 종교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반공(反共) 서적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반공산주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쓸모있는 대안(代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성공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일관성있고 가장 강력한 세속 종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좀더 일관성있고 좀더 강력한 성경적 종교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퇴치될 수 있다.

나는 이 책이 영어권 독자들에게도 참된 기독교, 즉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는 관습적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 대한 입문서로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기독교는 현대 세계에 포괄적 도전을 던

저 주는 동시에 우리 시대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들도 제공한다.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시류(時流)와 무관하기 때문에 거의 이천 년이라는 세월을 존속해 온 것이 아니다. 제 4 세기의 기독교는 쇠퇴해 가고 있던 로마 제국을 사로잡아서 그 제국을 변혁시켰다. 중세 후기(1000-1500 년)의 기독교는 근대 과학의 기초를 놓았고, 근대 초기(1500-1700 년)에는 근대 과학을 발전시켰다. 당시의 왕들은 기독교의 이름 아래 정복하고 지배하였으며, 그밖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름 아래 굴복하였다. 그런 시대의 문명을 일컬어 「기독교 문명」(Christian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만, 지난 일백 년 동안 이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말로 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정이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인본주의 문명」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핵심이다.

예속으로 가는 길

1944년, 영국에 거주하면서 후학(後學)을 가르치고 있던 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가 『예속으로 가는 길』(*The Road to Serfdom*)이라는 주목할 만한 저서를 출판하였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하이예크(F.A. Hayek)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아직 생존해 있으며, 88 세의 나이로 현대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서인 『치명적 독단』(*The Fatal Conceit*)이라는 3 부작의 책을 완성시키기 위해 정력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책은 영국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출판되던 바로 그 해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가 그 책의 요약판을 출판하였다. 그는 미국으로 향해해 올 때만 해도 무명의 경제학자에 불과했었으나 도착했을 때는 일약 명사(名士)가 되어 있었다. 영어권 세계에서 자유시장경제의 부흥을 불러일으킨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예속으로 가는 길』이라는 단행본이었기 때문이다.

그 책의 논제(論題)는 간단하다.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하에서는 자유의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개인의 돈, 또는 개인의 노동의 결실들을 빼앗아갈 수 있다면, 국가는 개인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거할 수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론짓기를, 민주적 사회주의도 여전히 사회주의임에는 틀림없으며, 만약 사람들이 지적(知的) 노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노동의 열매들의 대부분을 소유할 수 없다면 투표권만으로는 자유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주장은 세계 전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큰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하이예크의 경고는 점점 그 수를 더해가는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들은 착실히 실현되어 왔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지 6년 뒤인 1980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자신의 사상에 관하여 쓴 책들과 논문들과 기타 출판물들은 더이상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사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갔지만, 그 나이에 하이예크는 오히려 점점 원기왕성해지고 있다.

서구 사회는 아직도 예속의 길에 이르는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다. 다양한 국가 보수주의와 “자유론자”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역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사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자유를 실현시키는 법률 제도를 발견하고 발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참으로 강경한 말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원리들 중의 하나이다. 죄의 노예인 자들이 또 다른 형태의 노예 제도를 피할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명쾌하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죄에 속박된 상태는 결국 지상적 형태의 또다른 속박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와 열왕기의 교훈이기도 하다.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은 먼저 근본적인 속박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걸음을 돌려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속으로 가는 길은 2 차선 통행로이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다”(turn around)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사람은 도덕적으로 변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속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많은 악들을 이기는 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해 거듭나는 것이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의 첫 단계이다. 이것이 해방의 제일보(第一步)인 것이다.

해방신학

이 책은 해방신학에 관한 책이다. 사실상 이 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신학에 관한 책으로서, 그 두 신학은 저마다 해방을 전파한다고 자처하고 있다. 그 사상 체계들 중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인 것이다. 전자(前者)는 종교관 민중의 아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고, 후자

(後者)는 성육신(成肉身)하신 하나님 자체이셨던 완전한 인간(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시작에서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공산주의」로 알려진 정치 운동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무신론자였다. 「요한복음 15 장 1-14 절에 따른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에 대하여」(*On the Union of the Faithful with Christ according to John XV, 1-14*)¹⁾라는 학생 시절의 그의 논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청년 시절의 그는 자유주의적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20 세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였다. 25 세였던 1843 년에 쓴 한 논문에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계(被造界)의 한숨이며 심장없는 세계의 정서(情緒)이며 영혼없는 상황들의 영혼이다. 그것은 민중의 아편이다”²⁾라고 말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인본주의, 즉 인류야말로 존재의 최고 형태라는 사상을 개진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신(神)이라는 것이다.

“종교 비평은 인간이 인간을 위한 최고 존재(the supreme being for man)라는 교리로 끝난다.”³⁾

“독일의 해방은 인간이 인간을 위한 궁극적인 존재라는 이론의 관점을 채택해야만 사실상 가능하다”⁴⁾(강조 부분은 마르크스가 직접 한 것으로서 필자가 덧붙인 것은 없다).

이리하여 우리는 마르크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곧 그가 무신론적 인본주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1. 로버트 페인(Robert Payne) 편, 『알려지지 않은 칼 마르크스』(*The Unknown Karl Marx*, New-York : 뉴욕 대학교 출판부, 1971), pp.39-43 에 재수록됨.

2. 칼 마르크스, “헤겔의 권리 철학 비평에 붙임”(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보터모어(T.B. Bottomore) 편, 『칼 마르크스 : 초기 문집』(*Karl Marx : Early Writings*, New York : McGraw-Hill, 1964), pp.43-44 에서 재인용.

3. 앞의 책, p.52.

4. 앞의 책, p.59.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자(the Blessed)의 아들 그리스도냐”(막 14:61)고 예수께 물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찬송받으실 자”와 같은 대용어(代用語)를 사용하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무엇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있는지를 아셨다. 즉, 그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그니라 인자(人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막 14:62-64).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 말씀은 사실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었다. 히브리의 법률에 의할 때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레 24:16). 하지만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마 28 장), 그리고 승천하셔서(행 1:9-11) 하나님 우편에 서심으로써(행 7:56) 자신이 말씀하신 바가 사실임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땅 위에서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믿는 믿음이 생사(生死)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다. 그 믿음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의 판권인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5,36).

여기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둘

중 하나이다.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를 한데 합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정확한 길은 없다. 이 두 개의 심원(深遠)한 종교 체계는 서로 적대 상태에 있다. 마르크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기독교가 멸망하거나(기독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멸망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이 두 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종합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공산주의 의식 분자이다. 이런 사람은 무식하든지 아니면 사악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공산주의의 도구로서의 종교

오늘날 해방신학으로 알려져 있는 인기있는 종교 체계는 칼 마르크스의 혁명적 공산주의를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몇몇 용어들에 결부시켜서 성경이 마치 공산주의의 유험(流血) 혁명과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이다. 성경이 말하는 해방의 몇세대에 대한 이 인본주의적 해석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는 그분의 신성과는 다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에 의한 구원,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하라는 성경의 요구, 복음이 지닌 변혁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변혁시키는 권능, 하나님의 율법의 계속적인 필요성,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언약, 여덟번째 계명(“도적질하지 말라”), 열번째 계명(“탐내지 말라”) 등 성경의 기타 수많은 기본 주제들에 대하여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또 그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인간만을 믿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해방신학을 채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첫째, 그들은 해방신학이라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바, 속임수는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둘째, 쇠퇴하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새로운 종교적 활력을 주입시

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종교적인 사회에 무신론을 부과하기 위한 고도의 사전(事前)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 각각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1. 속임수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감춘다면 그 사람의 지지를 얻기가 좀더 수월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고 한다. 마르크스는 애초부터 그렇게 말했다. 서구 문명은 중산층, 즉 그들이 말하는 “부르조아지”이며, 공산주의자들은 서구 문명을 흉내내고 있고 서구의 상품을 구입하고 있으면서도 서구 문명을 증오한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다. 그는 속임수를 즐겨 사용한다. 그는 하와를 속였다. 또한 열방(列邦)을 속였다. 그는 유혹의 주요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했다(창 3:1/마 4:6).

2. 사들이기는 신앙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죽은 종교이다. 그들에게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농담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소련이나 중국에서 진지하게 존중되고 있다는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서구 지식인들뿐이다.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생산해 낸 것은 끊임없는 곡물 수확의 실패뿐이다. 중국에서 사십여 년 간의 기근이 있은 후, 농업의 일부를 자유시장 체제로 실시하자 이 나라는 1983 년에서 1985 년 단 두 해 만에 식량 수출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또한 공산주의는 관료주의의 비능률을 역사상 가장 능률적으로 만들어 내는 수단이다. 공산주의는 냉소주의와 부패를 대량 생산해 낸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자국 국민들을 타락시킨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부패한 국민들을 통제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오직 군사력과 테러 분자들의 힘의 측면에서만 서구와 경쟁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폭력과 군사력이 세계 시장에 그들이 수출하는 특별 수출 품목이다.

한 종교가 그 추종자들을 잃기 시작하면, 자체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물리력과 그것이 주는 공포감에 의지하여 계속 힘을 유지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 종교가 몰락하는 최종 단계는 그 추종자들이 더 이상 그 종교의 신조들을 믿지 않고, 대신에 술취함이나 도피나 타락 등의 수단으로 그 종교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마르크스주의 역사의 현단계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윤리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해줄 참신한 어떤 근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처해 있다. 성경은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 비전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3. 새로운 동맹의 요구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요하고 있던 수카르노(Sukarno)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부에 대항하여 공산주의 세력들의 반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반란은 실패하였고, 그 후 회교도들의 분노의 파도 속에서 적어도 이십만 명의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지지자라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학살당하였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는 거의 백만 명에 이른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 즉, 종교성이 특히 강한 사람들에게 낯설은 무신론적 종교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 전략이란 공산주의와 종교 간에 훨씬 공개적이고 비교적 덜 은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1965년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은 허울좋은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Marxist-Christian Dialogue)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들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한 사람들, 즉 자칭 그리스도인이

라는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양보하였다. 이 대화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공산주의자는 프랑스 학자 로제 가로디(Roger Garaudy)였다. 1968년 그가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프랑스 공산당은 그를 축출했다. “대화”와 “여러 가지 견해의 상호 교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수주의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널리스트이자 역사가자인 오토 스코트(Otto Scott)는 국제 공산주의 전략에서 인도네시아의 학살 사건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중남미(中南美)로 눈길을 돌리면서 그들은 종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혁명은 그 지역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작전은 지성인들(어느 시대 어느 구매자도 데려다 쓸 수 있는 부패한 분자)을 넘어서서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 진영 안으로 전진하였다. 해방신학이 바로 그들의 수단이었다...동일한 주장들은 미국의 주요 종교 진영 안으로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밀하게 밀려들어왔다.⁵

해방신학은 1970년대 초에 하나의 지적(知的)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지금도 그 세력은 확대일로에 있다. 일련의 해방신학 운동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금 그들은, 결코 과문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배교적(背敎的) 로마 카톨릭 신부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역사상 가장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는 표시이다.

해방의 목표

이 책에서 발견되는 해방신학은 간단히 말해서 구원과 언약 신앙을 현대에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해방은 하나**

5 오토 스코트(Otto Scott), “보수적 반동 개혁”(The Conservative Counter-Revolution), 『현대』(Modern Age, 1985년, 여름호), pp.207-8.

남께서 구속하신(되사신) 각 개인의 삶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해방은 여기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단과 죄로부터의 영적 해방이 없이는 정치적, 경제적 속박으로부터의 장기간의 해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죄로부터의 폭넓은 해방과 더불어서만이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도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견지해야만 한다. 기독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효과를 구원받은 각 개인의 영혼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구속(救贖)받은 각 개인의 영혼에 대한 치유의 효과는 그 사람의 삶의 전(全) 영역에 파급될 것이며, 거기에 서부터 크게는 사회 일반으로까지 파급될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릇되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밖으로의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비유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5-18).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변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현재의 세상이 구원의 복음 및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救贖)받은 백성들 가운데 역사(役事)하고 계시는 성령의 변혁시키는 사역에 의하여 변화받아야만, 마침내 세계는 최후의 심판 때 죄로부터 완전하게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계 20 장). 그러나 우선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서서히 변혁되어 들어와야 한다.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인류의 모든 나라들의 임금이시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단과 죄에 대한 승리에 의하여 이 권세를 획득하셨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主)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계 11:15).

그러나 왕국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역사적으로 전이(轉移)된다는 사실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의 사역을 통해 역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상반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사람씩 한사람씩, 한 나라씩 한 나라씩,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법의 권징(통치) 아래로 이끌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일은 역사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역사란 바로 이 일의 연속인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원칙상 이미 이 권세를 자기 백성들에게 이전시키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시리니 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4-26).

기독교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무(無)를 가지고 유(有)에 대항하여 싸울 수는 없다”는 정치계의 오

랜 속담이 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방신학으로 알려져 있는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오류들을 지적하는 또 하나의 책이 아니다. 이 세상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좀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복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그런 좋은 세상이 건설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넘어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잘 순종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를 치유할 청사진(blueprints) 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애초부터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이 작은 책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지침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책임들을 유기(遺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법에 따라 지상의 모든 국면에서 「다스림의 주권」(dominion)을 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영원계(永遠界)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행(善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天上)의 상급이 따른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功力)이 나 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

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 3:11-15).

이러한 상급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해진 의(義)의 열매임을 이해할진대,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마음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다만 상급을 얻겠다는 욕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소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善)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롬 2:6,7)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 역사상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정의에 관한 책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무덤 너머에 있는 피할 수 없는 미래에 관한 책임기도 하다. 그 미래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적인 주님이시요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 미래는 번민과 불안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미래는 상급이요 성취인 동시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뜻한다. 성경은 역사(歷史)에 관한 책, 즉 인간의 창조와 반역과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에 대한 기사이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 주위의 환경이 저주 아래 놓여있음(창 3:17-19)을 말하는 책이며, 이 저주받은 피조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구속(救贖) 사역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 회복됨으로써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음(롬 8:19-25)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이 세상적인 책이다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책이다. 또한 성경은 똑같은 이유에서 저 세상적인 책이기도

하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위에, 이 세상 너머에 계시어 이 세상에 종속되지 아니하시며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곧 예전부터 계시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땅 위에 오사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다시 심판하러 오실 영광의 주님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救贖)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3-18).

이 책은 보편적인 쟁점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의 전(全) 역사와 모든 문화에 보편타당한 성경의 원리들을 논한다. 이 책을 어떤 특정 국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훌륭한 위장술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책도 역사를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내에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이 아닌 체할 수가 없다.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대를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당신 자신을 생각해 보라. 만약 어떤 기적적 방법에 의해 백 년 전의 과거나 백 년 후의 미래로 가게 된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아마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 시대의 산물(產物)이고 나 역시 그렇다.

나는 미국의 한 시민이다. 그러나 나는 좋은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主)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20,21).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사역이야말로 심판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자비의 유익한 기초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당신과 나는 영적으로 동일한 나라(천국)의 시민이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당신과 나는 영적으로 그 나라의 한 시민이 될 것이로되, 몸도 거기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때의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역사의 참여자가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의 “시민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受惠者)들이므로(요 3:36), 이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고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발명한 것이다. 미국은 단지 기독교를 “보급하는 일을 맡은” 몇몇 나라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 미국 국민들이 그 일에 충성하기를 그친다면 이 “보급권”은 아예 다른 나라들로 이양되고 말 것이다. 자기의 나라가 “기독교 보급자” 대열에 끼일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선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주권적 다스림」(Christian Dominion)이란 것이다.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임할 수 있다. 한 나라가 배교(背敎)로 인해 멸망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 자리에 들어와 “빈 자리를 메꿀”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가 의미하는 바이다. 언약에 충성하지 않고는, 즉 성령의 능력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는 어느 나라도 심판을 당하지 않으

리라는 보장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다른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른 복음은 도둑질해 낸 복음, 해방을 약속하지만 영원한 속박의 장소인 지옥의 구렁텅이 속에서 발명된 복음이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그들 종교의 “배급자들”이다.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미국에서 활약하면서 이 낯선 종교를 제 3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출”의 수혜자는 미국이 아니고 그 종교를 “수입”하는 나라들도 아니다. 이 수출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중오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전제적(專制的) 마르크스주의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모세 시대의 바로를 닮았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피 묻은 발 아래 놓고자 했던 벨사살과 해룻을 닮았다. 쿠바에서 훈련을 받은 자이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은 자이건,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자이건 차이점은 거의 없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피조물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맞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싸움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싸움이다. 태초부터 그 싸움의 양태는 그러해 왔고, 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싸움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역사는 이 싸움의 맥락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당신의 나라나 나의 나라도 이 싸움의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역사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물질과, 모든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께 대적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표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은 현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옹광로 속으로 끌려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다. 영구히 불타는 그 옹광로, 즉 「게헨나」(지옥)는 결국 불못 속으로 던짐을 당할 것이다

(계 20:14) [“역사의 용광로”라는 말을 지어낸 사람은 공산주의자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 - 레프 브론스타인(Lev Bronstein)이라고도 한다 - 였다. 그의 이 비유적 표현은 대단히 정확한데, 아마도 이는 그가 신봉했던 유대교의 유산일 것이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게임”(사실은 게임이 아닌)의 위험부담은 지극히 크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7-9).

참된 해방신학

참으로 해방을 선포하는 한 신학이 있으니, 이 신학은 만유를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드님을 죽음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신학이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다.

“주(主)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그리스도는 해방자(liberator)이다. 그분은 애굽의 속박과 메대 바사(Medo-Persia)의 예속에서 자기 백성을 전져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서 불러내시어 애굽의 제 2 인자가 되게 하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며,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전져내사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그 하나님이다.

예수를 궁극적인 감옥인 사망에서 일으켜내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 이시다. 초대 교회에게 로마 제국은 감옥의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후에 부활이 왔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접수한 것이다.

세상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국가 전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다. 소련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감옥이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감옥들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해방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 온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해방시키는 분이시며, 최후 심판 때에 불의한 자를 영원한 불의 감옥형(刑)에 처하시는 분이시다. 그 영원한 불감옥에서보다는 이 땅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지상의 감옥에서는 해방이 될 수도 있다. 지상에서의 감옥 생활이란 언제나 의인을 위한 ‘위대한 다스림’(great dominion)의 시기가 오리라는 데 대한 서주(序奏)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감옥으로부터는 해방이 없으며 다스림도 없다.

그리스도와 해방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 : 27-30).

해방 ! 세상은 그것을 희구(稀求)하고 있다.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롬 8:18-22).

역사상 수많은 해방 운동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간을 속박과 예속으로부터 건져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

나뿐이니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만물의 창조주시오,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께 건네주셨으며, 이에 예수께서는 주님의 법에 의해 사랑으로 그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 모든 것들을 건네주신다.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압제(*tyranny*), 그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죄의 압제」(*the tyranny of sin*)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책은 한 전쟁에 관한 책이다. 이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다. 각각의 전투는 선 대 악(善對惡)의 전투이고, 전투장은 사람의 마음과 지성과 영혼이다.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영혼 : *soul*)을 다하고 뜻(지성 : *mind*)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고 신명기 6 장 5 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리고나서 예수께서는 레위기 19 장 18 절 말씀을 인용하사 이렇게 덧붙이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22:38,39).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내보이는가? 그분의 법에 순종함으로써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일 2:3-7).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웃들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이다. 우리가 왜 정부(政府)에 순복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한 단락의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법이 “죄의 법”이며, 그것이 자신을 죄의 포로가 되게 한다고 한다(롬 7:23). 이러한 포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을 얻는가? 갈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믿음으로써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8-10).

이것이 바로 해방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해방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이 해방을 기만적으로 모방한 것일 뿐이다. 마음과 영혼과 지성의 속박이 바로 모든 속박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 속박은 곧 죄에게서의 속박이다. 죄에게서 해방이 아닌 다른 모든 해방에는 또 다른 사슬이 달려 있고, 그 사슬은 우리를 원초적인 독재자 사단에게로 다시금 이끌고 만다.

어떤 사슬이든 사슬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은 ‘자율적’(autonomous)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법’(auto = 자기 자신, nomos = 법) 아래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인간은 자충족적(自

充足的) 존재가 아니다. 닳이 없는 생명은 없으며 사슬없는 닳도 없다. 우리는 두 주인 가운데 하나를 섬기는바,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아니면 물신(物神 : Mammon)이라고 말씀하셨다. 물신이란 곧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이다(마 6:24). 인간은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를 메야 한다(마 11:29,30). 인간이 아무런 멍에나 사슬도 필요없는 채하는 것은 죄의 수갑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내던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 , 1848 년)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다.

“프롤레타리아들은 그들의 사슬 외에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상이 있다. **민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그의 생각은 틀렸다. 그러나 그의 말은 옳았다. 프롤레타리아는 죄에 얽매인 사슬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시는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한 벌의 족쇄를 걸어서 버리는 것은 곧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쇠사슬을 철가시가 달린 신개발품 강철제 사슬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죄가 진보해 온 역사를 보면, “최신형 개량” 사슬이 나올 때마다 인간을 더 단단하게 옥죄었다. 그리고 그 사슬로 인해 더 많은 피가 흘려졌다.

지금은 지구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열방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이다. 죄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유일한 해방이다. 그것만이 참된 생명을 주는 유일한 해방이기 때문이다.

격전지

선과 악의 싸움은 우주 전체를 격전지로 삼아 왔다. 그 전장(戰場)은 하늘과 땅에 걸쳐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로 지상에서 그 격전이 벌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땅 위에서” 부활하셨다. 하늘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욥기 1 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그리스도의 시대 이래로 사단은 하늘에서 내어쫓긴 상태이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使者)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띠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계 12:7-9).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 전쟁이 과거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 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0,11).

어린양의 피가 이미 뿌려졌다. 그 피는 또다시 뿌려지지 않을 것이다(히 9 장). 이로써 우리는 요한계시록 12 장이 과거에 있었던 전투, 곧 갈보리 전투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윤리적인 싸움은 적어도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다. 그 싸움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개입하였을 때도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보내실 동안에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계 20 장).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는 영구 평화 조약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양측의 추종자들 사이에도 영구 평화 조약이 있을 수 없다.

오늘날 그 전투의 최전선은 지상(地上)이다. 여기가 바로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집결시켜 놓은 곳이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욕을 유혹함으로써, 그리고 팡아에서 예수님을 유혹함으로써(눅 4 장) 하나님을 공격하고자 했다. 이 싸움의 최대 격전지는 정치계나 경제계나 교회가 아니다. 그 최대의 전장(戰場)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1-4).

이 싸움이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대량 생산한 무기를 금과 은으로 구입하여서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우리는 지금 ‘이지(理知)의 전투’(a battle for the mind)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전투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법을 지켜야 하느냐에 관한 전쟁이다. 이 전투는 「윤리」(ethics)에 관한 전투이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 7:23). 그의 내부에는 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그 싸움은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이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the mind)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5 하반절).

두 가지 법에 한 사람! 이것이 「마음」(mind) 곧 이지(理知)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다. 누구의 법이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법인가
아니면 사단의 법인가? 어느 세계가 우리의 귀착지인가? 자유의
법인가 아니면 포로의 법인가? 무엇이 승리여로의 길인가? 타올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
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삶은 사망
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主) 안에 있는 영생이
니라”(롬 6:22,23).

이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투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양
상, 모든 측면이 다 포괄된다. 이 싸움에서 중립이란 없다. 각 사람
마다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경고하셨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
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 12:30).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관하여 종종 혼동을 일으켜 왔다. 그리스
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속아넘어 왔다. 말하자면, 피조계 전
역에는 하나님 편도 사단 편도 아닌 「중립 지대」가 널려 있으며 어떤
일반적 자연법이 이 중립 지대들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은 하나의 신화(神話)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법이 만물을 지배하며
만물이 그분의 의로운 심판 하에 있게 되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
이라는 그분의 주장이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이 싸움은 지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이 싸움의 한 측면은 이
것이 여러 나라들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최우선
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할 물음은 “누가 이곳을 차지하고 있는가?”이
다. 이 땅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변을 얻는 가장 좋
은 방법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다. 즉, “누가 땅을 차

지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성경은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분명한 대답을 제공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창조주로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분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원래 소유주이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시 24:1).

이러한 말씀들로써 성경은 땅 위의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주장한다.

당신은 이 말씀을 믿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소유되지 않은 삶의 어떤 영역이 있다고 믿는가? 있다면 그 이름을 대보라. 당신은 어느 날엔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 세계(全世界)를 소유하셨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것임을 믿는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믿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돌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시리니”(고전 15:24,25).

이것이 「발등상 신학」(footstool theology)이다(시 110:1).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에 거하며 중생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에 의하여 주관되는 땅의 장래에 대해 우리가 갖는 소망의 근거이다.

그러나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원래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로만 대답한다면,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 이 땅 위에 가시적(可視的)으로 존재하

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무단 침입 금지”라는 팻말을 세워 놓지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상실된 소유권을 소유하고 계시든지(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대표의 원리」(doctrine of representation)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땅에 대한 성도들의 소유권을 세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째서 삶의 어떤 영역들은 사단, 그 악한 자의 독점적인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는 아담이 자기의 생득권(生得權)을 사단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아담은 한 인간이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였다는 뜻이다(창 1:26). 하와 역시 그러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지상에 속한 첫 아들,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정당한 상속자였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창 1:28).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남아 있기만 했다면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합법적 재산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의 생득권을 사단에게 팔았다. 그러나 에서가 자기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 때 그랬던 것처럼 팔죽 한 사발을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창 25:29-34). 아담은 거짓말, 아니 적어도 반쯤은 거짓말인 유혹, 즉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창 3:5)는 말 때문에 그 권리를 팔았다. 하와가 불순종한 것은 이 눈가림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담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딤후 2:14).

이와 같은 거짓말이 바로 복음의 숙적(宿敵)인 모든 형태의 인본주의를 종교화하여 믿는 태도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분의 반응은 아

담에게서 상속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나 은혜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물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이는 어떤 동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처음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도록 몇 해를 그들에게 여분으로 주셨다. 그러나 그 날부터 그들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자녀였다.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의 처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상속권이 없는 자녀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사단은 아담의 타락 이래 지상의 많은 것들을 지배해 왔다. 아담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태만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사단이 사물들을 지배하는가? 자기의 인간 추종자들을 통해서이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이다. 「주권적 다스림」(dominion)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과제이지 사단에게 준 과제가 아니다. 지상의 전역에 다스림을 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이 과업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하여 권세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 군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혼란시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의 결정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사회를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상의 지배자들에게 도전하여 그들로부터 운전대를 빼앗기를 기다리시면서 이 인간 사회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표하여(대리하여) 이 땅을 주관하기를 바라신다.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사실을 더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나라)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따라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 예수께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그분의 목표는 땅 위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지상에서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단과 구속받지 못한 인간들과 모든 불경건한 세력들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이 진리에 대하여 당신이 계속 무지(無知)한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 성도(기도로써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하는 사람들)들의 총회(總會)로서 교회는 정치적 성격을 띤다. 이는 교회가 지상의 만국(萬國)을 위한 정치적 지혜와 법(governmental wisdom and law)을 선포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전망(perspective)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이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

우리 기도의 중심 논점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 장 15 절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그분은 똑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되어 세상을 효과적으로 제자화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법 아래 놓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이다.

● 기반의 상실

땅을 두고 벌이는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건만 대부분의 그리

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도 말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천상과 미래의 일뿐이라 믿기에 이르렀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왔으며 불의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왔다. 이런 이야기는 그 출처가 어디이든지 간에 매우 영향력있으며 그릇된 정보가 되어 왔다.

우리가 현재 여러 차원들에 걸쳐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지난 50 년 동안 모슬렘교는 500 퍼센트 신장(伸張)하였고, 힌두교는 117 퍼센트, 불교는 63 퍼센트 신장하였으나 기독교는 단지 47 퍼센트밖에 신장하지 못하였다. 1917 년 이래 우리는 지구 표면의 삼분의 이를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인구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나 숫자상으로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니, 좀더 크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우리의 지위, 즉 주님의 땅을 지키는 청지기들이라는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그 책임을 기꺼이 지고자 한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책이다. **우리의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방법은 지식을 증대시키는 것과 시민 정부를 포함한 지상의 정권들을 규율(規律)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가담해야 한다는 이 제안에 즉시 머리털을 곤두세울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간단히 말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법적, 경제적 힘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창 1:26)는 과업을 주셨기에, 만약 우리가 정치(governing) 활동에 가담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한번 지적하건대,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이 땅을 제자삼을 수 있겠는가?

선언

정치는 윤리적인 일이다.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권위나 권력은 항상 윤리적 성격을 지니기 마련이다. 두 주인 중 어느 한쪽을 섬기든 사람은 늘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이 섬김도 윤리적인 일이다. 거기에 중립이란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의 원래 소유주이시며 최고의 소유주이시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권을 인류에게 위임하셨다. 그리고 사단이 애초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끌어들이는 것, 자기 아래 윤리적으로 붙잡아 두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사단을 좇아 간다.

당신은 사단이 하나님을 거꾸러뜨리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사단이 전지(全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단이 어떤 우주적인 카드 게임에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는가? 사단이 한밤중에 몰래 숨어들어와 땅을 훔쳤는가? 물론 이것은 실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 가지 요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 대(對) 사단의 권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사단은 인간들이 사단의 명(命)을 들어주기로 할 때에 지상에서 권세를 얻는다. 사단의 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사단의 명이다. 사단은 결코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고질적인 불순종 행위라도 좋고 어떤 새로운 방식의 불순종이어도 좋다. 사단은 추종자들이 “윤리적으로” 자기 휘하에 들어오도록 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단에게 굴복하였다.

바뀌 말하자면, 사단은 자기 백성들과 하나의 「언약」(covenant)을 맺는다. 그 언약은 왜곡되고 전도(顛倒)된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초월성(“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창 3:5), 위계질서(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명령계통을 위반함), 법(인간에 게 주신 하나님의 지배 수단을 포기함), 심판(하나님의 법정 체계를 오염시킴) 그리고 시간에 대한 확장된 권세(하나님으로부터의 상속권을 반역적으로 주장함) 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모습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단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이다.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한다. 더 나아가, 인간은 그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낙인(烙印)인 하나님의 형상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인간 역시 하나님의 모방자이며, 타락한 인간군(人間群)은 사단을 닮는다. 그들 역시 진리를 왜곡하고 망쳐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창조력이 없다.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반영한다. 그들은 그들의 피조성(被造性)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음부에 가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받지 못한 아들들로 남는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계를 소유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사단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쥐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단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의 권위자로 가시화(可視化)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바로 각각의 언약의 추종자들을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인간 일반에게 상당한 권위를 위임하신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다(삼상 2:30). 사단 역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권세의 일부를 위임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몇 가지 목적들을 위해서일 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사단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하나님과 달리 사단은 「본유적인 권한」(original power)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거나 또는

그와 언약을 맺은 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게 해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오로지 인간의 성품이 갱신(更新)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위가 이전됨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인간은 모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가? 우리들은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득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상속권을 되찾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길이다. 그 분은 “이 땅을 해방시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상에 오셨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이 이 두려운 사명을 성취하셨는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일치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심으로써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번째로 태어난 지상의 아드님」으로서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신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일 자체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 작용을 한단 말인가? 이 사건이 역사에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냈단 말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상속자이신 아드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삶으로서 상속권을 획득하신 후,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유언」(new testament)을 세워 주셨다. 유언장이란 법적 상속인에게 유산을 넘겨 주는 일에 관한 문서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분을 통하여” 상속받는다. 정당한 법적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친구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 15:13).

원리상으로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날, 아담에게서 받아들인 권위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

인들은 원칙적으로 그 권위를 재상속받았다.

●●●●●●●●●● 핵심 내용 요약 ●●●●●●●●●●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 전쟁은 인간의 마음과 지성과 영혼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성격을 띤다. 즉,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싸움인 것이다. 양측의 사령관은 인격체들로서 하나님과 사단이다. 양측의 군대들은 두 사령관들 중 하나와 언약을 맺은(스스로를 예속시킨) 충성된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군대에는 모두 지휘 계통이 있다. 명령 계통이 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다. 또한 각 군대는 법규를 가지고 있다. 각 사령관은 할당된 임무에 따라 살고 죽기를 그의 부하들에게 요청한다. 각 사령관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육체의 죽음 이후의 보상을 약속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적군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해방을 약속하신다. 사단도 해방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 개인이나 한 문명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지성적 결정은 과연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며, 가장 중차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어느 편의 군대에 가담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지성만으로는 우리가 해방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해방되었음은 “언약적으로”(covenantally), 즉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신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규율하에 들어가겠다는 공식적인 시인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닻(true anchor)이다. 그 인격적인 닻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사슬은 우리를 안정과 영원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는 연결끈이다. 그분의 사슬이란 곧 그분의 법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참된 해방자이신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네주셨다.
2.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윤리적으로 속박됨을 통하여 자유를 얻으라고 인간을 부르신다.
3. 해방으로 가는 길은 도덕적인 전투장, 즉 마음에 있다.
4. 두 사령관들 사이에는 영구 평화 조약이 결코 없다.
5. 두 군대 사이에도 평화 조약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6. 휴전 상태가 조약은 아니다.
7. 양 법률 체계 사이에는 전투가 있다.
8. 도덕적인 혹은 법적인 중립 지대는 없다.
9.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유하신다.
10.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소유권을 위임하셨다.
11. 아담은 사단에게 “자기의 상속권을 팔았다.”
12.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그 권리를 되찾으셨다.
13. 그리스도께서는 소유권을 자기 백성들에게 위임하신다.
14.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하여 땅을 회복하여야 한다.
15.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회피를 해왔다.
16. 땅을 놓고 싸우는 전투에 복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원초적인 언약을 재확인해야 한다.

2

해방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神)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 20 : 1-3).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을 선포하셨다. 자기 백성을 예속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셨다.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이시다. 애굽의 거짓 신 바로는 성경의 하나님과의 대결을 견뎌내지 못하였다. 애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을 제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신도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게 된다.

여기에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는 사실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며, 그 생각이란 역사상 어느 시점의 생산 양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견해에서 볼 때,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신이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견해이기도 했다.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출 5:2).

우리는 「제 2 차 인본주의자 선언」(Humanist Manifesto II : 1973 년)에서 이 견해가 진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種)을 위한 신성한 목적이나 섭리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인간은 현재의 자신들의 상태와 미래의 모습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은 그들의 저작물(著作物)에서 출애굽을 자주 언급한다. 그들은 성경의 다른 어느 책보다도 출애굽기가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의 혁명의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은 해방신학의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의 주요한 모델이다.

출애굽기가 해방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바로는 독재자였으며 이방신들을 섬겼다. 사실상 애굽의 신학은 바로 자체가 하나의 신(神)이며 하늘과 땅의 매개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애굽 신학은 그 기저(基底)부터가 분명히 「인본주의」(humanism)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본주의를 관대히 보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궤멸시키셨다.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다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는 이제까지 해방신학자들이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압제자들에 대항하여 무장 봉기를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타협적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뜻에 반(反)하시면서까지 그

들을 구출하기 위해 개입하셨다(출 5:20,21). 하나님께서는 한창 영화를 누리던 애굽을 거꾸러뜨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애굽 밖으로까지 추격당해야 했다. 애굽인들은 금은 패물을 뇌물로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떠나달라고 사정해야만 했다(출 12:35,36). 그런데 노예 근성을 가진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밑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에 예속된 채 남아있기를 더 원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모세에게 거듭거듭 말했던 것이다(민 11:5,18,20).

출애굽기의 뗏세지는 한 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반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속박에서 구출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순종을 하면 그분은 그들을 아예 속박에서 넘기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한다(신 28:1-14).

따라서 출애굽기는 결코 무장 혁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 곧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나라들이나 집단들을 일으키사 현 세상의 애굽인들에 대항하여 유혈(流血) 혁명을 일으키도록 지도하실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승리를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속한 이교적이며 권력 지향적인 정치 체계를 뒤집어 엮는 일에 공산주의자들을 사용하신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혁명 집단들을 돕거나 칭찬하거나 부추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정권을 비판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손잡는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다. 권력 지향적인 이 세상의 독재자들은 지도급 인사들이 좀더 오래 그들이 수탈한 부(富)를 유지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은 조직적인 살인자들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밟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잠시 권좌에 자리하고 있는 범죄자들에 불과하다. 그들은 반역적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도의 심판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하면, 독재자는 더욱 강력한 전제자(專制者)가 되며 의인에게는 고의적인 핍박이 가해지게 된다. 독재자에게 있어 공산주의자들은 솔로몬에게 있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같은 존재,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있어 여로보암과 같은 존재이다. 어리석고도 젊은 충고자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하였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을 무겁게 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명을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을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체적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왕상 12:10,11).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고,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이끌고나가 따로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중과세(重課稅)에 항거하여 일으킨 이 반란의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우상 숭배였다. 여로보암은 새로운 정치 왕국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열 지파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다(왕상 12:25-33). 북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르호보암이 부과한 높은 세금을)를 잡으려다가 추가삼간을 다 태우는(처음에는 우상 숭배, 그런 다음 앓수르에게 포로가 되는) 형편이 되었다.

● 러시아의 예(例)

혁명 직전 짜르(Czar : 제정 러시아 황제를 일컫는 칭호) 치하의 러시아에는 이천만 내지 이천오백만 명, 아니 백러시아(White Russia) 인구의 삼분의 일이 「구파 신자」(Old Believers)라고 불

리는 기독교 일파의 일원들이었다. 그들은 1660년대 후반부터 국교(國敎)인 러시아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로부터 간헐적으로 혹독한 핍박을 받았다. 이 구파 신자들은 “지하에 숨어들어가” 당국자들에게 자신들의 예배 활동을 숨기면서 그들이 안심할 수 있게 처신하였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권력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다. 1883년 짜르는 구파 신자들이 그를 나름대로 독립 학교를 세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은 기존 교회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구파 신자들의 자녀들을 그 부모들의 신앙에서 떼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배한 후에야 구파 신자들의 사정은 좀 호전되었다. 그러나 세계 제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14년 1월까지도 문부대신(文部大臣)은 구파 신자가 교사로 채용되는 것을 규제하였다.

구파 신자들은 짜르와 국교(國敎)에 대한 분노 때문에, 국가에 대항하여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봉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1905년 이후 짜르 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하였을 때, 국가는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주요 분파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이미 「볼셰비키」(Bolshevik) 혁명을 낳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혁명으로 구파 신자들은 짜르가 가했던 것보다 훨씬 심대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적극적인 모든 사회 활동이 봉쇄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산당 정권에 의해) 그들의 운명을 마침내 마감하였다.

1941년 나찌(Nazi)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때도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1930년대에 소련 공산당이 우크라이나(서부 러시아)인들에게 가한 박해는 끔찍한 것이었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굶어죽었다. 니키타 흐루시쵸프(Nikita Khrushchev)가 “우크라이나의 도살자”라는 명성을 얻은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처음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수백만 명이 나찌에 가담하였다. 그들은 러시아 볼셰비키 고용

주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찌는 모든 면에서 스탈린 (Stalin)의 압제에 못지 않은 학정(虐政)을 폈다. 처음에 나찌는 해방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볼셰비키의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대신하여 신비주의(occultism), 인종주의, 사회주의를 새로운 신앙으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끔찍한 폭정이었음이 드러났다. 뜨거운 남비에서 뛰어나가 불 속으로 뛰어들려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해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십계명의 전문(前文)에서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삶에 분명히, 그리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다고 천명하신다. 이 개입의 근본적인 성격은 인격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것이다. 출애굽의 사건들을 비인격적인 자연적 사건들로 설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모세 시대 히브리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진정한 해방자로서 자리하고 있었음은 의심할 나위없는 사실이다. 한 세대 후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정보를 준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수 2:10,11), 여리고의 가나안 성읍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그들의 진정한 해방자로 밝히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총체적인 주권(total sovereignty)을 언명하셨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먼 거리에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열방과 바다와 역사의 형태를 새롭게 주조(鑄造)하실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다. 다른 어떤 신(神)도 이런 권능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왕이시다. 주전 이천 년대의 동방(東邦)의 왕들은 이러한 언명과 유사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시의 이름을 알려셨던 것(출 6:2)과 유사한 형식으로 그들의 주권을 선언했었다. 자기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왕들은 포고령

전문에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론 능한 업적들을 기록하는 것이 관례였다. 유대인 성경 주석가인 카수토(Cassuto)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나, 말하는 자는 ‘아훼’라. 그리고 특별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온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출 19:5),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의미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19:6). 그리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 낸 자’가 바로 나이다. 이는 단순히 너희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이 아니라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섬기되 다른 백성들처럼 공포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느니라.”¹⁾

그 하나님은 「권능」과 「윤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 두 측면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인 주인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분의 행동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사랑과 경외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자신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된다.

히브리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과 그분의 법 질서에 대한 신앙의 역사적 터전으로 삼았다. 이 법 질서는 전문(前文)에 뒤이어 나오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십계명은 의로운 삶의 기반이다. 전체 구약법들은 이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事例)들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회 제도와 인간 상호 관계의 기초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정, 사업, 자선 단체, 군대, 의료 기관 등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든 성경의 법(Biblical law)은 인간의 행위를 주관한다.

인간이 그 법의 요구 사항들을 무시하기로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

1. 카수토, 『출애굽기 주석』[A Commentary of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51) 1974], p.241.

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당돌하고도 무도하게 배격했던 자들을 애굽과 홍해에서 처리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성경의 법 질서와는 다른 법 질서에 의하여 주도되는 사회 질서의 제도적 영향들을 체험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다. 그런 그들을 예속으로부터 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의(義)의 표준들을 선포하신다. 그 의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의(義)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와 동시에 「입법자」(law-giver)이시기도 하다. 성경적 법률과 인간의 자유와의 밀접한 관계는 하나님의 바로 이런 품성에 근거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해방 사이의 이 관계를 오해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나타내시며, 그 다음에는 인간 행동의 표준으로 요구하시는 법 구조를 요약적으로 진술하신다.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윤리의 하나님이다.** 하나의 궁극적 표준과 동떨어진 성경적 윤리란 있을 수 없으며, 이 궁극적 표준은 역사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역사의 하나님이 그 표준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윤리는 영속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역사에도 적용 가능해야 한다. 한 윤리가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법률이라고 할 때 그 윤리의 영원성이 법률의 적용성과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적 상황들이 보편적 표준을 상대화시켜서도 안 된다. 모든 비성경적 사회 철학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는 이 법과 역사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은 하나님에 의하여 극복된다. 그분은 자신의 법칙 및 그 법칙에 의하여 통제되는 사회 질서의 보증자(guarantor)이다. 그 하나님은 또한 그 법(칙)의 영구적 적용성(permanent applicability)의 「보증자」이시기도 한데, 이는 그분이 땅 위에서, 그리고 시간 내에서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성립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임을 먼저 상기 시킴으로써(사 43:3/렘 6 장/호 13:4)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상을

거듭하여 날날이 고발하였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현재 그들을 비판하고 계신 분을 과거 그들을 구출하신 분과 일치시킴으로써 그 민족의 죄, 곧 성경의 법률이 금(禁)하고 있던 죄들을 일일히 열거하고자 하였다. 에스겔은 레위기 18 장 5 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겔 20:10,11).

영어 성경 NASV 는 위의 ‘ ’표 내에 있는 구절들을 “if a man observes them, he will live”라고 번역하였다. 바꿔 말해서, 사람이 이 법에 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삶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죄악들을 열거하였다. 그 죄악들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멸망을 초래하는 죄들이었다.

성경의 법

인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확신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 가질 수 있다. 왜 이러한 확신이 정당화되는가? 이스라엘을 애굽인들로부터 건져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의 법(칙)을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 법들의 기초가 사람이나 무작위의 우연이나 역사의 순환이나 역사의 비인격적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섭리」임을 의미한다. 그 법의 신빙성을 보증하시는 분은 자신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을 위한 「해방의 법」이다. 그러므로 반(反)성경적 법은 속박의 법, 예속의 법이다. 해방신학을 선포하되 경제법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이며 명시적인 계시의 인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양의 가죽을 쓴

능대들이다. 만약 그들이 약간 변형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국가 간섭주의, 혹은 국가 지상주의적 경제학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들은 애굽인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만약 그들이 급진적인 무정부주의를 선포하고 있다면, 지금 그들은 국가 권력의 확대를 피하고 있는 자들을 도울 윤리적, 정치적 역전(逆轉)의 기반들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무정부 상태하에서는 살 수 없다. 시민 사회의 모든 법규들을 폐지한다면(무정부주의) 불가피하게 방탕주의(성적인 것 등의)가 초래되고, 이러한 상황은 그 사회를 역회전시킨다.

[역사적으로 무정부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의 초기에 그 혁명가들과 동맹을 맺어 왔다. 그러나 동맹자들이 강제력을 가진 국가 기관 통제권을 장악한 후에는 예외없이 그 동맹 관계가 파괴되었다. 무정부주의자인 미카엘 바쿠닌(Michael Bakunin)은 최초의 국제 공산당 혁명 조직인 제 1차 인터내셔널(국제 노동자 연맹)을 창립할 때 마르크스에게 협조했다. 그러나 후에 두 사람 사이는 결렬되었으며, 마르크스와 엥겔스(Engels)는 그 조직이 바쿠닌 추종자들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 그 조직을 파괴시켰다. 러시아 혁명의 경우를 볼 때, 무정부주의자들은 혁명을 최초로 반대한 자들의 무리와 함께 레닌의 비밀 경찰인 체카(Cheka)에게 체포당했다.]

성경은 참된 해방신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신학이 참된 해방 사회를 보장한다. 이 사회적, 정치적 제도의 특정 조항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십 세기 후반 몇십 년 동안 흔히 「해방신학」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재탕이거나 사회주의 경제학의 일종에 불과하다.

자칭 해방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역사적 선례(先例)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성경에 수없이 나타나 있는 바, 십계명의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해방신학자들은 경제 관계를 계속 다루고 있는 구약 법률들이 지금까지도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국가의 경제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들(성경에는 이런 법들이 극히 적다)만 인용할 뿐이다. 현대 해방신학의 이러한 “선별 추출”(pick and choose)의 측면은 정통 신학의 표준보다는 사회주의와 혁명의 표준에 지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견지에서 사회 제도들을 재건시킬 교회의 능력을 해치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고 있다는 교회들은 왜 그토록 오래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가? 왜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해방과 사회변혁의 사상을 도적질해가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代案)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속박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의 그늘 속으로 숨고자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예수으로부터 구출하도록 그분께서 권세와 도구를 주셨음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기독교를 「도피주의 기독교」라 부르고자 한다(제 3 장을 보라).

●●●●●●●● 핵심 내용 요약 ●●●●●●●●

해방과 하나님의 법은 늘 병행한다.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한 그분의 선언, 그리고 나서 뒤이어지는 십계명의 수여(授與)는 사유와 성경 법 사이의 이 연관성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법의 신빙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성경이 참된 해방의 기저(基底)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 즉 우주를 지탱하시며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윤리적 표준에 따르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 하에서의 해방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마르크스주의 해방 신학자들은 출애굽의 예(例)에 부적절한 호소를 한다.
2.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대항하여 무장 혁명을 해야 한다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
3. 그리스도인들은 마르크스주의적, 인본주의적 혁명 운동에 가담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
4.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곧 역사를 통어(統御)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5. 이 하나님은 권세와 윤리의 하나님이다.
6.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다.
7.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림(domin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다.
8. 하나님의 법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법들이다.
9. 성경의 법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위한 해방의 법이다.
10.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속을 초래한다.
11. 해방과 하나님의 법은 병행한다.
12.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지 않다.
13.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의 용어와 비전을 도용(盜用)해 왔다.

해방의 대적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 : 24).

예속은 피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것은 결코 “예속 대(對) 비예속”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항상 “누구에게 예속되느냐”의 문제이다.

예수께서는 재물(mammon)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다.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돈인가? 그렇다. 권력인가? 그렇다. 인간의 심중(心中)에서 하나님보다 높이 취급되고 있는 어떤 것인가? 그렇다. 예수께서는 거의 팔백 년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셨을 뿐이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왕상 18:21).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을 택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칠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에 근거해서도 하나님을 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엘리야의 희생제물에 불이 내릴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희생제물에 불이 내릴지를 보고자 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표적」(sign)을 원했다. 그들은 「권능」(power : 권력, 권세, 힘)을 숭배했다. 그래서 권능의 표적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권력 숭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나, 권력을 숭배할 것이나 하는 엘리야의 그 도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힘(total power)을 갖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단순히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분으로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섬기기를 바란다. 사단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단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에도 사단의 가시적(可視的)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시적 권력보다 더 클 때가 간혹 있다. 배도와 반역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권력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사단은 권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권력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라고, 권력을 추구하라고 인간을 부추기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약점을 아시고 이렇게 경책(警責)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義)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예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껏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7,28).

사단 숭배자들은 권력을 숭배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덤 저편의 인간을 지배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역사 내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제한된 권력을 모두 한 군데로 집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시선이 지상적 권력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대응 태도는 어떤 것일까? **권력을 존중하되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 대응 방법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총체적 권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청원할 수가 있다.** 개인적인 기도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공적인 예배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공적인 기도에 대한 예로는 시편 83 편을 참조 바람).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서 육체와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경배하지, 역사 내에서 겨우 육체만을 파괴시킬 수 있는 재물을 섬기지는 않는다. 더욱이 겨우 육체만을 파괴하기 위해서도 사단은 먼저 하나님의 재가를 얻어야만 한다(욥 1 장).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정당하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정당한가?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오고 있다.

세 가지 종교적 세계관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권력관(權力觀)으로는 세 가지의 주요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주요 입장들 가운데 두 가지는 해방을 반대하고, 한 가지는 해방에 호의적이다. 해방에 반대하는 두 입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는 권력을 표방하며 다른 하나는 권력 도피를 표방한다. 이들 종교적 세계관들은 서로 오랜 숙적(宿敵)이다. 이들 세계관은 서로 갈등하고 있지만, 역사 기록을 검토해 보면 서로 일시적인 제휴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세계관들을 각각 「권력 종교」, 「도피 종교」,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dominion religion)라 부르고자 한다.

애굽에서의 히브리 노예들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예속으로부터의 탈출을 원했다. 그들은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출 2:24/6:5).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모세로 하여금 바로와 대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서지 않았던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느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출 5:20,21).

그들은 바로에게 속박되는 것보다 바로의 칼을 더 무서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을 더 무서워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으로 자신의 권능이 애굽의 신들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 주셔야 했다.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로부터 건져내시고 애굽인들을 바다 속에 수장(水葬)시키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애굽인들보다 훨씬 더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권력(힘)을 더 경배했기 때문에 늘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들에서 도피하고자 했으며, 이는 곧 사단의 왕국의 권력을 숭배했다는 의미이다. 그들의 도피적 종교는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권력 종교와 제휴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점증하는 종교적 자의식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서 권력 대(對) 도피(power vs. escape)라는 이 두 이슈(issue)는 갈수록 첨예한 문제가 되어가며 점점 서로 쉽게 양보될 수 없게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관점들을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권력 종교(Power Religion)

이것은 한 인간이나 어떤 집단 또는 종(種)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있다고 단언하는 종교적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하나님의 주된 속성으로 보며, 혹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가 무신론적 사회이면 그때는 권력을 인간의 주된 속성으로 파악한다. 이 시각은 하나님께서 전피조계(全被造界)에 대하여 주권적 다스림을 행사하라고(창 1:26-28)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악마적으로 왜곡한 것이다.¹ 이것은 참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종속 관계에서 떠나 그것과는 별도로 주권적 다스림을 행사하려는 기도(企圖)이다.

성경이 말하는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dominion religion)와 사단적인 「권력 종교」(power religion)를 구별케 하는 것은 윤리(ethics)이

1. 게리 노스(Gary North),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 : 창세기』(The Dominion Covenant : Genesis, Tyler, Texas : 기독교 경제 연구소, 1982).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두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되, 합법적이며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윤리적 표준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의 틀 안에서 행동할 것이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 자질을 인정하여, 신앙고백과 성결한 삶이라는 이 이중의 요건을 교회의 지체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설정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권력 종교는 「자율의 종교」(religion of autonomy)이다. 이 종교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신 8:17)라고 주장한다. 이 종교는 바로 이 주장을 신빙성있게 만들기 위하여 권력과 부(富)를 추구한다.

부와 권력은 위의 두 종교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이다. 부와 권력은 서로 경쟁하는 종교관들 중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 대해 성공했음을 말해 주는 언약적 표현들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경계하시기를, 자율적인 행동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신 8:18).

하나님의 대적들 역시 그들이 죽음과 맺은 언약의 유효성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잠 13:22).

히브리인들의 가나안 입성(入城) 사건에서 그들은 이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가나안 사람들은 집과 포도원을 가꾸어 왔으나 결국은 아무 보람도 없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대적인 히브리인들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이다(수 24:13).

권력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어떤 사회에서든 장기간 유지되는

부(富)는 하나님의 법을 윤리적으로 준행한 데 대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 및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는 그 언약의 윤리적 표준들은 부인하면서 그 언약이 주는 축복들은 얻으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기독교의 뿌리와 열매를 혼동해 온 것이다. 그들은 뿌리는 뽑아 버리려고 하면서 열매는 존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2. 도피 종교(Escapist Religion)

이것은 반(反)기독교적 종교의 두번째 큰 전통이다. 도피 종교의 주창자들은 자율적 권력의 행사가 하나의 울무이자 망상임을 알고 일 반 문화, 즉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 한다. 그들은 온 세상을 또는 일부 지역만이라도 주권적으로 다스려야 할 책임에서 도피하면서, 하나님께서 총괄적인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에서 자신들을 제외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기독교식 도피 종교는 때대로 「경건주의」(pietism)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신학적 뿌리는 고대의 이단인 「신비주의」(mysticism)에 까지 소급될 수 있다. 신비주의자들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윤리적 연합」에 대한 필요를 선포하기보다는 단일신적(單一神的)인 통일된 신과의 「형이상학적 연합」을 주장한다. 초대 교회 때에는 여러 형태의 신비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계속하여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가장 두려운 경쟁 종교는 「영지주의」(靈知主義 : gnosticism)였다. 영지주의는 여러 이론들을 펼쳤지만 영지주의 신앙의 핵심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곧 물질계로부터 철수하여 자기를 조작하는 기술, 이를테면 금욕주의, 고도의 지식(知識), 비의(祕儀)에의 입문을 통하여 더 높고 더 순수한 영계(靈界)로의 도피였다. 영지주의는 사고와 행동(또는 행동의 실패)의 한 방식으로서 오늘날까지 잔존하고 있다. 이 신앙의 본질은 그 「반법주의」(反法主義 : antinomianism)에 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법(nomos : law)에 반대’(anti : against)한다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법

을 경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증오는 그들로 하여금 국가 법을 수용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본주의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도피 종교의 배후에 깔려 있는 기본 사상은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dominion covenant)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도피 종교는 하나님 아래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든지(불교) 자기 수련 기술이 인생의 제한된 영역이나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제공해 준다고 믿는다. 그들은 개인적인 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일들을 점차적으로(퇴보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윤리적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그들의 힘(권력)을 보존하고자 한다. “참된 신도”는 자기가 스스로 부과한 책임 영역을 제한시킴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기의 좁은 활동 영역에 대하여 좀더 많은 통제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관심은 「자기」(self)에서 출발하여 자기에서 끝맺는다. 「자기」라는 협소한 한계를 넘어서는 책임들로부터 회피하려는 그의 기도(企圖)가 바로 「자기」를 극복할 힘을 획득하기 위한 실천 방안인 것이다. 이것은 행위의 종교, 「자력 구원」(自力救援)의 종교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즉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책임의 범위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원리적으로 설정된,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위치(수준)로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

도피주의자들은 제도적 평화, 즉 “어떤 희생이라도 무릅쓰는 평화”를 선포한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詐稱)한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겔 13:10).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열변은 예레미야서에서 파운 딸이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렘 6:14).

이 종교는 사회 재건의 서곡(序曲)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언제나 요구되는 체계적인 노력에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선포한다.

간단히 말해서 도피 종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것을 촉구한다. 도피 종교를 옹호하는 자들은 문명의 재건보다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또는 “교회를 세워야 할” 도덕적인 책임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관심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너무나도 문화적인 악이 편만해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부패했다고 가정하고 그 세상을 체계적으로 포기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 관심은 「개인적인 책임 회피」에 있다. 러시도니(Rushdoony)는 이것을 일러 「성숙에 대한 반기」(the revolt against maturity)라고 부른다.

3.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Dominion Religion)

이것이 정통적 신앙이다. 이 종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적 신조(信條)의 타당성과 원칙 건설의 필요성을 선포하며, 충성된 신자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종교는 중생(重生)한 사람이 구원의 신앙의 발휘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법을 윤리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대한 그들의 주권적 다스림의 영역을 확장시켜나갈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 종교는 정복의 종교, 윤리를 통한 정복의 종교이다. 그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윤리적 순종이지만 이 순종의 결과에는 법적인 종속자들과 윤리적 반역자들과 자연에 대한 주권적 다스림이 포함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 장 1-14 절의 맺세지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맺세지인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행하셨으며, 그럼으로써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피조계를 다스릴 총체적인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마 28:18). 나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 중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제 2 위(位) 되신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늘 총체적 권세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께 대한 윤리적 순종 및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전체 권력을 “획득하신” 분에 대해서이다.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는 「의」(義)와 「권위」 사이의 관계, 언약에 대한 충성과 언약이 주는 복락 사이의 관계를 인정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더 큰 권위(권세)를 부여받는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의미이다(마 26:14-30). 점진적인 다스림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개인 및 가정, 교회, 기업, 학교, 정부 등의 제도가 “도덕적으로 점차 성화(聖化)되어가는” 길이다.

언약 종교는 언제나 신앙고백적이고 공개적이며 단도직입적이다. 이 종교에는 「공공 신학」(public theology)이 있다. 권력 종교와 도피 종교는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관은 저마다의 신조(신앙고백)를 가지고 있다. 비록 그들이 내세우는 영구한 주장에 “영원한 신조는 없다”는 신조가 담겨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신조(또는 신앙고백)란 피할 수 없는 개념이다. “신조 대 비신조”의 문제란 결코 없다. 다만 “어느” 신조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력 종교가 스스로를 신앙고백적 종교로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공산주의와 나찌즘은 이 일반 법칙에서 예외가 되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자유” 서구 사회의 무대에서, 권력 종교의 주창자들이 제도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최후의 국면에 이르기 전에 그들의 속셈을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와 도피 종교로 양분(兩分)되어왔다. 예를 들어 메노나이트(Mennonites : 재세례파의 한 분파)와 아미쉬(Amish) 교도 등은 정치와 문화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두 집단은 평화주의자(반전주의자)이다. 오늘날의 기독교 도피주의자들(경건주의적 근본

주의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사 그분의 권세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까지 권력 대(對) 도피의 대결을 연기시키려고만 한다. 이 「연기된 사회 책임의 신학」(theology of deferred social responsibility)은 1980 년대에 이르러 눈에 띄게 몰락해가고 있다.

미란다(Miranda)의 도전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은 대중적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도피주의적 요소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이 도피 종교가 기독교의 본질이며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유일한 대안(代案)이라 주장함으로써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릇된 선택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권적 다스림의 신학」을 무시한다. 그들은 이러한 대안이 기독교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결코 존재해 오지도 않았던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학은 존재한다.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인 호세 미란다(José Miranda)는 모든 재화(材貨)에 대한 공동의 소유권을 설파(說播)한다. 그는 현재의 비(非)공산권 사회의 질서를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적 질문을 던진다. 이들은 모두 도피주의자라고 그는 말한다. 이들도 모두 사회적으로 시의에 적절치 못하며 역사적으로도 무력한 신앙의 옹호자들과도 말한다. 그는 도피주의적 기독교의 비능률에 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

자, “하늘 나라”라는 마태의 표현은 그 나라가 피안(彼岸)에서 실현되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의 단서로서 도피주의적 신학자들에게 기여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영광 내지 영광에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조차도 그런 주장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시 85:9)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²

2. 호세 미란다, 『성경의 공산주의』(Communism in the Bibl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2), p.14.

그러므로 낙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보화를 말하는 것인지는 한편으로 제쳐놓는게 더 좋을 문제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분명한 ‘나라’(kingdom)이기 때문이다. 도피주의자들은 낙원을 소유할 수 있다.³

피안(彼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왜냐하면 도피주의적 신학이 인용하는 성경 본문들의 어느 것도 그 나라를 언급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있는 바,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사실과 “주(主)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 나라가 저 세상에 존재한다고 수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가르쳐졌다는 사실은 전통(傳統)이 예수를 배신하고 전혀 다른 종교를 세웠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⁴

중남미(中南美)와 미국의 신학교 캠퍼스에서 해방신학이 엄청난 호소력을 갖는 것은 성경의 강력한 개념들을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 비전에 전이(轉移)시키는 그 신학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도피주의적 근본주의와 전통 종교가 피안을 강조한다고 한 미란다의 지적은 정확하다. 그러나 복음에 공산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한 그의 지적은 옳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를 도피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기반을 먼저 파괴하지 않고 성경의 증거에 호소하여 미란다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의 오류를 극복한다는 것은 기존의 기독교권 내에서는 너무나도 벅찬 신학적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자신의 손에 최상의 대안인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현재의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해방신학의 도전은 급속도로 확산되어가고

3. 앞의 책 p.15.

4. 앞의 책 p.17.

있는 것이다.

현대의 권력 종교는 (공산주의를 포함하여) 인본주의적 엘리트주의이다. 이 엘리트주의는 자율적 인간이 (인류를 포함한)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종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서 학문이라는 지적(知的) 작업을 빈번히 오용한다. 이러한 권력 종교는 도피 종교와 윤리에 기초한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의 반대를 받는다. 기독교에 대한 두 라이벌들(권력 종교와 도피 종교)은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갖고 오시기 이전에도 장기간의 정당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반대한다. 성경은 장기간의 과학적, 경제적, 지적 진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계에 저주의 일환으로서 내리신 제한의 대부분을(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주권적 다스림의 개념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공하고 있다.

윤리와 구원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 히브리인들을 애굽과 애굽의 신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신다. 그러나 이 구출(구원)은 항상 「언약적」(covenantal)이다. 이 구원은 언약의 맥락 안에 있다. 그 언약은 무법한 계약이 아니라 적법(適法)한 계약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에게 매인 종으로 부르신다.

우리는 정치적인 존재, 자유한 존재가 되기를 추구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자유인은 책임있는 사람이다. 자유인이자 책임을 지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 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0-23).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어떤 약속된 자율성(self-law)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 불평해야 하겠는가? 아니다, 그런 자유는 사단과 죄와 정치적 노예로 예속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의 노예가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윤리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자유가 뒤따를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

●●●●●●●● 핵심 내용 요약 ●●●●●●●●

하나님이나, 공산주의나, 인본주의나, 다른 어떤 권세의 원천이 인간을 모든 책임과 모든 제도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 종교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소멸을 꿈꾸었던 마르크스의 이상(理想)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국가라는 악몽으로 현실화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어떤 다른 권위를 섬겨야 한다.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스림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지음받았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다스림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되,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권적인 존재이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스스로를 종속시키도록 인간을 부추기는 어떠한 움직임은 반드시 그 추종자들을 죄로, 그리고 압제로 인도한다.

바알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중에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성경의 해방신학과 마르크스주의의 해방신학 사

이의 논쟁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속은 피할 수 없는 개념이다.
2.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나는 누구에게 매여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3.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나, 사단은 하나님 보다 못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4.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5. 세상에는 세 가지 종교적 세계관이 있으니 그것은 권력 종교, 도피 종교,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이다.
6. 권력 종교는 하나님과는 별도로 자기 스스로 만든 법, 즉 자율의 종교이다.
7. 도피 종교는 반법주의의 종교, 즉 하나님의 법의 권세를 부인하는 종교이다.
8. 도피 종교는 또한 자력 구원의 종교로서, 금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
9.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는 하나님의 법의 권세, 윤리를 통한 정복을 긍정하는 윤리적 종교이다.
10.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는 피안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책임을 잘 인식한다.
11. 주권적 다스림은 개인적, 제도적 양 차원에서 점진적인 도덕적 성화를 통하여 존재한다.
12.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는 확고한 원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적 종교이다.
13.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종교가 경건주의의 도피 종교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14.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를 구원한다.
15. 그 멍에는 언약적인 멍에이다.

16. 그 멍에에는 은혜로써 성경의 법에 착념하는 것이 포함된다.

17. 자울(자기가 만드느 법)이란 사단에게 예속되는 길이다.

해방의 언약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 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 함이니라”(신 8 : 18-20).

성경 종교는 언약 종교이다. 속박 또는 예속이 그러하듯, 언약 (또는 계약)도 피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언약 대(對) 비언약”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언제나 문제는 “누구의” 언약이냐 하는 것이다.

성경은 세상에 네 가지 언약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개인적 언약, 가정의 언약, 교회의 언약, 정부 차원의 언약이다. 이 각각의 언약들은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자기에 대한 저주의 서약」(self-maledictory oath)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서약은, 만일 그 서약자가 언약을 어길 경우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물들을 쪼개시고 그 쪼개진 것들 사

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조항에 충실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의미했다. 그 충실하심이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기신다면 자신이 그 동물들처럼 찢기우리라고 하실 정도의 완벽한 신실하심이다(창 15:7-21).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민 30 장)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언약을 맺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의 언약 아래 두셨을 때 그는 암시적으로 그와 같은 맹세를 했다. 그는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맹세를 깨뜨렸으며 자신의 모든 후사들로 이 깨어진 맹세 아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스스로 담당하셨다.

다른 제도들(institutions)은 언약적(covenantal)이 아니라 협약적(contractual) 또는 사교적(fellowship) 제도들이다. 오로지 세 가지 제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원(成員)들에게 결속의 서약(binding oaths)을 부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니 그 세 제도는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비밀 결사체에서 행하여진 자기 저주의 서약들은 비성경적이다. 그것들은 비성경적 언약들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시도이다.

합법적인 언약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께 인격적, 법률적으로 결속되지 않고는 개인이건 사회이건 장기간의 주권적 다스림을 지속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언약과 거짓 언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언약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 윤리적 전쟁의 성격을 보다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이 서튼(Ray Sutton) 목사는 언약을 주제로 한 자신의 저서

『네가 창대할 것이라』(*That You May Prosper*, 1987년)에서 신약과 구약 언약의 모델이 모두 5 중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메리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 교수는 서튼 목사의 모델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신명기에 **다섯 가지 요점을 가진 구조(a five point structure)**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구조가 지니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은 데 비해 서튼 목사는 이 구조가 함축하는 바를 찾고 있다. 다음에 있는 것은 성경 전편에 나타난 바 언약의 기본 개요이다.

- 첫째, 초월성과 내재성(임재)
- 둘째, 위계 질서와 권위(복종)
- 셋째, 법과 주권적 다스림(규정)
- 넷째, 심판과 서약(상벌)
- 다섯째, 상속과 지속(존속)

용어가 약간 전문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 이 말들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다면 좀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 첫째, 이곳의 담당자는 누구인가?
- 둘째, 나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 셋째, 내게 내려진 명령은 무엇인가?
- 넷째, 내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가?
- 다섯째, 이 집단에게 장래는 있는가?

이것이 혁명적인 통찰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혁명적이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서튼의 주장을 여기에서 전부 소개한다거나 그 주장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전부 논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요약된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것을 사단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 사단 또한 매우 비슷한 언약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약의 구조

클라인과 서튼 두 사람은 공히 이와 동일한 구조가 고대의 「종주권 협정」(suzerainty treaty)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종주(宗主)인 왕이 먼저 한 나라에 대한 자기의 주권(sovereignty)을 선포하고, 충성을 요구하며, 불순종에 대한 처벌을 부과한다. 또한 순종에 대해서는 보호를 제공하며 법률을 공포하고 승계의 규칙을 제정한다. 서튼은 이 협정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내재해 있는 인간 정부의 근본 구조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로, 언약에는 초월성과 내재성의 원칙이 있다.

초연신론(超然神論 : deism)이라는 이단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피조계와 아무런 인격적인 접촉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는 자가 시계의 태엽을 감아 놓는 것처럼 피조계를 작동시키셨으나 더 이상은 거기에 간섭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있는 자신의 피조계에 대하여 전적으로 비인격적인 존재가 된다.

범신론(汎神論 : pantheism)이라는 이단은 하나님을 그의 피조계와 동일시하며 하나님이 피조계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피조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어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피조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신(神) 역시 비인격적이다.

성경은 이 두 견해 모두를 배격한다. 하나님은 ‘전적인 비인격적 초월’(total impersonal transcendence)도, ‘전적인 비인격적 내재’(total impersonal immanence)도 아니다.

● 성경적 초월성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피조계 위에 계시며 그 피조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시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 피조계와 공유(共有)하고 계실 것이 전혀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본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은 피조계의 일부가 아니시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별」을 선언한다. 이 구별은 삶의 모든 양상에 있어서 근간(根幹)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 피조물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계와 연결된 가상적(假想的) “존재 사슬”(chain of being)의 일부가 아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主)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시 97:9).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廣大)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시 99:2).

하나님의 초월성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이사야서 55 장 8,9 절일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기독교 철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의 저작에 친숙한 사람들은 「창조주/피조물의 구별」이 반틸 사상의 출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과 그에 따른 「인간의 비자율성」(nonautonomy of man)이다. 반틸은 하나님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 변증학(믿음에 대한 지성적 변론)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만물을 통제하신다는 사상에서 모든 생각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불신자들(반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적(知的) 요구에 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두 가지 종류의 해방신학 사이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성경적 해방신학은 사람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아래, 성경 아래 사로잡혀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해방신학은 인류가 가정(假定)된 “변증법적 역사의 비인격적 세력” 아래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성경적 임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의 면에서 볼 때 단순히 인간 위에 계시지만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피조계 어느 곳이나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은 ‘편재’(omnipresent)하신다. 그분은 단순히 초월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재’(immanent)하신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主)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殿)이 오리이까”(왕상 8:27).

시편 139 편 7-9 절은 더욱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의 임재를 천명한다.

“내가 주(主)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陰府)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가까이에 멀리에,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하늘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와 더불어 현재(顯在)하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

라 나는 천지(天地)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렘 23:23,24).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이것은 피조물의 하나인 사단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다. 사단은 편재하지 않는다. 사단은 초월적이지도 내재적이지도 않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단은 자신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추종자들을 필요로 한다(그리고 똑같은 이유에서 그는 그런 추종자들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사단의 언약이 지닌 핵심적 측면이 하나님의 언약 제 2 항과 같이 위계 질서적(hierarchy)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둘째로, 언약에는 위계 질서와 권위의 원칙이 있다.

피조계의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보다 앞서며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할 것을 아담에게 요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이다. 따라서 언약은 일종의 결속(結束)이다. 그것은 책임있는 개별적 존재들 간의 “인격적” 관계이다. 그 관계는 연합의 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이 연합은 존재론적(ontological) 연합이 아니다. 즉, 보편적인 “실유”(實有)의 연합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범신적(汎神的) 존재가 아니시다. 인간은 (동양 종교에서처럼) 하나님으로 진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언약은 권위와 복종에 근거한 인격적 관계를 설정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명령하기 위해 어떤 매개적(媒介的) 기관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심판날 자기 대신 책임의 일부를 저줄 죄인들의 위원회를 대동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위계 질서를 건설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대하신다. 그러므로 사회 제도들이 주권적인 창조자이시며 유지자이신 하나님의 기능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실수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그 행위의 당사자는 인간 자신이다. 각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또는 저주)을 이루어야 한다(빌 2:12).

사람은 공적인 악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신을 흉내내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억누를 수 없으며 계속 그를 감시하지 못한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계 질서는 사회적 자유를 낳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주권을 벗어난 모든 거짓된 자율로부터 인간을 구제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미 의도가 정해진 위계 질서(*predestinating hierarchies*)를 만들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제도적 법률들이 공적으로 준수되는 한, 인간은 동료 인간들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좋다.

셋째로, 언약에는 법과 주권적 다스림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언약의 “윤리적” 속성이다. 복종이라는 용어에는 윤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언약 준수자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윤리적 연합이다. 언약 파기자와 하나님 사이의 분열도 역시 윤리적이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반역한 것이다. 아담이 죄로 굴러떨어진 것은 어떤 본질, “존재됨”의 어떤 측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아니었다.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바울의 말처럼 “아담은 피임을 보지 않았다”(딤후 2:14).

윤리를 이렇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성경 종교는 이방 종교와 분리된다. 사람은 주권적 다스림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 자율적 권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나, 하나님 또는 우주에 대한 조작을 시도함으로써 권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주권적 다스림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착념(着念)에 기초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도 결정적으로, 그리고 인간은 종속적이며 점진적으로 이 법을 준수한다. 이처럼 윤리는 마술(*magic*)에 반대되는 자리에 있다.

넷째로, 언약에는 심판과 서약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언약의 사법적(司法的)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숙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판단을 내릴 능력을 갖게 된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시며, 사람은 그와 유사한 종류의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건들을 판단하되, 심중에는 하나님의 표준(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시던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각 날마다 “좋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셨으며 “말로 판단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최고의 임금이지만 최고의 재판자이시기도 하다. 구원의 신앙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흠없다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언으로써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義)를 ‘전가’시키신다. 하나님의 구원 선언 없이는, 다시 말해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을 초극(超克)하는 그리스도의 의(義)의 전가 없이는 구원이란 없다.

하나의 언약이 “체결될” 때 사람들은 그 언약에 부속된 축복과 저주를 상기한다. 그 언약에는 서약과 맹세가 있다. 그 언약에는 언약 의식(儀式)이 있으며, 가시적(可視的)인 증표와 인증(印證)이 있다. 우리는 이를 교회에서(세례, 성찬), 가정에서(결혼식), 정부에서(정부 관리들의 서약) 본다.

다섯째로, 언약에는 상속과 지속의 원칙이 있다.

언약에는 합법성과 상속의 측면이 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일을 주관하는 특정한 표준들이 있다. 바꾸어 말해서, 언약은 시간을 넘어서 세대를 지나서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끈이다. 언약은 시간에 대한 인간의 관점과 관련을 갖고 있다. 언약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죽은 이후의 땅의 장래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과거를 존중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그들은 언약의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그들은 언약의 고정된 윤

리적 조항들을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들은 위대한 역사적 신조들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조나 그밖의 것이 진보하는 것을 옹호하기도 한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은 언약의 확정된 윤리 조항 내에서의 변화를 믿는다.**

아담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기업을 박탈당했다. 이 백지화된 기업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요 1:12).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잠 13:22).

사단이 모방한 언약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마귀와의 사권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전 10 장).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神)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언약 하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이교(異敎) 사회나 기독교 사회의 사단적 이단 종파들에서는 그 지역의 귀신(또는 사단)과 그 종파의 신도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사단의 언약 구조를 검토해 보자.

- 첫째, 초월성과 내재성(임재)
- 둘째, 위계 질서와 권위(복종)
- 셋째, 반윤리성과 주술성(조작)
- 넷째, 심판과 서약(상벌)
- 다섯째, 상속과 지속(존속)

이 언약 구조가 하나님의 언약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첫째 / 초월성과 내재성(임재)

이 첫번째 사항은 거짓말이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기 이전보다는 비록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다. 사단은 결코 전능성과 전지성과 편재성을 소유하지 못했다. 사단은 제한된 목적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만을 소유하고 있다 (욥 1 장). 사단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갈보리 이래로 사단의 머리는 원칙적으로 짓밟혔다(창 3:15). 그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한 순간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도(聖徒)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성도”(saint)라는 말의 의미이다. 즉, 『성도』란 “성소에 나아가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사단의 추종자들에게는 이렇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신에게 직접 나아가는 관례가 없다. 왜냐하면 사단은 한 순간에 오로지 한 자리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 위계 질서와 권위(복종)

첫번째 사항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의 위계적인 체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부하 귀신들이 사단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아마도 그에게 종속된 인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은 어떤 명령 계통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도 역사 안에서 명령 계통을 이용하시기는 하지만 명령 계통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한과 지식과 권위를 행사하실 때에 사람이나 천사들을 의지하지 않으신다.

사단이 직면한 문제는 그가 명령 계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 명령 계통은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과 지식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해야 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흉내내기 위하여 심판의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피조물이지만 자기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필요로 한다. 이리하여 사단은 힘을 발휘하되, 일순간에 모든 곳에서 그 힘의 전부를 쏟지는 못하고 선택적

으로 힘을 쏟으며, 그것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몇 번 되지 않고 보통은 자기 추종자들을 통하여 먼 거리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가 가는 길에는 그의 행동을 제약하는 아무런 원칙도 없다.

따라서 사단의 왕국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왕국이다. 본질상 그 나라는 전제 왕국(專制王國)인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공통적인 것은 길거리의 정보원, 아파트의 정보원, 어린이 정보원까지 있는 정보 체계이다. 모든 시민들은 그 언행이 최근의 공산당 노선을 준봉하고 있는지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어야 한다. 왜 모두를 이렇게 통제하는가?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 수하의 어떤 자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반역자이듯 그의 부하들 역시 반역적이다. 그는 부하들의 마음 속에 있는 행동 동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사단은 총괄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모든 사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모든 사람을 노예 상태에 처하게 한다. 각 사람은 자기 상관의 말에 종속되어 있지만 그 자신은 거짓말 잘하는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좌우된다. 거짓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삶의 한 방식이 된다. 아마 이는 사단의 사회에 존재하는 반역의 주된 형태일 것이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한다.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밑에서 꼭대기까지 전체 체계가 속임수에 기초해 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왕국을 건설한다.

셋째 / 반윤리성과 주술성(조작)

사단은 다른 무엇보다도 권력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역시 그렇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시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어떤 피조물이든 모든 법을 부인하는 피조물은 아무런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명령 계통 없이 군

대를 통솔하거나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명령 계통은 어떤 종류의 법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후반에 스탈린은 붉은 군대(소련 공산군)의 고위 장교들을 숙청했었다. 이 숙청은 너무나도 군대를 취약하게 만들어, 1941년 후반에 히틀러의 군대는 이 소비에트군을 거의 패망에 이르게 했을 정도였다.

사단은 확고하지 않은 원리원칙들을 인정한다. 확고한 원칙들은 하나님을 지시해 주기 때문이다. 사단은 원초적인 진화론자이다. 그는 항상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권력을 추구한다. 모든 인본주의 체계들은 상대주의를 가르친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도덕 법칙도 없고 확고한 여타의 법들도 전혀 없다. 법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인본주의자들은 말한다.

법을 대신해서 사단이 제공하는 것은 주술(呪述)이다. 사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윤리적 법을 순종함으로써가 아니라 주술적 조작이나 정치적 압제에 의하여 권력을 획득하려고 한다. 그들은 공식(公式)이나 주문 또는 기타의 의식(儀式)들을 사용한다. 그들은 악마적 상징들을 채택하여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인다. 그들은 성경적 언약의 세번째 사형인 영구한 윤리를 배격한다.

넷째 / 심판과 서약(상벌)

성경은 교회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고전 6:3). 사단은 이에 분개하여 최후의 심판 전에 자기가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을 모방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신다. 사단은 이것까지 흉내내고자 한다.

사단의 정권에는 예외없이 고문의 관행이 있다. 그들은 수많은 형무소와 “재교육 센터”와 기타의 공포 기관들을 세운다. 사단은 지옥과 매우 유사한 것을 지상에 창조한다. 이는 단순히 자기의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겨룰 수는 없다. 그는 육체만을 죽일 뿐 영혼

을 죽이지 못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이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께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7,28).

다섯째 / 상속과 지속(존속)

사단은 자기의 왕국 건설을 원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해마다, 세대마다 자기 권력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항상 악의 나라의 수명을 단축시키신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5,6).

따라서 사단은 그 과정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사단은 도박사나 빚쟁이가 그렇듯이 엄청난 위험들을 감수해야 한다. 그는 복음이 착실하게 전파되면서 수백 년 동안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수년 내에 이루어야만 한다. 이렇게 줄속으로 이뤄진 사단의 나라들은 언제나 붕괴할 수밖에 없는 반면, 기독교 문화는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사단은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기간의 유산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좇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녀 대대를 위한 유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추종자들이 믿을 수 없는 먼 미래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 지향적”이 된다. 그러나 사단의 백성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큰 영향을 받을 경우에만 그렇게 될 수 있다.

핵심 내용 요약

「주권적 다스림」은 언약에 의하여 존립한다. 권력 역시 그렇다. 사단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설프게 모방한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실한 노고와 근검과 충성과 정직과 신용과 기도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난폭한 혁명과 도적질과 고문과 큰 모험을 통하여 이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르크스의 왕국과 매우 다르다. 공산주의자들은 가는 곳마다 권력의 언약을 부과한다. 그들은 역사의 진전 과정을 가속하려 함으로써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들은 신속하게 일한다. 왜냐하면 사단의 때는 짧기 때문이다(계 12:12). 그들은 영원 세계에서도 멸망할 운명이며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멸망할 운명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지닌 한계를 거스려 싸우기를 계속한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그들이 세계 정복 프로그램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성경의 용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 역시 성경이 정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사단은 도적이고 거짓말장이며 모방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가지고 일을 한다. 미래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경 종교는 언약 종교이다.
2. 성경의 언약은 자기에 대한 저주의 서약을 담고 있다.
3. 오직 세 가지 제도만이 그와 같은 서약을 부과할 권리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제도들은 가정(family government), 교회(church government), 정부(civil government)이다.
4. 성경의 언약은 다섯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다.
5. 초월성/내재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 세계 위에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세계와 더불어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6. 위계 질서/권위는 모든 인간 제도가 다 위계적이며 우리는 그 제도들을 하나님 아래 그리고 그분의 율법 아래 두어야 함을 말한다.
7. 법/주권적 다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적 요구들에 순종함으로써 주권적 다스림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8. 심판/서약은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주이시며 계속적인 심판주이심을 말한다.
9. 상속/지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상속자들, 아담의 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사들에게 정당한 기업을 전해 주실 것을 말한다.
10. 사단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방하고 있다.
11. 사단은 호월적(전능)하지도 않으며 내재적(편재)하지도 않다.
12. 이는 사단이 그의 위계 질서에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이 결핍을 메꾸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13. 사단은 지배의 도구로서 윤리가 아니라 주술이나 권력을 사용한다.
14. 공산주의자들과 독재자들은 교문과 태러를 사회 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최종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모방하고자 한다.
15. 하나님은 사단의 지상 나라들의 유산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사단의 나라의 수명을 단축시키신다.
16. 주권적 다스림은 언약에 의하여 존재한다.
17. 권력 또한 언약에 의하여 존재한다.
18. 문제는 “누구의 언약이냐?”이다.

개인의 해방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 : 34-36).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새로운 지배자인 사단 아래 뒹뚱으로써 아들된 자격을 상실했다. 두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이 상실된 아들 자격을 자기 백성들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땅에 오셨다.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사람들을 자신의 윤리적이며 중생한 가족의 일부로 양자(養子) 삼으신다(요 1 : 12). 그들은 더 이상 “상속권이 없는 아들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아버지되심과 사람의 보편적인 형제됨이 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인간은 모두 가인

과 아벨 같은 형제들이다. 그들은 시기로 가득차 있고 서로 미워하는 형제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 피조되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흠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행 17:26-28).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되심의 보편성과 인간의 형제됨의 보편성에 관하여 치명적인 결론들을 도출해 낸다. 그러한 식의 형제 관계는 “저주받을 형제 관계”이다. 각 사람이 이러한 형제됨에서 탈출하는 것이 윤리적인 명령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제공하는 아들의 자격은 양자됨으로써 얻게 된 자격이지 피조된 자격이 아니다.

● 내적인 해방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바 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바 된 자 사이에 “접촉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접촉점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바 된 자가 어떻게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둘 사이에는 이와 같은 접촉점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진리를 억누른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롬 1:18).

이것은 “의지적인 무지”(active ignorance)이다. 거둬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피조계의 증거와 그들 존재 자체의 증거를 억누른다.

“십자가의 도(道)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육(肉)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靈的)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主)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4-16).

그렇다면 중생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놓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이다. 이것이 그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義)는 그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에게 전가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 외적인 해방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 내시기를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앉아 있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개인의 해방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외적인 해방이다. 구속(救贖) 받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로써 자신들의 주변 세계를 변혁시키기 시작해야 한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5-20).

거짓 해방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며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들이 폭력 혁명, 재교육, 상명하달식의 국가 계획, 군비 확장, 사유 재산의 폐지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주입되는 곳마다 생활 수준은 낮아지고 난민(難民)들은 극빈 상태로 국경을 건너 도망해 오며 국경을 따라서는 철조망과 담장이 설치된다. 혁명의 지도자들은 낙원의 국경 안에 머물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해야만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는 독과(毒果)의 고전적인 예(例)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주의 해방신학자들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의 전형적인 예(例)일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악하기 때문에 그 열매도 악하다. “악하다”는 말 이외로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마르크스주의는 해방의 이름으로 인간과 사회를 파괴한다. 마르크스주의는 허위의 희망들을 제시하며 그 다음에는 그 말에 귀기울이

는 자들을 강타한다. 마르크스주의 혁명으로 알려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예전의 “동지들”을 투옥하고 처형시킨다. “혁명은 혁명의 아들들을 잡아먹는다”(그러나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다).

이것은 태초부터 인간의 문학의 주제였다. 희랍 신화에서 크로노스(Chronos)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신(神)이다. 그 중 한 자식(제우스)이 탈출하여 뒤에 크로노스를 죽인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으로서, 로마 신화에서는 혁명의 신인 사투른(Saturn)으로 불리운다. 사투른(새턴)은 혼란의 축제인 「사투르날리아」(Saturnalia)의 신이었다[영어에서는 아직도 한 주의 일곱번째 날을 「새터데이」(Saturday)라고 부르고 있다].

모든 거짓 종교가 지니는 오류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절대 목표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아담 안에서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인류를 다시 건져내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

● 환경 결정론

이와 관련된 오류 한 가지는 「환경 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들의 적에 대하여 환경을 탓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금단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였는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대면하셨다. 그때 그 여인은 뭐라고 말했는가?

“뱀이 나를 피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13 절).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했소. 그것은 진정 당신의 잘못이오. 우리에게 형편없는 환경을 준 것은 바로 당신이오. 당신은

그 환경이 ‘좋다’(good)고 계속 말했지만 그것은 좋지 않았소.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용하였소”라는 말이다.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탓하였던 것이다.

물론 사단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저주받았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형벌을 받았다. 대지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은 환경 결정론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지은 자를 탓하신다(롬 9:14-23).

아마도 마르크스주의는 인류 역사상 환경 결정론으로 가장 성공한 종교일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역사의 핵심적인 비인격적 세력이 있을 때에만 사회의 긍정적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선행 의도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역사적 세력(historical forces)만이 중요하다. 마르크스는 1859년[다윈의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이 나온 해]에 나온 그의 책, 『정치경제학 비판에 붙임』(*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의 그 유명한 서문에서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이 서문은 매우 장황하고 극히 이론적인 글이다. 그러나 전세계는 이 글에 의하여 뒤집혀졌다).

내가 도달하여 일단 획득한 후 내 연구의 실마리 역할을 한 일반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공식화할 수 있다.

인간은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그 생산에 필수불가결하며 그들의 뜻으로부터 독립된 일정한 관계들에 돌입하는데, 이 관계는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달 단계에 상응하는 관계이다. 이들 생산 관계의 총합은 그 사회의 경제 구조의 현실적인 토대를 구성하며 이 토대 위에서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가 생겨나고 그에 걸맞은 일정한 사회 의식의 형태들이 나타난다. 물질 생활의 생산 양식은 사회, 정치, 지적 생활 과정 일반을 조건짓는다.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결정짓는다. 인간의 발달의 어

면 단계에서는 사회의 물질 생산력이 기존의 생산 관계 또는(또는 같은 것에 대한 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생산력의 작용 무대가 되어 왔던 소유 관계와 갈등을 일으킨다. 이들 관계들은 그 생산력의 여러 발달 형태로 인해 인간을 속박하는 족쇄가 된다. 그리하여 사회 혁명의 신기원(新紀元)이 시작된다...

어떠한 사회건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는 생산력이 있는 한 그 사회의 질서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좀더 차원높은 새로운 생산 관계들은 구(舊)사회 자체의 태(胎) 내에서 그 관계들이 존재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이 성숙한 이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인류는 항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업만을 설정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정밀히 살펴보면, 과업 자체는 그것의 해결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적어도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항상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질적 생산력은 한 사회의 종교적, 지적, 문화적 “상부 구조”를 창조하며 그때 경제적 “하부 구조”상의 변화들은 기존의 상부 구조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사회 혁명을 낳아 노예 제도는 봉건주의로, 봉건주의는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게는 안됐지만, 공산 혁명은 마르크스의 이론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게 아니라 거의 언제나 봉건적인 농경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공산 혁명은 패전 직후가 아닌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들 혁명은 곧 타도된다. 그러나 필자는 마르크스 이론이 실패한 많은 예(例)들을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다. 그 작업은 다른 책에서 하였다.¹ 이 책은 해방신학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은 인간의 본성이 “혁명의 결과로서” 변화

1. 게리 노스, 『마르크스의 혁명 종교: 창조적 파괴론』(Marx's Religion of Revolution: The Doctrine of Creative Destruction, Nutley, New Jersey: Craig Press, 1968).

된다고 가르친다. 인간 본성의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주의의 정수(精髓)이다. 이것은 반역 직후 야담의 입에서 나온 환경 결정론에 다름아니다. 사단주의자들은 사회적 조작과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혁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간성의 창조는 성경을 흉내낸 종교적 충동이다. 성경은 「윤리적 화해」(ethical reconciliation)를 가르친다. 즉,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성(신성이 아니다)을 개별 죄인들에게 전가시키심으로써 새로운 인간성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 전도, 곧 화해의 효력이 파급되는 결과를 낳는 내부에서 외부로의 윤리적 혁신으로 이어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使臣)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17-20).

● 밖에서 안으로

인격의 거듭남, 자발적 정신, 전도의 효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신(使臣)으로서 세상에 봉사한다는 바울의 비전을,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인 호세 미란다가 권면하고 있는 인류의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개조(改造)와 비교해 보라.

우리의 혁명은 새로운 인간 존재의 창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이 새로운 인간 존재의 형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그 필수불가결한 수단

이란 새로운 사회 구조이다. 참 교육 또는 그릇된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실이나 종교 사원의 권고들보다는 기존의 사회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은가? 사람이 돈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있는데(산상수훈의 핵심 개념), 만약 기존의 사회가 불행이나 죽음의 고통 아래서 그와는 반대의 것을 주입시킨다면 그와 같은 개념에서 과연 얼마나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사회 체제의 독단적인 명령들에 영웅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하찮은 소수뿐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염려한다. 기독교는 소수를 구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회 구조가 멸절의 공포를 조성해 놓고 다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몰두함이 없이 자기 나름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쓸데없는 자들을 떨쳐버리는 과업을 수행하게 만들 때, 사회의 그 다수는 형제애와 이웃과의 유대에 대한 기독교의 멧세지에 현실성을 부여할 수조차 없다. 구조 변혁은 인격 변화를 위한 일개 수단에 불과하겠지만, 구조 변혁에 제일의 우선권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자랑스럽게 인격의 변화를 운위(云謂)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현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시피, 구조 변혁은 필수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²

이 공산주의 예언자의 지적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멧세지와 사역이 로마 제국을 변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몇 명 되지도 않던 그 제자들이 지중해 세계를 포괄적으로 “구조 변혁”시킬 어떠한 수단이라도 갖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진리와 성령의 능력주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전부였다.

미란다가 허심탄회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소수의 독실한 그리스도인 집단들에게 필요한 것은 쿠바(Cuba)의 경우에서처럼

2. 미란다, 『성경의 공산주의』, p.6.

럼 소련의 무기 지원을 받은 정예 혁명분자라는 것이다. 사실, 그래서 미란다는 세 장(章)으로 구성된 그의 저서 제 3 장을 “나사렛 예수와 정치와 폭력”이라는 주제를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며 상명하달식의 강제력에 의해 부과되는 대규모의 중앙 계획 체제를 낳게 된다. 이것은 권력의 피라미드이다. “인간이 인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이 말은 “극소수의 인간”이 다른 인간 모두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아래에서의 자기 관리(통치)

“정부”(government)라 할 때 우리는 보통 국가적 정부(civil government)를 의미하는 국가를 떠올린다. 그러나 국가 정부가 결코 “정부”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가정 단위의 정부도 있고 교회 단위의 정부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정부」(self-government)이다.

자녀를 기르는 것을 예로 들어 볼 때, 특히 그 가정이 대가족일 경우,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에 알맞게 성숙하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각각의 아이들에게 마치 세 살짜리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신경을 써주고 가까이서 돌봐 주어야 한다면 부모는 거기 매달리느라 아무런 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부모들의 희망은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지혜로워지는 것, 즉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게’(self-disciplined) 되는 것이다.

정신병원을 제외하고는 이 말이 모든 기관에 다 해당되는 말이다. 군대든 경찰이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만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일’(self-government)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붕괴되고 만다. 즉, 어떤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으며, 또 맡긴 일은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느라 시간과 자원들을 소비할 수

는 없다는 뜻이다. 것처럼 자원이 남아돌아가는 기관은 없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일 경우 ‘좋은 성적을 내라’, 사업체일 경우 ‘이윤을 내라’, 그 외 ‘수확을 늘려라’, ‘네 방을 깨끗이 하라’는 등의 일반 원칙만을 지시한 후 얼마 동안은 사람들의 실적을 감시한다. 이런 체제에서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 강조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 하는 관료주의 체제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의 위계 질서는 “밑에서 위로의” 체제, 다시 말해 청원을 할 수 있는 체제 (appeals court) 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자제를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모든 사람의 생활을 판단하시지만, 우리 편에 서 계시면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은 삶의 특정한 목표들을 이루려 함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질서 아래서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부」(government)가 일종의 청원(상고) 법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빠, 저 애가 내 공을 뺏아갔어!”, “저 애가 나를 때렸어요!”, “오빠가 자기 숙제 도와 주면 내가 부엌 청소하는 걸 도와 준댔어요!” 등등이다. 이때 부모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한다. 경찰이나 판사, 목사들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 기본 모델은 출애굽기 18 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의인 몇 명을 판사로 임명하여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힘든 송사(訟事)들만 명령 계통을 따라 상고(上告)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권하였다.

사단의 위계 질서는 이와 다르다. 사단의 위계 질서 역시 하나의 명령 계통이며, 역시 피라미드형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명하달식」의 구조이며, 청원 법정 체계라기보다는 관료주의 체제이

다. 사단은 방법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할 것이다. 하나님과 달리 사단은 아무도 신임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신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단의 모든 행정 체계에서 우리는 자기 다스림을 다중(多衆) 관료 정치로 대체시키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사단에게는 영속적인 법 질서가 없다. 사단은 계속해서 법칙을 변화시킨다(이런 의미에서 역사 변화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은 전적으로 사단적이다. 그 설명에 의하면, 모든 법칙들은 역사의 시기와 생산 양식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자를 감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자신의 행실이나 상관으로부터의 상벌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확정된 표준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단의 나라에서는 위계 질서가 가장 중요시된다. 이는 사단이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기를 다스리는 일은 극히 사소하게 취급된다. 자기를 다스릴 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단에게는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의 악한 목표들을 성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측면, 즉 하나님의 언약 질서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도 사단은 자신의 욕망과 표준에 완전히 일치되게 행동할 수가 없다.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조차도 사단은 하나님의 체계의 큰 토막을 훔쳐내야 한다. 그 역시 하나의 피조물이고,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의 자기 다스림”을 즉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신학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시적(巨視的)인 주권적 다스림의 토대이다.

●●●●●●●● 핵심 내용 요약 ●●●●●●●●

여기서 우리는 세계관 사이의 갈등을 본다. 성경이 가르치는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권력 종교와 화합할 수 없다. 두 종교 공히 인격상의, 그리고 제도상의 중생(重生)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종교 공히 지상에서의 좀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두 종교 공히 인간의 노력들이 심판날에만 아니라 현 역사 내에서도 그 공력(功力)이 계산될 것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도피 종교는 주권적 다스림주의자(dominionists)나 권력 추구자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두 체계 사이에는 다른 점도 많다. 윤리적 변혁의 과정에 있어서 주권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인격 변화의 수단은 무엇인가? “인격적, 개인적” 구원을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가, 아니면 엘리트주의자나 상명하달식 혁명적 투사의 강제력인가? 그 혁명은 안에서 밖으로의 과정인가, 아니면 밖에서 안으로의 과정인가?

두 집단 공히 기존의 사회 제도들을 바꾸기를 원한다.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는 주권적 다스림을 수단으로 한 건실(堅實)한 변혁을 전파하며, 권력 종교는 혁명 등의 급격한 변화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짧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몇 세대마다 자기 왕국의 성장을 중단시키고 그 왕국들의 부(富)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상속하는 것이다.

문제는 놀랍게도 두 집단이 시간에 대한 전망(time perspective)을 서로 교환할 때 일어난다. 금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사 눈감박할 사이에 그분의 왕국을 완전히 세우시기를 기다려왔다. 반면에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혁명에 유리한 조건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세대에 걸쳐 열심히 일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미시적(微視的)인 안목을 갖게 되었고, 반면에 공산주의자들은

근시안적으로 사고하고 피안(彼岸)을 생각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로 살아왔다.

만약 현재 가능하게 보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 수를 더해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본래의 유산, 즉 미래 지향성, 근면, 장기적인 계획, 자기 훈련(규제) 등의 관행으로 수년 내에 복귀한다면, 마르크스주의와 인간을 드높이는 그 외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가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인간의 제도상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기독교는 사회 변화에 있어 “안에서 밖으로”의 이론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문화적 축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에 의한 중생(重生)으로부터 온다.
2. 이것은 아담의 타락한 가족에서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족으로 양자됨을 의미한다.
3. 하나님의 아버지되심과 인간의 보편적 형제 관계는 최후의 심판, 곧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4. 해방은 인간의 내부(중생)에서 시작한다.
5.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연계와 본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6. 사람은 믿음으로 복음에 대답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중생하여야 한다.
7. 회개한 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점점 더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다.
8. 해방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인간의 제도로 퍼져나간다.
9. 마르크스주의는 환경 결정론을 전파한다.
10.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류가 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

- 들의 사회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11.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목표는 새로운 인간성의 창조이다.
 12.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새로운 인간성의 창조가 혁명, 전제(專制), 사회 조작, 재교육(사상 고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13. 그들에게 있어 국가는 중앙 계획과 강제의 대행(代行)기관이다.
 14. “다스림”(government)의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 밑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일의 실재에 근거해 있다.
 15. 기독교 신앙에서 성숙이란 자기 다스림의 역량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16. 성숙이란 개인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7. 성경적 위계 질서는 본질적으로 상고제(청원제) 법정이다.
 18. 사단의 왕국에서의 위계 질서는 “위에서 밑으로”의 관료제이다.
 19. 이 두 경쟁적 세계관은 결코 화합될 수 없다.

가정의 해방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 : 12).

가정은 언약적 제도이다. 하나님 아래서의 혼인 서약은 자기 저주의 맹세를 포함하고 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되, 만일 간음했을 경우에는 죽음으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레 20:10) 서약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식의 혼인 예식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라고 말한다.

가정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구조와 같은 선상에서 구축된다. 그 언약은 초월성과 내재성과 더불어 시작한다. 하나님의 초월과 임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적 대리인인 아버지라는 대의적(代議的) 지위에서 드러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主)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엡 5:22-24).

가정에는 일종의 위계 질서가 있다.

남편은 아내 위에 있으며 부모는 자녀들 위에 있다(엡 6:1-3).

가정에는 법도가 있다.

하나님 아래서 부모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신 6:6,7).

가정에는 심판이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처벌, 심지어 체벌(體罰)까지도 가할 책임이 있다.

가정에는 유업이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믿을 만한 청지기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부모들의 노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경건한 가정의 자산은 후대(後代)로 이어내려가면서 증식(增殖)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제 4장에서 간략하게 진술된 일반 언약은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사단이 모방한 허위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 가견적(可見的) 인간 권력의 최고 형태인 국가가 위의 다섯 영역 모두에서 가정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자녀들로부터 그 부모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자녀들을 새로운 신(神), 즉 공산주의의 하수인으로 삼고 있다.

국가는 가정들 위에 하나의 위계 질서를 부과한다. 즉, 한 가정의 아버지는 국가에게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기 법을 세우고 의무 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국가는 자녀들에게 벌을 내릴 권한을 부모로부터 빼앗아 국가의 특정 대행 기관에 넘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가정의 유산들을 세금으로 빼앗아간다. 국가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자산을 수탈해 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

도인들이 후대에까지 주권적 다스림을 행할 자산의 축적 기반을 쌓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가정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대한 현대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해묵은 전쟁을 볼 수 있다[레이 서튼의 책, 『누가 가정을 소유하는가? 하나님인가, 국가인가?』(Who Owns the Family? God or the State?) 참조].

장수(長壽)

제 5 계명은 하나의 약속이 딸린 최초의 계명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엡 6:3). “네가 잘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장수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민족(국가)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은 집단을 상대로 한 약속이지, 개인에게 준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각각의 자녀들이 모두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도 않으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각각의 자녀가 모두 어려서 죽을 것이라고 확인하시지도 않는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자기 부모의 뜻에 거역하였지만(창 26:34,35), 180 세에 죽은 이삭을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지냈다는 것(창 35:29)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는 최소한 120 세까지는 살았다. 이 두 사람은 이삭이 60 세 되던 해에 태어났기 때문이다(창 25:26). 요셉은 이 당시에 생존해 있었고, 성경은 요셉을 야곱이 노년기에 얻은 자식으로 말하고 있다(창 37:3). 에서는 불순종하는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늙도록까지 살았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경외했을 법한데, 난폭한 자기 형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런데 그 형은 도리어 살아남아 이교(異敎) 문명을 건설하였다(창 4 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장수(長壽)한다는 특징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수명이 비교적 길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사회는 부모에게 반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권과 비교해 볼 때 생명 보험료도 낮게 낼 것이다. 바꿔 말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회에서 어떤 연도(年度)를 기준으로 일정 연령 계층의 사망 위험도를 통계상으로 조사해 보면, 그 위험 도수가 다른 사회에 비해 비교적 낮을 것이라는 말이다. 조사 대상인 그 연령 계층에도 죽는 사람들은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를 존경치 않는 문화권에서 그 나이에 죽는 사람들의 수만큼은 많지 않을 것이다.

● 장수와 주권적 다스림

그 약속은 의미심장하다. 그 약속은 장수를 제시하고 있다. 한 계명에 연관되어 있는 최초의 약속이 장수인 것이다. 이것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소원을 암시해 준다. 사람은 생존의 요구를 가진다. 비록 죄의 영향에 의해서 손상되고 왜곡되기는 하였지만 그 소원은 보편적인 소원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죽음을 사랑한다(잠 8:3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 사회, 특히 이교(異敎) 문명들에서 왕에게 존경을 표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은 “왕이여 만세수(萬歲壽)를 하옵소서”(단 2:4/5:10/6:21)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번째 계명에 이 특별한 복을 덧붙여 주시면서, 이 조항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을 확신하셨을 것이다. 생명은 신실한 자를 위한 복이며, 생명은 불충한 자들까지도 소원하는 복이다. 생명은 금욕적으로 “인생을 통과”하는 견실한 “순례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인내로 견뎌내야 할 짐이 아니다. 인생이란 흘러보내 버리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복」(positive blessing)인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창대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온 시대를 통하여 후사들이 많게 될 것을 의미한다(창 17:4-6). 우리는 대가족이 하나의 복이라는 것을 안다(시 127:3-5). 또한 경건한 자들에게 약속된 복 중에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려

노력하는 민족에게는 낙태하는 자가 줄어들게 되리라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출 23:26). 성경이 전망하는 인구 통계가 함축하는 의미는 명백하다. 인구는 팽창되고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경건함(godliness)이 출생율과 생존율을 동시에 증가시킬 때, 그 경건한 사회는 인구 팽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간단하다. 비록 20세기 후반의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은 이를 믿지 않으려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의 하나는 인구 팽창이라는 것이다.**

인구의 증가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보증은 아니다. 불경건한 사회에도 일시적으로 인구 팽창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법이 보장하고 있는 복을 받을 만한 윤리적 토대와 별도로 그 사회가 하나님의 법의 복(예를 들어, 서구의 의료 기술)을 받는 수혜자가 될 때 그렇다. 그렇긴 하지만 수 세대에 걸친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외적 표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 복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법이 외적으로, 민사법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없다.

장수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생물학적으로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주시는 “보증금”(down payment : 이것은 우리나라의 보증금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가령 집의 가격이 육천만 원이라 할 때 이천만 원만 내면 집을 소유하게 되고 사천만 원은 살아가면서 갚는 경우에서 처음 이천만 원을 「다운 페이먼트」라 한다. 즉, 일부만 내고도 전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역자 주)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적해 준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정복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좀더 오랜 시간 수고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산(資産)이기도 하다. **장수는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에는 땅을 채우는 일도 포함

되므로, 장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언약의 항목들이 성취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구 팽창에 있어서 장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높은 출생율이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의 조목들이 성취됨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지적하셨다. 부모는 자녀라는 복(높은 출생율)을 받으며,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장수를 확보한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은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대가족을 이루는 능력을 포함하여 장수의 복을 얻는다는 것이다. 한 문화권 내의 사람들이 가정의 책무를 어떻게 정의(定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을 지상적으로 성취하는 그들의 능력이 결정된다. 이 제 5 계명을 확고히 준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회도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의 조항들을 성취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본, 특히 인구 폭발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 자원을 받아서 누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부모의 주권

부모는 자녀들의 삶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그 자녀들에게 대해 제한적인, 그러나 전적으로 합법적인 위임된 주권을 소유한다. 자녀들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성숙을 나타내는 한 가지 표시는 자기 가정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기꺼운 의지로 나타난다(창 2:24).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되어감에 따라 책임도 서서히 이전된다. 따라서 노년의 부모들은 경제적 책임과 기타 책임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그 자녀들은 부모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부모들을 돌본다. 생산력이 최절정기에 달한 사람은 부모와 자식을 돌볼 이중(二重)의 재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나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힘이 최대에 달할 때 책임의 양 또한 최대에 달한다. 책임이 이렇게 이전되는 것은 필멸성(必滅性)이라는 인간의 운명에 주어진 명령이다. 성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적절히 이전시켜야 할 것

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요구는 「언약 가정의 계속성」을 유지시켜 주며, 따라서 「책임의 지속성」도 보존시켜 준다. 철저히 핵가족화 된 가정 단위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가정 단위가 존재한다면, 그런 가정을 만들어낸 문화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상호 책무」는 가정 단위들을 하나로 묶어 준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위하여 부(富)를 쌓을 책무가 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후 12:14).

부모는 자녀들이 받을 유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 두 배의 몫

각 자녀는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개인적인 부도덕성 때문에 상속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한, 상속 재산의 일부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다. 장남에게는 재산의 두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신 21:15-17). 왜 장남은 두 배의 몫을 상속받는가? 합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장남은 부모님을 돌볼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남이 토지의 전부를 상속받게 하고 있는 영국의 장자 상속 제도는 명백히 비성경적이었다. 그리고 19 세기에 이 제도가 무너진 것은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제도는 장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자산을 빼앗긴 다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담감도 갖지 않게 만들었다. 그 제도는 언약 가정의 상호 의무로부터 자녀들 대부분을 소외시킨다.

경제적 책무는 두 방향 모두로 흘러나간다. 먼저는 부모 쪽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후일에는 자녀 쪽에서 부모를 향하여 흐른다. 그리고 부모가 사망하고 그 가정의 자산이 생존자들에게 상속되었을 때는 다시 자식들을 향하여 흘러나간다. 간단히 말해서 부모들도 선대(先代)로부터 상속을 받아 그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자본의 계속성

성경의 법 질서에는 통일성이 있다. 축복과 책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성경의 법 전체에 포괄적으로 천착하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5 계명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본다. 한 이들이 부모님들의 살아 생전 내내 그분들께 효도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는 이 계명의 요구를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재산을 낭비한다. 그리하여 노년을 위한 기본 자산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는다. 재산은 다 없어져 버렸고, 자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가정 내에서 세대간의 불화가 그를 위협한다. 아버지가 가정의 재산을 낭비함으로써 자기들을 버렸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에 이르러 그를 가난 가운데 버려둔다. 이리하여 장수의 복이 그에게는 저주가 된다. 그는 극한 가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자본이 본질상 가정에 속하는 것이라면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거지에서 부자로 다시 거지로” 될 「법적 가능성」이 자유 사회의 보존에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으로 경건한 사회 질서에서는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3 세대를 거치는 동안 한 가정이 거지에서 부자로 다시 거지로 진행되는 것이 전형적인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간신히 빈곤을 벗어났으나 후에는 자녀들이 자기 재산을 축내지 않는지 감시나 하면서 손자들은 형편없이 가난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의 예는 기독교 사회 질서에서 규범도 될 수 없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경건한 사람은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보화를 쌓지 않는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잠 13:22). 장기적으로 볼 때 부(富)는 성경적 법의 전지에서 주권적 다스림을 행하는 섭리적이며 생산적인 시민들에게 흘러간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다시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의 이 이중 책무는 수 세대에 걸친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성경적 경향의 중요 측면이다.

아버지들은 가정의 자본 기반을 확충시키려는 경제적 동기를 갖는다. 또한 그들은 그 가정의 자산을 흩어버리지 않도록 자식들을 양육시키려는 동기도 갖는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의 「자본의 계속성」은 유산과 효도라는 법칙에 의해 진작된다. 이러한 자본의 보존은 장기간 경제 발전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다.

계속해서 가정의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건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성경의 윤리적 표준을 따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가정 자본의 장기적 확충을 위한 성경적 기반은 상당히 윤리적이다. 즉, 그 기반은 「성품」(character)과 「적성」(competence)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러나 장기간의 가정 자본 성장을 위한 이 윤리적 토대는 반(反)성경적 문화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 그들은 그 기독교 문화의 뿌리도 없이 열매만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흔히 생산 과정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기꺼이 기여하는 생산적인 가정들을 희생시키면서 기존의 가정 자산들을 보존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마땅히 윤리와 교육의 산물이어야 하는 현상(이들테면 수 세대에 걸쳐 가정 자본이 확대되는 현상 등)이 국가 권력의 사용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윤리를 이렇게 권력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사단 종교들의 특징이다. 이때의 권력은 성경적 윤리 (“옳음은 반드시 힘을 낳는다”)의 산물로서의 권력이 아니라, 성경적 윤리의 대체물 (“힘이 옳음을 낳는다”)로서의 권력을 말한다.

복합적인 경제 성장

자본의 계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복합적인 이해(利害)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예(例)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지만, 이 복합 이해 현상이 어느 한 가정에서만이라도 중단없이 영구히 지속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수 백년 동안 한꺼번에 1 퍼센트 이상의 성장율이 계속되리라고도 기대할 수 없다. 필자가 지

적하자면, 만약 인구 성장율이 매년 1 퍼센트라고 한다면 1980 년에 4 십억이었던 지상의 인구는 천년 만에 83 조(兆)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극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복합 성장 현상이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연례 성장 비율이 점점 더 낮아져야 한다.

우리가 일정한 단위의 금전을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금전을 「달란트」라고 불러 보자. 한 젊은 기혼(既婚) 남자가 일백 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하여 매년 2 퍼센트씩 이 자본을 신장시킨다고 해 보자. 50 년이 지나면, 그 부부는 269 달란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가정과 그 자녀의 가정들이 평생 계속해서 매년 평균 1 퍼센트씩을 신장시킬 경우, 250 년이 지난 후까지도 가족 수의 증가 비율과 자본의 성장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가문 전체의 총자본은 14,126 달란트를 상회하게 된다. 이를 24 명의 상속자들에게 분배할 때 각 가정은 589 달란트를 갖게 된다. 이것은 이 가정의 기본 자산 단위의 거의 여섯 배가 된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24 개 가정의 상속자들이 자본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결혼했다손 치더라도, 최초의 가정에서 지니고 출발한 부(富)의 거의 여섯 배를 각각의 가정이 소유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기초 자본이 3 퍼센트씩 증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50 년이 지나면, 처음의 부부는 거의 4 배 이상이 되는 438 달란트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정말 주목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50 년이 지난 후에 그 가문은 처음의 거의 1,600 배나 되는 161,922 달란트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24 가정으로 나눈다 할지라도 각 가정의 기초 자본은 6,747 달란트, 그러니까 거의 68 배나 신장한 것이 된다.

이 수치가 함축하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아브라함처럼)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

를 자기의 후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제시하는 종류의 비전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삼 세대 후의 후손들은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인간이 언약에 충실하고 근면하며 검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일평생 계속해서 그의 부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다.

또한 언약 사회에서 언약의 각 조항들이 성실히 유지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부를 크게 증대시켜 주신다. 언약 공동체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자본 통제력을 증대시켜, 그 성장 지수가 천문학적이 될 때까지 거대한 양의 자본을 축적한다. 그러므로 복합적인 성장은 땅의 정복이라는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저주받은 시간이 종식되었음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나는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를 엄청나게 축적하는 언약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언약 사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적절할 듯 싶다. 만약 한 가정(가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때는 그 사회에 속한 가정 전부가 250 년 안에 각각 6,747 달란트를 모으기 때문에 수십 억 장의 “달란트 지폐”를 찍어야 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나는 달란트라 칭하는 물질적인 종이장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치’있는 재화(材貨)와 용역(用役)에 대한 것이다. 만약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기본 자본을 증식시키기 시작한다면 가족당 100 달란트는 증식될 수 없을 것이다. 매년 3 퍼센트의 생산 증가에 대응하여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돈의 공급은 일정한데, 전체 사회가 해마다 3 퍼센트씩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면 물가는 제로(zero) 상태 가까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주받은 세계에서는 물가가 결코 제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는 언제나 경제적 결핍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창 3:17-19). 실제로 결핍이란 가격이 제로가 될 때 총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큰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구적인 복합적 경제 성장이란 가정은 옳지 않다. 전체적으로 따져보아, 성장 과정이 중단되거나 시간의 끝이 오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그것이 바로 요점이다. 시간에는 끝이 있다.

지상의 현 역사 내에서 주권적 다스림에의 비전(vision)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생애 저편의 날들까지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정 기본 자산을 자기 생애 동안 형성하겠다는 식의 바램을 가질 수 없다(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극소수 가정의 주권적 다스림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단위에 의한 다스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이삼 백 년 뒤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 일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과업이 된다.

어떤 사람의 시간에 대한 전망이 자기의 한 평생에만 국한된다면, 그 사람은 가정의 주권적 다스림 사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든지 해야 한다. 그 사람은 “별이가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 사람은 자본 확장을 위하여 아직 경험도 없고 위험 부담도 높은 일, 그러나 일단 성공한다면 일확천금할 수 있는 모험에 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막대한 액수의 빌린 돈까지 모두 걸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평범한 일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 투자가가 평범한 모험만 한다면 평범한 수입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는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의 끊임없는 연속이 된다.

신탁 통치 : 어떤 가정을?

자본의 연속성은 「가족화된 국가」(the familistic state)의 발흥(發興)에 의하여 명백히 위협받고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을 모태(母胎)에서부터 무덤까지 관리하는 관리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뒷받침받을 자격이 있다. 아버지같이, 또는 고아가 된 조카의 재산을 맡아주는 삼촌과 같이 국가

는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그와 같은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으로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취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가족화된 국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지에 대하여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세무원의 눈을 피해 자기들의 재산을 숨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부(富)를 자기들의 상속자에게 무사히 넘겨줄 방법을 모색하며, 국가는 재산 도피를 차단시킬 방법을 집요하게 강구하고 있다. 새로운 “부모”인 국가를 그 가족 모두가 전혀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일단 자본이 모아지면 그 자본은 부패와 방만한 경영과 관료들의 봉급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강제적인 자선 행사들의 물결을 통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감추고자 한다. 그들은 국가라는 ‘가짜 가정’(pseudo-family)이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하여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인식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그들의 그런 시샘은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은 아직 없다. 그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들은 투표함이라는 수단에 의해 “부자들에게 증과세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지수가 모든 사람을 다 고액 납세자층으로 몰아넣자 그들은 그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울무에 사로잡혔고, 되돌아갈 길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십 세기 민주 정치가 “부자에 대해 증과세”한 것이 부도덕하고 비효율적인 일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메시아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현대 국가는 자녀들의 영구한 후견인이 되고자 한다. 이것이 오늘날 국가 존립을 정당화시키는 일차적인 이유이다. 즉, 국가는 2 세대의 유익을 위해 유산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위정자에 의한 강제적 부의 재분배에 점점 더 의존해가는 “영구한 노예”이다. 그들은 점점 더 커가는 의존자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관료들은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사실, 즉 부모는 날이 갈수록 힘이 약해지므로 노후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면 자녀들에게 독립을 고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을 영원한 자식으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권력 소멸을 보증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투표 제도를 관행화시켰을 경우, 국민들이 언제까지 “신탁 국가”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일종의 관리자(trustee)이다. 인간은 가정에 대한 법들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리고 거둬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의 신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심결에 그렇게 한다. 외적인 축복들은 하나님의 법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노후에 우리의 2 세대도 노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든다. 그렇게 됨으로써 노후 생활이 안고 있는 위험들은 최소화된다. 가정의 부(富)의 구조는 ‘호혜적’(互惠的)이며 ‘인격적’이다. 이 구조는 계시된 법에 의하여, 그리고 가정의 전통에 의하여 유지된다. 이 구조는 동기간(同氣間)의 사랑이라는 훨씬 취약한 정서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그런 정서적 요소는 일본주의 종교의 중요한 양상이다). 가정 내에서의 부의 성장은 노년의 연약함과 병들기 쉬운 약점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각 세대의 능력을 증대시킨다.

● 유평자로서의 국가

국가라는 허위의 가정은 그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주권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 국가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립 학교 제도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자녀들은 분명 가정 자본의 한 형태이다. 자녀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는 부모들에게는 대가가 들어야 하는 일이다. 반면에 부모들은 자녀가 장차 소유할 자산의 일부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이 관계에는 양 세대의 상호 희생과 상호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돈주고 살 필요가 없듯이, 양편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사랑을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 각각의 세대는 서로 주고 또 받는다. 그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며 경제적 관계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사이에 현대 국가가 개입한다. 국가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국가는 자녀들이 성장한 후 그들에게 빚을 받을 권리(세금)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가피하게 국가는 그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그들의 사랑(투표에서의 찬성표)을 사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자녀들은 어버이된 국가에 계속 예속되어 있으면서, 자기 나름의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기를 꺼려하고 또 국가의 복지 관청과 재정적, 감정적 유대를 끊음으로써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루려고도 하지 않는다. 언약 가정은 가정의 자원인 자녀들을 이렇게 현대 국가에 의해 도적질당하고 있다. 국가는 노후 대책을 약속한다. 또한 국가는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한다. 국가는 젊은이 교육을 위한 국가 재정과 공인된 교육을 제공한다. 국가는 이렇게 가정이 주는 혜택을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인들에게 생산 능력이 있는 시기 동안 국가에 똑같은 종류의 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관계는 비인격적이며 경제적이다. 이 관계는 법에 의해 판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유산의 파괴

언약 가정의 기능들을 대체하려는 정부의 이 음울한 시도는 마침내 세대간의 생산적 상호 관계를 파괴시킨다. 이 시도는 인격적 유대를 파괴시키며 (비인격화된 불특정 다수인) 젊은이 일반이 노인 일반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고 있다. 경건한 사회 질서 내의 삶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각 집안의 고유한 이름은 지워지고 콤퓨터 처리된 숫자들이 그 자리를 메꾼다. 노후를 위해서든 후세대를 위해서든 자기 자본을 보전시키려는 가정들의 행동 동기는 점점 줄어든다. 각 세대의 경제적 장래가 법적으로 더 이상 자녀들의 성공과 번영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이런 정부의 제지가 있을테니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 자본을 홀어 없애는 풍조가 문화 전반에 걸쳐 편만하게 되면, 그 사회의 경제 생산성은 파괴되고 만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가의 세원(稅源)도 파괴된다. 또한 국가는 약속한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발행한다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불환 지폐가 물가 지수를 올려놓을 것이다.

현대의 메시야 국가는 「가정 단위 책임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문화의 자본을 낭비하고, 유산을 파괴시키며, 안락사(비생산적인 노인들을 돌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와 낙태(비생산적인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를 보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법(法)없는 자들은 생산 능력이 최고에 달한 시기에도, 죽어가고 있는 부모와 울부짖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부를 나눠 주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현재 자기가 치뤄야 할 희생만을 볼 뿐, 장차 받을 혜택,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이 노후의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십 세기 사회의 큰 신화인 동정심 많고 생산적인 국가를 신앙하고 있다. 그들은 그 혜택을 입고자 하면서도 은퇴 후의 생활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하는 질문을 그 자신에게 결코 하지 않는다. 자녀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게다가 그들은 더욱 현재 지향적이 되어 있고, 국가 교육 제도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으며, 이제는 비생산적이 된 노인들에게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길 더욱 꺼려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비용을 대겠는가? 자본의 분산과 더불어, 생산적인 유권자들은 노인들의 요구에 저항할 것이다. 각 세대는 서로간에 전쟁, 정치의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 파산의 도래

허위의 가정인 국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파산의 대행 기관이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도 국가의 역할을 지적(知的)으로 변론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 변론자들은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보증하며

국가가 키우고 있는 대학 출신인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허위의 가정인 이 국가는 파멸을 자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국가는 생산성의 토대들을 파괴시킨다. 그런데 이 생산성은 모든 자발적 자선행위의 원천이다. 국가가 생산성을 파괴시키고 가치가 떨어진 불환지폐를 가지고 자기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자살 행위이다. 그런 동정으로 남발되는 지폐는 쓸모없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허위의 가정인 현대 국가의 그 비인격성은 그 현재 지향성, 즉 차기(次期) 선거 이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로 인해 대량, 그리고 보편적인 실패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행해 왔다. 이십 세기의 대(大)경제 실험은 거의 끝났다. 국가 체제에는 거기 기생(寄生)하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는 자체의 존속을 위해 생산성을 요구하는데, 그 체제가 그 생산성을 일단 침식시킨 후에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대학 수준 교재들도 그 체제를 정당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문화처럼 현대의 메시아적인 복지 국가 경제들은 그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경제 구조는 국가를 향한 시기심에 차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시민들에게서 자본을 박탈해갔기 때문이다.

●●●●●●●● 핵심 내용 요약 ●●●●●●●●

우리는 가정에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언약 사이의 전쟁을 본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본주의 종교를 버리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도 명령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노인이건 젊은이이건 어떤 식으로든 쇠퇴해가고 있는 복지 국가의 서비스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도 받는다. 그와 같은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곧 노예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주인에게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다. 아들과 딸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제도적으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그들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필수적인 여행, 곧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장도(壯途)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위해 가정의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자본을 박탈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는 오히려 우리의 자본을 박탈해간다. 만약 우리가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필경 그것은 가정의 자본이 박탈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가로부터 자본을 박탈하는 중차대한 첫 단계는 국가에 대한 후원 요청을 중단하는 것이다.** 메시아연(然)하는 국가의 ‘거짓된 동정’(the pseudo-compassion)에 대체될 만한 대안은 성경적 제도들을 자발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만약 언약 공동체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인본주의 국가의 해픈 경영자들에 의하여 자신의 자본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들은 집단적이다. 그것이 언제나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2.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 대부분 사람들이 장수하는 결과를 낳는다.
3. 장수는 인구 증가 현상을 낳을 수 있다.
4. 늘어나는 인구는 주권적 다스림의 수단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그래서 주어진 것이다.
5.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하여 천부적이고 제한적인 책임을 지되, 제도상으로는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6. 해를 거듭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책임은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로 넘어간다.
7. 그러므로 책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적인 것이 된다.
8. 부모와 자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책임을 진다.
9. 유산 상속 및 연로한 부모를 돌볼 책임에 있어서 장남은 두 배의 몫을 받는다.

10. 성경은 세대(世代)를 넘기면서 이어지는 자본의 계속성을 가르친다.
11. 가정 자본은 가능한 한 적게 소비되어야 한다.
12. 부(富)는 자유 사회의 검소하고 생산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간다.
13. 가정 자본이 세대마다 신장되기 원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적성과 성격에 맞게 훈련시켜야 한다.
14. 복합 경제 성장은 그 성장율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수 세기가 흐르면 부와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진된다.
15.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요, 세대를 넘겨가며 신장시켜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 오늘날에는 두 개의 경쟁적 가정이 있으니, 그것은 국가와 기독교 가정이다.
17. 국가는 과거 가정에 의하여, 특히 아버지에 의하여 관장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과세를 통하여) 힘과 영향력을 점차 증대시켜가고 있다.
18. 국가의 관료들은 시민들을 영원한 노예이자 영원한 자녀로 본다.
19. 국가는 유괴자처럼 행동해 왔다.
20. 국가는 과세(課稅)와 통제를 통하여 가정의 유산을 파괴하고 있다.
21. 국가는 민족의 자본을 낭비하고 있다.
22. 국가가 더 이상 하나님인 체할 수 없을 때, 사회, 정치, 경제의 파산이 도래한다.
23.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 종교를 버려야 한다.
24.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진정한 가정으로 믿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

교회의 해방

“자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와의 전(殿)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대하 26 : 16).

유다 왕 웃시아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대체로
선한 왕이었다(대하 26:4). 그는 옛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지체하였을
때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 왕국을 상실한 사울처럼(삼
상 13 장) 점점 교만해졌다. 웃시아 역시 자신이 왕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제사장들은 그가 잘못 처신하고 있다고 경책하면서 그를 만류했
다.

“웃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하니 저
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대하 26:19).

웃시아 왕은 죽기까지 문둥병자로 살았다. 성경의 규례에 따라(레
13,14 장) 그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 여생을 보내었다(대하

26:21).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의미는 논리적으로 명백하다. 즉, 국가적 사법권(civil justice)의 사역(검 : 劍)과 성례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법적으로 언약지위인 제도, 국가와 구별된 사법권이 관할하는 구역이다.

교회의 언약은 성경에 있는 기본 언약의 양식(樣式)과 동일하다.

첫째, 이 언약에는 초월성과 내재성(임재)이 있다.

목사와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배 회집시, 특히 성찬시 당신의 백성들 곁에 임재하신다.

둘째, 이 언약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장로들은 집사들을 다스리며, 장로와 집사는 섬김을 통하여 지체들을 다스린다. 장로들은 교회의 분쟁시 청원 법정의 역할을 한다(고전 3 장).

셋째, 이 언약에는 윤리가 있다.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한다. 교회는 옛날 레위인이 그랬듯이, 다른 기관들에 대한 상담자이다.

넷째, 이 언약에는 심판이 있다.

교회는 출교, 즉 사귀에서 끌어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서곡이다(고전 5 장).

다섯째, 이 언약에는 연속성이 있다.

교회는 역사를 통하여 계속 유지되는 제도로써, 부모와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가정들에게 계속성을 제공한

다.

우리가 사단 숭배교, 아니 보다 중요하게는 인본주의의 자칭 구원 대행자인 메시아적 국가에서 교회의 그와 같은 면들을 찾아볼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첫째, 국가는 하나님의 목소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들 하는 현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인간의 음성을 자처한다. 전제 국가가 선거 제도를 주장하고 또 모든 시민들에게 이 무의미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중의 소리는 신의 소리이다”(Vox populi, vox dei)라고 그들은 말하며, 이 신은 바로 인본주의 신이다.

둘째, 국가는 관료주의적 위계 질서를 세운다.

이 위계 질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준다. 이것은 상명하달식의 위계 질서이다.

셋째, 국가는 법을 무수히 만들어낸다.

그들은 강물을 흘러보내듯 끝없이 법을 만들어 낸다. 미국만 해도 연방 정부가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라는 일간 관보(官報)를 발행하는데, 세 단(段) 구성으로 200여 페이지가 넘는 이소 인쇄물은 당일 통과된 새로운 법규들을 공표하는 지면으로서, 발행 면수는 매년 54,000 페이지 이상이 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 법들을 다 읽을 수조차 없다(이와 대조적으로 일반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의 대부분은 출애굽기 20-23 장과 신명기에 거의 다 나타난다).

넷째, 국가는 삶의 모든 국면들에 대해 심판관 역할을 자처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침해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국가가 교회 건물과 대지 전부를 소유하며, “가정 교회”는 어떠한 것이든 불법으로 취급한다. 그런 불법 예배가 있을 경우, 이웃들은 경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집이 이전에 교회로 등록되지 않은 집이면 국가는 법적으로 그 집을 압류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는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미래를 주관하려고 한다. 국가는 유산에다 세금(상속세)을 과한다. 국가는 장기(長期)로 빚을 줌으로써 납세자들의 독립된 미래를 파괴시킨다.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탈자본화(脫資本化)시킨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대한 침묵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진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십 세기 최고의 아이러니(irony)이다. 교회 역사상 마르크스주의보다 더 큰 원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형태의 대적은 전에도 있었다. 옛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흔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이 선지자들은 악한 왕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이었다. 아합 왕은 왕실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합 왕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을 들려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더 좋아하였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참 선지자인 미가야를 찾아가자고 했을 때 아합 왕은 미가야가 나쁜 소식을 예언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미가야가 좋은 소식을 예언하자 아합은 그를 꾸짖었다.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대하 18:15).

아합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줄 알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합의 적의(敵意)는 너무나 강한 것이어서, 아합의 시종 오바다는 일백 명의 선지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

여 그들을 동굴 속에 숨겨야 했을 정도였다(왕상 18:13). 엘리야는 가뭄과 기근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압력을 넣고서야 악한 선지자 850 명과 갈멜산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제의에 아합으로 하여금 동의 하게 만들 수 있었다.

전제 정치에는 늘 배교(背敎)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 또는 블레셋의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레 블레셋의 신들을 좋아한단 말이냐? 잘 하는도다. 그 신들이 정말 어떤 것들인지 내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몇 년 동안 그 신들의 치리 구역으로 넘겨주겠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약의 법들이 본래 전제적(專制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정치적 법률 체계 아래에서도 살 수 있으며 그래서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영원히 금지되는 법 체계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성경적 법이다. 성경적 법을 용인할 만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림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 종교주의자들이나 도피 종교주의자들은 성경적 법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바는 그것과 정반대이다. 즉, 전제 정치는 구약 법을 “제외한” 고대의 모든 경쟁적 법률 체계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법은 해방을 낳는다. 하지만 구약의 법 체계를 비판하는 자들은 구약법의 전지에서 볼 때 국가의 지배(civil rule)는 전제를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관료제라는 한 그릇의 팔죽에 그들의 자유의 유산을 포기하도록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교회가 국가의 지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마다 국가는 분격한다. “어떻게 교회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을 잠잠케 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지!”, “정치 문제에 대해서 떠들어 대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야. 그런 문제들은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어”라고 지배자들은 말한다.

혁명가들 역시 분격한다.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은 “개혁(reform)이 아니라 혁명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평화로운 변화, 복음 전파에 의한 사회 재건, 국가의 자본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 등을 설파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목표는 국가를 사로잡아 그것을 강화시키고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도피주의자들 역시 분노한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교회에 왔소. 그런데 그대들은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계속 화제로 삼는구료. 성전 밖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소. 예수와 그분의 못박히신 사실만을 전하시오. 예수는 예수가 속해 있는 십자가 위에 못박힌 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삶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는 포괄적 복음을 전하면, 무책임하게 현세(現世)를 부인하는 구원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구원을 믿는 사람들도 질책을 한다. 성경의 메시지는 원리적으로 간단명료하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 구속」(comprehensive redemption)이다. 모든 것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대사(大使)이자 재판관들인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다스림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 만물이, 만사가 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셨다(되사셨다)”는 의미이며,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중립이란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고전 15:24) 먼저 만물에 대한 그분의 다스림이 확립되어야 한다.

● 목회자의 책임 회피

그리스도인의 통치는 가정, 사업, 교육 등 하나님께 받은 각 개인의 책임 분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성경의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복음을 설교하기 위하여 목회자들은 주권적 다스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성경이 어떻게 서로 이질적인 많은 “세속” 분야들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 집단이 특정 학문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고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의 목회자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한 두 가지 “세속” 분야에 대해 깊이 알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어떤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목회자는 성경에 대한 이 종합적인 이해를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권적 다스림을 지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이다.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목회자는 거의 없다. 그들은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며 자기 관할이 아닌 영역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한다. 물론 그렇다. 그러므로 우선 그들은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 권위있게 말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공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및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입을 다물라”는 국가의 말에 쉽게 동의하고 또 성경을 인생의 여러 분야에 대한 청사진의 원천으로 보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시작하는 목회자는 극소수이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counsel)을 전파하는 일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인본주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가정 생활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적절치 못하다고 가르친다. 경건주의자들(도피 종교주의자들)은 인본주의의 그런 가르침에 동의한다. 그들의 비판에 답변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실성(適實

性)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일은 수교와 면밀한 연구와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요구한다.

꺾박

공산주의와 결탁한 해방신학자들이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을 획득하는 날이면 교회는 당장 그들의 공격과 통제하에 들게 된다. 교회는 국가의 적이 되는 두 개의 제도 중 하나로 간주되며, 두 제도 중 다른 하나는 가정이다. 그러나 교회는 가정보다 통제하기가 훨씬 쉽다. 교회는 가정보다 수도 적고 그 재산이 다 눈에 보이며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非)공산권 국가에서 아직까지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고 있는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직은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오는 위험 부담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멧세지들이 정치 권력자들에게 전혀 특별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정치 권력자들이 교회를 침묵시키는 데에는 높은 대가가 들고 그에 따른 혜택은 낮기 때문인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미 스스로를 단속하는 방법들을 채택해 왔다. 그들은 논쟁을 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법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권위의 존재는 인본주의적 위정자들에게 원리상 늘 위협이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설파하는 교회들은 결국 국가 관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런 박해의 날에 대비하여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기도를 심분 활용해야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 교회를 통한 합심 기도는 힘(power)을 더해 준다. 이것은 합심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하

나눔께서 인정하신 전매 특허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평안하도록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딤후 2:1-3).

둘째, 시편은 분노의 기도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편들은 때때로 「저주의 시편」(imprecatory psalms)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에게 진노를 퍼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물론 이 대적들은 교회의 대적들이기도 하다. 시편 83 편이 그 좋은 예이고 시편 74 편도 또 하나의 예이다. 이 시편들은 공중 기도, 즉 교회의 공식 대표기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위정자들이 의(義)를 행하기를 거부하며 공공의 평화와 공공의 선을 위협한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 기도의 표적이 되기에 합당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개혁시켜 주시기를, 또는 제거해 주시기를 청한다.

바꾸어 말해, 교회의 기도는 통치자들에게 보상과 형벌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어야 하는 것이다. 통치자들은 교회를 자기 편으로 삼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꺾박이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때때로 교회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적대적인 기도를 드리기에 위험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지도자들이 사적(私的)으로 모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외부 상황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분노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지키심으로써 자신의 선하신 이름을 지키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의 보호자

교회의 기능 중에는 가정들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이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교회가 고무시켜

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고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다(신 6:6,7). 부모들 중에는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만약 국가가 교육의 일차적 대행 기관이라면(현재 모든 인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그런 공립(국립) 학교에서 빼내어 사립 기독교 학교로 전학시키도록 해야 한다(이것이 미국의 형편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독교 계통의 사립 학교라 할지라도 교육의 독자성을 기할 수가 없고 문교부의 통제 하에 있다 - 역자 주). 그 사회에서 그것이 불법이라면, 교회는 자녀들이 공립 학교에서 진화론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서 듣는 거짓말들을 배우지 않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라고 권고해야 한다. 지금 세상에는 다음 세대의 지성들을 놓고 한 판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인본주의자들은 가정의 유산을 상속할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그 유산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가정은 인간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일차적인 기관이다. 그러나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다. 인간에게 복락을 주는 두번째 기관인 교회는 행동을 개시하고 최소한도의 자선을 베풀어서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한다(고후 8 장). **교회는 영구한 의존 상태를 만들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할 일은 독립적이며 다스림의 주권 지향적인 지체들을 길러내는 일이다.** 자선 행위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장래를 위하여 위험을 감내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교회는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으실 하나님을 대변한다. 그러나 자선 행위는 심리적인 버팀목이 되어, 일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살후 3:10).

교회 구성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집사들은 각 교인들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보험에(만약 그러한 보험이 가능하다면) 가입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보험은 현대 세계가 창안해 낸 가장 위대한 품목 가운데 하나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 부담을 경제적인 형태로 분담해 질 수 있게 해준다. 생명 보험과 재해 보험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교회가 생명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있으며, 한 집안의 가장이 죽을 경우 과부된 이들과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생명 보험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들은 되도록이면 매년 보험 계약 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 저축 계획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보험 회사가 내 가족을 책임진다”고 확실할 수 있는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회에서의 권위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모든 종류의 「다스림」(government)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자기 다스림”(self-government)이다. 어떠한 제도적 정부(government)도 그 구성원들에게 밤낮으로 정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설교의 목표는 교인들의 자기 다스림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교인들은 성경의 원리 원칙들이 각 역사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침받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성찬식 때마다 이 자기 다스림에 대해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전 11:28).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省察)하고 죄를 고백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교회는 교제의 떡을 떼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교인들 중에 이 자기 다스림의 관행을 고무시키는바, 이것이 바로 매주 성찬식을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거(論據)이다. 그러나 교회 직분자들은 이에 앞서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

남을 경외하는 교회에 매주마다 성찬식을 도입하면 흔히 반역과 교회 분열을 포함하여 주요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회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있다. 특히 출교를 통하여 권징을 실시하지 않는 교회에는 더욱 그렇다. 회중 가운데 있는 행악자들은 매주마다의 성찬식에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의 존재는 표면에 떠오르게 될 것이며, 보통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대항하여 말싸움을 하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이런 일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징책을 불쾌히 여기는 자들을 척결하는 것(마 13:7,22), 이것이 바로 매주마다의 성찬이 성취해야 할 일이다. 매주마다의 성찬은 그들로 하여금 그때마다 이러한 도덕적 문제들을 척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장로들은 청원 법정으로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야 한다(고전 6장). 장로들은 모든 소문과 비방들을 중단시킬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속적인 험담은 죄이다(레 19:16). 교회의 장로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자에게 그 비방을 되풀이해 보게 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직분자는 작은 노트나 수첩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누군가 그의 앞에서 남을 험담하면, 바로 수첩을 꺼내서 낱짜와 험담하는 자의 이름을 적고, 비방 내용을 다시 천천히 말해보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면 험담자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만 말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게 된다. 거짓 증거를 하는 자에게는 그 거짓 증거의 희생자에게 가해질 뻔했던 징벌을 그대로 당함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신 19:19).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세속 법정에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교회는 국가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 신(인본주의)의 법에 복종하는 교인은 언약을 범한 것이다.

교회에 결정권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 호소하는 교인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즉시 출교시켜야 한다. 그런 행동은 국가에게 교회를 재판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뻔뻔스런 행동이다. 그리고 일단 출교되고나면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의 문제에 관한 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고전 5장), 그때는 송사에 연루된 교인들이 세속 법정에 나가서 그 사람의 소송에 정식으로 대항하여 교회를 변호할 수 있다[이러한 송사의 예로, 교회가 인정한 이혼에 관한 논쟁, 특히 간음이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심각한 다른 죄를 저지른 경우에 관한 송사가 있다. 출교와 이혼의 이유가 공적(公的)으로 선포되면, 죄있는 쪽에서 교회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모든 언약적 제도가 그렇듯이 재판할 권위는 최상층부에 있다(대표의 원리). 그러나 명령의 계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즉, 관료주의적 명령 체계가 아니라 청원 재판정이 성경이 제시하는 모범인 것이다. 청원식의 재판은 자립과 독립적 의사 결정 능력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서의 자치(self-government) 영역 또한 증대시킨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전문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며(고전 12장), 그리하여 피조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권위의 범위를 넓혀 준다. 이렇게 해서 각 지체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특별한 은사들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교회의 특권

교회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말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교회는 국가나 가정 또는 다른 어떤 인간 정치의 대행 기관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들을 판단하는 재판자이다. 이는 교회가 천국의 열쇠(성례)를 맡은 자이며 또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그리스

도인들이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이다(고전 6:3).

만약 교회가 개방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해 자체의 자산(property)을 구매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구매하여 소유해야 한다. 교회가 어떤 물건에 대해 최고 가격으로 입찰하여 판매자가 그것을 교회에게 팔기를 원할 때 어떠한 정부 기관도 그 매매를 막을 수 없다.

교회는 국가의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도 세금을 부과받을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법적으로 독립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면세(免稅) 구역이다. 이 면세권을 범하는 것은 웃시야가 성전의 신성함을 범한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경우 하나님의 집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린 관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를 기도해야 한다.

자발적 기부나 헌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교회에 헌납하는 사람도 마땅히 이 특별 감면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교회는 독자적인 법적 실체이다. 교회가 (어떤 종류이든) 부채를 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개별적 지체들이 부담하는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다. 국가 법정은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 이행 중 죄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 교회 기금의 횡령) 그들에게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 권위를 오용하여 범죄했을 경우, 국가 법정은 그들 개인에게나 교회에게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처벌들을 교회 지체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만약 교회가 학교들을 세운다면 이 학교들은 모든 공공 건물들, 특히 국가 소유의 건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정규적인 안전, 보건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모든 법규에서 법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핵심 내용 요약 ●●●●●●●●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항에 따라 세워진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자적인 법적 영역이다. 교회만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 출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의 중요한 권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전반을 말한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교회의 선포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선포 기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두 하나님의 밀씀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공격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과 여타의 제도들이 교회의 정당한 사법적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교회의 선포를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관련된 관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만약 국민 모두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남색(sodomy) 행위는 언약적으로, 다시 말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국가 위에는 불과 유황에 해당하는 것들이 즉각 임할 것이다(창 19 장). 그와 같은 집단적인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개인들은 교회의 대의(大義)를 옹호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만의 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2. 검(劍)의 사역은 성례의 사역과 다르다.
3. 교회의 언약 구조는 일반 언약 구조와 병행한다.
4. 사단은 국가를 통하여 교회에 필적하는 구조를 세운다.
5. 사단의 나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다.
6. 전제 정치에는 항상 편만(遍滿)한 배교가 수반된다.
7.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현대의 전제 정치를 조장한다고 믿는다.
8. 인본주의자들도 동일한 주장을 한다.

9.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 이외의 모든 법들이 전제 정치를 촉진시켰다.
10. 기존의 인본주의적 시민 정부와 혁명가들, 도피 종교가들은 하나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한다.
11. 목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더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12. 하나님의 경륜 전반을 선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양상의 사상과 문화에 해박하게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13. 체계적이며 헌신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될 때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된다.
14.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되 평화를 구하는 기도와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15. 교회는 가정의 보호자이다.
16. 교회는 가정이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이차적인 복지 기관이다.
17. 자기 다스림(self-government)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기반이다.
18. 자기 다스림의 원리는 성찬식 때에 환기된다(자기 성찰과 죄를 고백함으로써).
19. 매주 행하는 성찬식은 공식적 자기 다스림의 필요성의 빈도를 증대시킨다.
20. 교회 장로들은 청원 법정의 재판관으로서 봉사해야 한다.
21. 공식적인 재판은 교회 내의 뒷공론을 줄여 준다.
22. 교회는 사법적으로 국가와 분리된 영역이다.
23.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서의 자체적인 자율 법정이 필요하다.
24. 재판의 권위는 상충부에 있으나 그 체계는 밑에서 위로 작용한다.
25. 사단적인 구조는 관료주의적이다. 이 구조는 위에서 주도하여 제도상 낮은 층으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26. 교회는 독자적인 통치 영역으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제외되는 자유를 기본적인 특권으로 갖는다.

국가의 해방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겹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利)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출 18 : 19-23).

위의 말씀은 사람들이 재판 순서를 기다리며 모세의 장막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충고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온전한 재판을 행하셨다. 그러나 모든 자가 그 재판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모세는 수많은 사건들을 치결하느라 지쳤고, 그 백성들은 재판을 기다리는 데 지쳤다.

성경은 어떤 완전주의자의 기록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완전성에 관한 표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충족시키실 수 있었던(마 3:17/ 룰 3:23/ 고후 5:21) 표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창 17:1/ 왕상 8:61/ 마 5:48),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벽한 법 체계가 시행되는 데는 오류도 있고 한계도 있으며 죄로 얼룩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자체의 법전(法典)에서 인정하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이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시피, 성경은 지상에서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인본주의자들의 추구에 적대적이다. 완전한 정의는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에 의하여 마침내 시행될 것이다.

모세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서는 어떤 경우든 즉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 문제를 모세가 다 듣기에는 시간이 모자랐다. 완전한 정의(正義)가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약받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세의 장막까지 와서 (아마) 길게 줄지어 서 있어야 했을 것이다(출 18:14).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지상의 정의를 추구했지만, 그러한 요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갔다. 제약을 받는 것은 모세의 시간뿐만 아니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도 그러하였다.

사람들이 정의(正義)를 기다릴 때 그들의 삶은 정지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비생산적이 된다. 그들은 스스로 실리적인 방책을 세우기를 두려워한다.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불확실한 문제들이 국가 법정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완전한 사법 체제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와 같은 제도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짐이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한다면, 통찰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에 의해 서라도 청원 법정 체계가 운영되는게 더 낫다. 완전한 정의를 위해 귀한 인생을 몇년씩 허비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리고 정상적인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더 낫다.

재판관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표준들은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에게 요구되는 기준(딤후 3 장)과 대체로 비슷하다.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성품」(character)이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들은 노예로 성장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 전 세대가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법규정은, 개별 사건들에 대하여 완전한 판정을 내려 주기는 하되 소송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법률 체제보다 더 나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책임있는 비전문가에 의한 통상적이며 예측가능한 판결은 “선두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이때금씩 제공되는 완전한 정의보다 낫다는 것이다. 정의를 베풀어야 할 부담은 나누어서 져야 한다(22 절).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히 일상적 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23 절).

그들에게는 많은 재판관들이 있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랍비들 가운데 하나인 라쉬(Rashi)는 그 당시 적어도 82,000 명 혹은 60 만 성인 남자 인구의 약 15 퍼센트가 재판관이었을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들 중에 국가가 공인하는 법과대학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시민 정부의 언약적 구조

시민 정부의 언약적 구조는 다섯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그 구조에는 초월성과 대체성이 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대표 역할을 하였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모세는 백성에 대한 백성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대표였다.

둘째, 모세는 법정의 위계적 체계의 최고위(最高位)에 있다.

그는 피라미드식 청원 법정의 최상급 법정 판사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

그는 거룩한 사회의 일반 원리와 목표들을 개진하고 있다.

“...(그대는)...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넷째, 모세는 심판을 행한다.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모세는 그 백성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법의 일반적 표준에 비교해 보고, 책임을 져야 할 자에게는 심판을 행한다.

다섯째, 그 구조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시간이 흘러가도 이 체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정의(正義)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 때는 결코 없는 것이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 사단의 모방

사단은 자기 식의 시민 정부 언약을 제시한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유사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정반대이다.

첫째, 사단의 언약 구조에는 진정한 초월성이나 임제가 없다.

백성의 대표는 하나님이지 아닌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 당(黨)이나 한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 역사의 세력, 민족, 국가, 시대 정신 등을 대표한다. 그 대표는 그 백성에 대하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혹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 백성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둘째, 사단의 언약 구조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상명하달식의 관료적 통치 체계가 성립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에서조차 상당한 정도의 개인적인 주도권과 책임과 자유가 인정되는 청원 법정식 제도가 아니다. 이 위계 질서는 국가의 전지성(全知性), 전산 처리된 계획, 광대한 전략,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중앙 통제를 강조한다.

셋째, 사단의 언약 구조에는 법(laws)이 있다.

법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고 복잡하여, 이 법에 대한 지식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관료들과 그 법들을 해석해 보수를 받는 법률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것은 엘리트주의를 낳는다. 또한 이 법들은 끊임없이 개정된다. 즉, 유동(流動)적인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의 진화적 정의(正義)인 것이다.

넷째, 사단의 언약 구조에는 심판이 있다.

국가는 재판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소유한다. 의무적으로 징집되는 군대가 계속 커져간다는 것은 국가가 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횡적(專橫的)인 심판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사단의 언약 구조에는 세금과 압류를 통하여 유지되는 의도적인 연속성이 있다.

세금을 올림으로써 국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관들은 약화되며 국가의 손은 더욱 강력해진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속박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상소권(上訴權)

성경에는 상소권이 “큰 일”에 제한되어 있다. 근본적인 원리들이 관련된 사건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들은 사법(司法) 계통에 따라 상소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최종 판결을 위하여 모세에게 회부되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각 단계의 재판관들은 하급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만약 하급심의 결정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소송이 사회 일반의 선례(先例)로서 비교적 중요성이 덜하다고 결정하면,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모세가 담당하는 최고심은 큰 사건에만 제한되었으며, 최고심에 상소하기 위해서는 하급심들의 심사가 필요하였다. 이드로는 모세가 시간 제약을 받음으로써 사법 체계가 마비되고 있다고 보았다. 만약 하급심에서 심사된 모든 사건들이 결국 모세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면, 법정의 위계 질서는 모세에게 전혀 휴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 법정 체계의 심의 형태는 그 체계 자체의 성공에 근본적인 요소였다. 이는 소송자들의 대다수가 완전한 정의에 못미치는 판결로 만족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이드로는 끊임없는 소송이 사법 체계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만약 하급심의 판결이 반복될 가능성이 비천다면, 패소자는 분명 상소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상급심의 재판관들 편에서는 하급심의 판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을 삼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로간에 사사건건 법정 시비로 몰고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법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판결은 늘 지연되는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자제력이 있는 백성”에 의하여 다스려지지 않는 사회, 정부 이외에 다툼을 종식시킬 다른 수단들, 이를테면 교회 법정, 중재 위원회, 범(汎) 산업

회의 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곧 마비되고 말 것이다.

● 법정 체계의 전복(미국의 예)

맥클린 플레밍(Macklin Fleming)은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의 판사이다. 그의 저서, 『완전한 정의의 대가』(*The Price of Perfect Justice*, Basic Books, 1974)는 점증하고 있는 미(美) 사법 체계의 마비 현상을 증언하고 있다. 미국 사법 체계의 파멸을 몰고온 것은 바로 “지상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 문제였으니, 이것은 대시야를 자처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시도였다.

현대 사법의 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연료는 「완전함에 대한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충분한 시간과 인내와 에너지와 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면 모든 번적 절차에서 완전한 정의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지난 이십 년 동안 이 이념이 법 사상을 지배해 왔으며, 이 이념이 법률 행위로 구체화되어 널리 실천되어 왔다. 그렇지만 사법 절차의 구체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없이 그 고상한 이념이 ‘악마적’이라고 밖에는 묘사할 수 없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형사 소송의 기소 문제를 결정지를 배심원 한 사람을 선발하는 데 다섯 달이나 걸렸음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살인 사건을 다섯 차례나 재판하였으며 수색과 체포 영장을 발급하는 문제가 스물여섯 번씩이나 검토되었으며, 기소하는 데는 열 달 이상이 걸리고, 고소는 아예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 기능 자체를 목표물로 삼는 피고인에 의해 결길로 가기 일췌이다(p.3).

현대의 인본주의적 세속 법정은 어디에서 실패하였는가? 플레밍은 「매컬리 경의 법칙」(Lord Macaulay's rule)을 인용하는데, 그 법칙이란 ‘해야만 하는 일 이상을 시도하는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것도 못하고 끝난다’는 것이다. 인간의 법은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법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은 무한정 정의로울 수도 없으며 무한정 자비로울 수도 없다. 또한 법은 완벽한 형태를 가질 수도 없으며 완전한 내용을 가질 수도 없다. 이러한 한계들이 과거에는 잘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선별적인 목표들과 제한된 대상과 인간의 가류성(可謬性)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는 현대 법률 이론가들의 주류는 사회 질서의 모든 양상, 특히 법적 절차상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일에 착수하고 있다(p.4).

법률 절차상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이 포함된다고 플레밍은 말한다. 즉, 범정은 전적으로 불편부당하고 유능할 것, 변호 시간은 무제한일 것, 총체적인 사실성이 있을 것, 관련 법률을 완전히 숙지(熟知)할 것, 절차상의 오류가 배제되어 있을 것, 그리고 그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조직화된 절도에 대한 강력한 방어책은 절도범들이 서로를 팔아넘긴다는 사실에서 찾아낼 수 있다”(p.5)는 점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런 정보는 이용하지 말 것 등이다. 값싼 정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유죄 판결하는 것보다는 일백 명의 범죄자가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백 명의 범죄자 때문에 미래의 희생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는가? 완전주의 법률가들은 자신들이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세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지를 계산하고자 하지 않는다(p.6).

법률 체계는 전체가 꾸물댄다.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법정도 심지어 속기사(速記士)도 꾸물거린다(p.71). 정의의 신속한 집행은 현실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죄수들은 인신 보호 영장(habeas corpus)에 근거해서, 즉 누군가의 위험적인 행위 때문에 불법적인 억류를 당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연방 법원에 호소한다. 1940년에는 주(州)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89 명의 죄수들이 그와 같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1970년에는 그 수가 일만이천 명에 달하였다(p.27). 그래서 플레밍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연방 법원이 강요 금지법(fiat prohibition)과 엄격한 의식주의적(儀式主義的) 법률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주(州)의 형사 소송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킨 결과, 형식주의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까지 격상되었으며, 이는 형사 소송의 모든 중요한 국면들을 뒤흔들어 놓아 형사법 체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다른 편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을 해이하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p.97).

법에 의한 구원

완전한 정의의 추구는 불가피하게 「자의적인 법 체계」(arbitrary jurisprudence)와 「공적인 무법 상태」(public lawlessness)로 이어진다. 바로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모두 인간 법정의 불완전함을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인간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 불완전함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듯이, 불완전한 정의와 더불어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완전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 정의가 최후의 심판날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를 요구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메시아주의적인 인본주의 법정의 번잡함 때문에 고통당하느니보다는 경건한 비전문가에 의해서 전달되는 신속한 정의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는 현재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의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쓰일 최고의 완전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법의 완전한 정신이나 법의 완전한 조문(條文)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법의 정신이나 조문의 불완전한 한계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법에 의하여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에 의한 구원은 오래된 이단의 하나로서, 그것은 결국 「국가 신학」(statist theology)의 승리로 이어진다. 기독교는 이 이론에

완전히 반대된다. 러시도니는 그의 책, 『죄책과 동정의 정치학』(*Politics of Guilt and Pity*, Craig Press, 1970)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현실은 죄와 자기 확대뿐이다. 그 죄책과 자기 확대는 불신자의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부동(不動)의 내적 노예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반(反)기독교적인 정치 는 불가피하게 「죄책의 정치」(the politics of guilt)가 된다. 죄책의 정치에서 인간은 그를 억누르는 죄책감과 가혹적(加虐的)인 활동에 의하여 사회적 에너지와 문화적 활동이 영원히 고갈된다. 인간은 점점 더 국가에게 구속적(救贖的)인 기능을 요구하게 된다. 인간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 즉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국가가 대신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구원하는 인간적 구세주(the human savior)가 된다. 그러므로 죄책의 정치는 기독교의 자유 정치처럼 신성한 정의와 질서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救贖的) 질서와 구원자로서의 국가의 창조를 지향한다(p.9).

정통 기독교 법 체계는 국가를 구원자로 가르치는 교리를 채택할 수 없다. 이십 세기에 들어서서 바로 그와 같은 국가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세계가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의 정통성을 버렸는가를 입증해 준다 하겠다.

법 체계의 마비

어떠한 법률 질서에서든 가장 중요한 국면 중의 하나는 그 사회의 시민들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억제하려 하느냐이다. 이는 사람들이 시민 정부에 대한 대안(代案)으로서 작용하는 사법(司法) 제도를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다스림(self-government)도 강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십 세기 중반 이후 서구 사회 법 전통의 기본 특징이었다. 비록 세계 제 1 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적 행정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전통이 침식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바드 대학 교수 해롤드 버만(Harold Berman)이 그의 중요 저서 『법과 혁명』(*Law and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에서 말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이 서구 사회에서의 자유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자기 다스림은 돈이 안 드는 자원(zero-price resource)이 아니다. 성경은 율법의 각 조항들을 자녀들에게 상세히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명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회 전반의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 즉 법을 존중하는 태도와 그러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자제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시민법에 있어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측면은 정부의 관리들이 과중하고 난해한 행정법을 사회에 집지우지 않음으로써 자제하는나이다.**

시민법이 인간사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기에 이르면, 국가는 국민 대중으로부터의 매우 중요한 「보조금」(subsidy), 즉 시민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려는 기꺼운 태도를 상실하게 된다. 어떠한 법률 구조든지 국민 대중이 잘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상당한 취약점을 갖게 된다. 만약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법률 체계로는 강요할 수 없는 규정들에 복종하기를 거절하게 되면, 그 체계는 무너지고 만다. 법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법 체계도 마비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십 세기 말의 미합중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어떠한 법률 체계든 그 법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이용하면 간단히 붕괴시킬 수 있다. 어떠한 행정 체계든지 모두 절차법을 가지고 있다. 관리들이 이러한 절차법들을 너무나 철저하게 따름으로써 어쩔 수 없는 비능률의 관료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에 항의하는 자들이 그 체계를 마비시킬 수가 있다. 자나치게 많은 법은 오히려 무법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정도 그들의 뜻을 더 이상 시민들

에게 강요할 수 없다. 동시에, 행정 기관들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시민들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민 생활을 개별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무정부 상태와 폭정이 혼합된 상황이 빚어져 반법적 유산(antinomian legacy)이 형성되는 것이다.

●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할 수 있으며 또 애써야 할 일은 우리 인간의 법전(法典)을 십계명의 명백한 요구 사항 및 성경법의 적용 사례들에 일치시키는 일이다. 현대의 법을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형식법의 가정적(假定的) 완전성에서 발견될 수 없으며 실체적(윤리적) 정의의 가정적 완전성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재판관들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재판관들이 성경법의 틀 내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이 실수들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합적인 법률 체계를 주시기 전에, 이드로가 분권화(分權化)된 법정으로 구성된 종합적 체계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였다. 모세는 지상에서 완전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임을 인정함으로써, 계시된 법을 불완전하게나마 적용하여 다스리는 일을 가능케 하였다(즉, 원리상으로는 완전하나 적용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흠이 가게 된 것이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상에서의 완전한 법 질서라는 메시아주의적 목표는 모세와 그의 계승자들에게는 거부되었다.

현대 시민 정부의 행정 체계의 가장 명백한 실패 중의 하나는 경제 생활의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 완전한 정의(正義)와 완전한 통제를 실현하려는 시도의 실패이다. 중앙 통제 계획자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주장은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와 같은 주장의 결과, 각종 법규가 증가하고, 지배자와 피 지배자 모두에게 혼란이 가중되며, 시민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한다. 서구 사회는 그 전형적인 권력 중앙 집중 체제하에서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다. 현대의 메시아주의적 국가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법률들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며, 보편적으로 강요되지도 순종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완전한 인간적 정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기엔 지나치게 대가가 크다.

투표함에 의한 절도

성경은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한다(출 20:17). 그렇지만 현대 사회주의 사회들은 탐심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부추기며 그것에 의해서 존속하고 있다. 그들은 도적질을 금하고 있는 계명을 “다수결에 의한 도둑질을 제외하고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읽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의 핵심이자 정수(精髓)이다.

탐심을 금하고 있는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동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개개의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다. **탐심의 출발은 인간의 마음임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번 것도 아니고 상속받은 것도 아닌 물건들을 원한다. 마음 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는 한 이웃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남이 보기에 능히 빼앗을 수 있을 만하게 보이는 재화(財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탐심을 품은 사람이 보기에 그 소유자는 불법적인 소유자로, 하나님 아래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전혀 없는 자로 보일 것이다.

그 계명은 그 지역의 이웃이라는 개념 이상의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탐심이 널리 퍼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정치적 강제이다.** “탐내다”라는 단어의 용례(用例) 그 자체가 폭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탐심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손에 넣기 위한 시도로, 그것을 자기가 사겠다고 제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나뭇이 포도밭을 팔기를 거절하자 그의 포도밭을 강제로 관리하기로 마음을 굳힌 아합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강제력을 발동하고자 한다. 경찰의 묵인, 즉 공공연한 압력을 가하거나 도적질로 이

일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정부를 움직여서라도 그것을 빼앗으려 하게 된다.

탐심을 품은 사람들은 세력을 규합한 후 정부에 압력을 넣어 부(富)의 재분배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소유한 「합법적 폭력 독점권」이 재산 소유자를 적대시할 수가 있다. 정부 관리들은 국민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재산을 사적(私的)으로 또는 정부 관청 내에서 사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에게 분배해 준다. 정치적 탐심은 무절제한 욕망과 폭력적 위협의 표현이다.

정부가 탐심의 도구가 될 때 정부의 폭력 독점권은 도적질의 위협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너희는 탐내지 말지이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한 탐심은 예외이다”라는 새로운 계명이 채택된다. 상황이 이렇진대, 불의한 관리들에게 대항하여 자기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시민이 누구이겠는가? 나뭇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기 소유인 것을 지키려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권력을 오용하는 것은 이중의 해악을 끼친다. 먼저 이와 같은 권력 오용은 책임있는 청지기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 이것은 관리의 직분을 남용하는 것이다. **시민 정부의 구조가 정치적 탐심에 깊이 몰들어 있으면 탐심의 확산이 정부 관리에 의해서 억제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옛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국가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탐심의 대행 기관이 되면, 전체 사회가 위협받게 된다. 특별한 이해 집단이 각각 자기가 부의 재분배의 일차적 대행 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권력 투쟁의 파도가 이어진다.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국가의 강제적인 메카니즘을 수단으로 하여 더 많은 권력이 제공될수록, 권좌를 차지하려는 투쟁은 더욱 흉포해진다.

탐욕스런 사람은 자신의 삶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불만을 품는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 그는 그 자신의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속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에 만족하지 못한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에 불만을 품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고전 7:21,22).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멋진 외모와 명성과 세상적인 소유를 탐낸다. 그는 자신의 한계점들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게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계시다고 그 탐욕스런 사람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구원이나 저주를 이루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 다른 사람의 재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의 열매들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그 열매들이 청지기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는 개인적인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말이다.

전체주의 대(對) 십일조

전체주의적 사회는 경제를 중앙 집중적 구조로 만들려는 사회주의적 입안자(立案者)들의 시도로부터 발달한다. 그 어느 것도 중앙 통제식의 경제 계획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인간의 자유는 그와 같은 계획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결정된 국가의 프로그램에 따라 부를 재분배하는 권력은 마침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청지기로서 행동해야 할 책임까지 방해하는 것이다. 법제화(法制化)된 탐심은 전체주의의 주요 토대가 된다.

정부는 성경의 법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인간으로 왕(王)을 세우는 일에 대해 사무엘이 내린 경고는 지상의 왕국들이 어떤 해악(害惡)을 내포하고 있느냐에 관한 고전적인 진술이라 할 것이다. 왕은 자기의 군대에 복무하게 하려고 아들들을 징집해갈 것이며, 딸들은 요리사와 과자 만드는 자로 봉사하도록 끌어갈 것이다. 왕은 가장 좋은 농경지를 몰수해 갈 것이며, 또한 가축들에 대하여 십일조를

과세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왕은 자신을 위해서 십일조를 거둬갈 것이다(삼상 8:11-19). 사무엘은 히브리라는 국가가 그들에게 그런 큰 짐이 되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리라고 약속했다(18 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질서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인간의 주권 하에 처하게 했으며, 이 주권은 정부에 집중되게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십일조만큼의 세금을 요구하는 국가는 불경건한 국가이다. 하나님의 십일조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는 더욱 악한 국가이다. 그와 같은 국가는 국가 자체를 신(神)의 위치로 격상시킨 것이다. 그것은 거짓 신이며 사단적인 신이다.

사회적 협동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신뢰하지 않으면 상호간에 이익이 될 어떤 계획에 서로 협조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감정과 경제적 기대를 서로 함께 나누기를 주저한다. 그래서 탐욕이 팽배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개인이나 정부 관리들에 의한 도적질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소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적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대하게 된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 성취 가능성을 감춘다는 뜻도 된다.

그러하여 계획이 비밀의 옷을 입게 된다. 가정에 관한 일들을 계획하는 기관에서는 가정의 목표들을 제한시킨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정들이 쉽게 서로 협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간의 분쟁이 증가한다. 가정 경제 계획 위원회들의 은밀한 대화를 제외하고, 가정의 미래에 관한 일들은 모호하게 토론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고 만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계획을 토의하기를 거부하는 탓에 노동의 사회적 분화(分化)가 방해받으며 공동체들의 미래 지향성은 현격하게 감소된다.

하나님께서서는 도적질을 금(禁)하신다. 탐심은 도둑질이나 사기로 이어지는 「내적 욕망」이다. 죄인에게 법의 제재가 가해진다 해도 그것이 악한 욕망, 곧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전 말건 그의 재산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제어하지 못한다.

자발적인 교환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 상대방은 그런 기회에 대하여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즉 A 라는 사람이 B 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어떤 자원을 기꺼이 B 와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B 로서는 알지 못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기회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다른 사람의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 등과 같은)이 아닌 이상 부도덕한 일이 아니다. 「탐심이란 상대방이 이 거래를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는 무법한 욕구를 말한다. 탐심이 일반화되면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정치 구조에 대한 믿음과, 노동의 분화(分化)에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 탐심은 사회의 조직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열번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평안과 사회적 협동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 계명은 그 앞의 계명들과 똑같이 참되다. 성경의 법 질서는 갈등을 줄이고 노동의 분화를 확장시키는 도구이다. 능률의 극대화는 노동의 분화를 통하여 가능케 된다. 무엇이든 사회의 평안에 기여하는 것은 1 인당(per capita) 생산성을 증가시켜 주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1 인당 수입도 증가된다. 사람들은 모두 행동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 탐심을 금하면 탐심에 따르는 대가가 줄어들으로써 사회적 협동을 증대시킨다.

탐욕을 금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람의 생각을 금하는 국가법을 강요할 수단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생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탐심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폭력과 압제 때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탐욕의 작용」은 시민법에 의해 통제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 시민법을 시행

하는 정부가 탐욕을 보편적으로 합법화하는 철학에 몰들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탐심이 가시화(可視化)되어 나타나는 것을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대가가 든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법을 집행하는 비용을 절감시킨다.

사람은 탐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한다. 이러한 훈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서 져야 한다(신 6:7).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탐욕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뺏으려 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법을 집행하거나 탐심을 합법화시키는 계획, 즉 “사회 복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중과세(重課稅)를 해야 할 필요성을 줄일 수가 있다. 탐심을 금하는 법을 그렇게 내면화시키면, 노동의 사회적 분화가 촉진되어 1인당 생산량을 늘이는 데 도움을 주며 법 집행을 돕기 위해 수입의 일정량을 세금으로 내야 할 비율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그리하여 그 사회는 범죄(부의 재분배 계획을 세우는 국가의 범죄를 포함하여)가 줄어들고 1인당 산출량이 증가되는 이중의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도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기회를 증대시키게 된다.

항상 그렇듯이 훌륭한 정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자기 다스림(self-government)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핵심 내용 요약 ●●●●●●●●

사회의 평안은 우리의 목표이다. 이 사회의 평안은 선지자 이사야가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평안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이와 같은 평안의 사법적(司法的) 기초는 성경적 법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회적 평안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기반 역

할을 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사회적 평안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웃들과의 관계에, 그리고 정부의 입법 과정에 탐심이 없다는 것이다. 탐욕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회적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개인의 자유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진보가 계급 투쟁과 혁명적 폭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사악한 이론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삶의 각 영역 모두에 확장되는 것을 통하여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선악간의 싸움은 윤리적인 싸움이다. 그 전쟁은 결코 계급 투쟁이 아니다.

우리의 정치적 목표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부터 극도로 제한된 중앙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 법의 언약적 체계」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 정부를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게 하는 이 과정은 자기 다스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종교의 핵심이 사단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사회에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자유의 체계를 부과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혁명이지만 폭력 혁명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행되는, 인간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다. 우리의 사회 제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경은 인간의 법정이 늘 완전한 정의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가르친다.
2. 비록 완전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신속한 정의가 완전한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
3. 성경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추천하고 있다.
4. 재판관들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5. 성경적 (시민) 정부는 하나님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측면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6. 사단이 모방하는 정부 역시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7. 끝없는 법정 소송은 사회의 생산성을 저해한다.
8.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소한 불의는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9.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오히려 오늘날의 사법 체계를 파괴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10. 성경은 율법에 의한 구원이라는 이교적(異敎的) 사상을 배격한다.
11. 국가는 구원의 대행 기관이 아니다.
12. 시민과 정부 관리 양자 공히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13. 우리는 유한(有限)한 피조물이며 우리의 사회 제도에도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14. 국가를 수탈 기관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15. 국가가 수탈 기관이 되면 악한 사람들이 국가 전복을 추구하게 된다.
16. 국가는 수입의 10 퍼센트나 과세할 권리가 없다.
17. 우리는 사회적 협동과 평안을 원한다.
18. 사회주의는 사회적 협동과 평안을 감소시킨다.
19. 기독교의 목표는 사회의 평안이다.

경제의 해방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 : 15).

경제는 언약적 제도가 아니다. 경제는 자기에게 저주가 돌아오는 서약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사업상의 거래에서 그와 같은 서약은 가능하지도 않다.¹ 경제는 본래 가정의 자연발생적 산물이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말이다. 소유권(ownership)의 현대적 형태라 할 수 있는 회사(corporation)는 사업의 측면에서 교회가 확장된 것이다. 즉, 교회의 지체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소유자들은 그 조직의 부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

해방신학 서적에 경제를 다루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이 경제를 그들 신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르크스를 추종하되, 경제의 생산 양식(economic mode of production)을 모든 사회와 모든 사회 분석의 기반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추종한다.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를 증오한다. 또한 그들은 자기 다

1. 게리 노스, 『사내 전략: 경제학과 십계명』(The Sinai Strategy: Economics and the Ten Commandments, Tyler, Texas : 기독교 경제학 연구소, 1986), 제 3 장.

스립의 원리를 증오한다. 그들은 중앙 통제 경제 입안자(立案者)라는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상명하달식 관료주의 경영의 사단적 체제를 조장시킨다. 따라서 그들의 경제관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사단적이며 위험하다.

도적질을 금(禁)함

사유 재산에 관한 성경의 사례(事例)가 성경의 다른 어느 구절보다도 이 장(章) 초두에 인용된 구절, 즉 제 8 계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석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해 온 사실이다. 개인들이 다른 사람의 수고의 열매나 유산을 강제로 전용하는 일은 성경 법이 금하고 있다. 성경은 사적(私的) 소유권에 기초한 사회 질서를 수호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출애굽기 22 장에서 볼 수 있는 바, 손해 배상에 관한 다양한 법들은 국가가 도적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권이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소유권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목적들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능력을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에게 양도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가는 그와 같은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권이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법률상의 면제」(legal immunity)를 가리킨다. 주권적 다스림에 수반되는 의무들은 개인과 사회가 사유 재산 제도를 고수함으로써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성경이 사유 재산권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사유 재산은 주권적 다스림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기반이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 성경적으로 어떤 반론을 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소유권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형태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주장일 것이다. 이 국가의 소유권이란 시민법에 의해 세워진 관료 제도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구약성경 공히 모든 재화(材貨)에 대한 공공(公共)의, 즉 국가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들만 엄청나게 많이 있다. 열번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탐내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다. **성경적 사회 질서는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사회 질서이다. 이 금령(禁令)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개인과 제도들에게 구속력(拘束力)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소유하심

재산권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하여 궁극적인 소유권을 가지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소유하신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千山)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이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시 50:10-12).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재산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이같이 정의(定義)하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집단 결사체의 일원으로서의 인간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음에 관한 자료(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을 비롯하여 인간의 모든 주권은 본질상 제한적이고 위임된 것이며 언약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대부금”(loan)을 빌려 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유추해 내고 있다. 그 종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자본의 가치를 증대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그 자본의 진짜 소유자인 그들의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소유권이란 청지기직이다**. 인간의 소유권은 위임된 언약적 권리이다. 하나님의 “대부금”은 자본 소득과 함께, 아니면 최소한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한다(마 25:27).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본을 정당하고 유익하게 관리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진다. 이 자본에는 영적(靈的)인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다 포함된다(눅 12:48).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돈주머니 비유들”(pocketbook parables) 중 하나로서, 일차적으로는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그 외 이차적인 의미도 있으니 그것은 이 비유가 사적(私的) 소유권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비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세계의 자원을 분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들은 이 기본 자산을 유지하고 확장시킬 언약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와 동일한 언약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대상으로 재수립되었다(창 9:1-7). 아담과 하와가 무죄하던 애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자원을 처음으로 분배하신 것은 「인간 이해의 본래적 조화」(original harmony of men's interests)를 위하여 하신 일일 것이다.

이 조화에는 「위계 질서」가 있었다. 이는 하와가 기능상으로 아담에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윤리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해(利害)의 조화는 결코 평등주의적 관계가 아니었다. 타락 이후의 세계에서도 이 조화는 평등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각 “기관”이 조화를 이뤄야 할 유기적 통일체로 흔히 설명되는데, 이 “기관”은 몸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는 하지만 각각 구별된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고전 12 장). 모든 기관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엡 5:23).

하나님의 우주는 질서정연하다. **경제에 관한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다.** 개인의 근면과 부(富), 그리고 게으름과 가난 사이에는 예측할 수 있고 또 합당하기도 한 관계가 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 6:9-11).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잠 13:11).

이는 개인, 가정, 회사, 국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땅 위의 역사 속에서 경건한 사람 또는 조직이라고 해서 모두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은 아니며, 악한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살아 생전에 자기의 부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눅 16:19-31).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언약에 대한 충성」과 「외적 번영」 사이에는 긴밀한 상관 관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악인의 부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것이다(잠 13:22). 이와 동일한 원칙이 국가와 문화와 인종 집단에도 적용된다(신 8 장). 한 사회에서 장기간 빈곤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이다.

언약법은 경제 영역도 지배한다. 부는 열심히 일하고 고객과 정직히 거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마르크스주의 자들과 사회주의자들과 주장대로, 자유 시장 경제에서도 부가 난폭하고 부정직하며 탐욕에 눈이 먼 자들에게 흘러간다고 말하는 것은 경제 생활의 본질에 관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조 세계의 언약적 법칙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신화

자유 시장 체제에 대한 비판은 그와 같은 비판들을 타당한 것으로 받

아들인 사회에 심대한 손상을 끼쳤다. 사람들은 사유 재산 제도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엄격하여 그들을 영구한 노예 신분으로 구속시켜 놓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와 반대로, 자유 시장 제도 이상으로 사회적 신분의 수직 이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질서도 없었다.

수많은 이민 집단들, 특히 동유럽의 유대인 이주자들이 1880 년에서 1950 년 사이에 미국에서 이룬 놀랄 만한 진보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² 오늘날 사회주의 복지 국가의 정책들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극소수의 부유한 시민들에게 평생 의존하며 살게 만들고 있다. 현대의 복지 제도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지 그 제도가 강제력을 사용하여 피고용인들로부터 수입을 빼앗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도의 수혜자(受惠者)들이 그러한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다.

복지의 정치는 또한 계급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조오지 길더 (George Gilder)는 자신의 저서 『부와 빈곤』(Wealth and Poverty)에서 이 점을 설득력있게 지적하고 있다.

소득의 양도와 특혜로써 상대적으로 근면도가 좀 낮은 집단의 수입을 올려 주고자 하는 계획안은 정치적으로 불화의 요인이 된다. 그런 계획은 실질적인 노동 계층의 강력한 저항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와 같은 시도는 노력과 그에 따르는 보상 사이의 심리적 연결 고리를 파괴한다. 사실 이러한 심리적 연결 고리아말로 사회적 신분의 장기적인 상향 이동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효과적인 노동은 단순히 업무 계약서의 요구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고 헌신적인 정신 자세로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얼마 만큼 주느냐에 따라 얼마 만큼 받느냐가 달라진다는 것과 또 재화(財貨)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2. 토마스 소웰(Thomas Sowell), 『인종과 경제학』(Race and Economics, New York: David Mckay Co., 1975), 제 2 부.

는 사실을 깨닫고 느껴야만 한다. 부모들과 학교는 교훈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개념을 심어 주어야 한다.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 노력에 아무 보상이 없을 것이며 이 세상은 약탈하는 자들과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자들만이 출세할 수 있는 황폐하고 차별적인 곳이라는 믿음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가정의 부모들이 그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잃게 할 것이며 그것은 훗날 돈을 벌 능력을 키우는 데도 영향을 끼친다. 인간 행동의 여러 측면들이 그렇듯이, 노동에 진력하는 태도는 가정에서의 경험에서 시작되며 그러한 태도의 근거 또한 출신 가정의 구조를 검토해 봄으로써 탐사(探索)될 수 있다. 사실 사회적 신분의 수직 이동에 노동 다음으로 중요한 두번째 원칙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로 이뤄지는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다.³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경제 성장의 토대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개념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노동과 대가」 사이의 관계와 「가정이라는 유대 관계」의 핵심적인 중요성이다. 사람은 노동과 보상의 관계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은 개인의 노동 습관을 개선시키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 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사람을 격려한다.

성경은 지상에서든 하늘에서든 그와 같은 노력에 보답이 주어지지 않는 예는 없다고 말한다(고전 3 장). 절제하고, 근검하며, 장시간 노력하는 습관을 갖고, 노동 기술을 연마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이러한 생활 철학에 의해 자녀를 교육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고갈되는 자본”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인생에 대한 그와 같은 접근 태도야말로 주권적 다스림 언약의 정수(精髓)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의 축적과 주권적 다스림에 관한 성경적 철학에 반대되는 철학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

3. 조오지 길더, 『부와 빈곤』(Wealth and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1981), pp.68-69.

‘자본주의(자발적인 교환을 뜻하는 자유 시장) 체계는 사람들에게 엄격하다, 사람은 복지 기금에 대한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자신의 노동과 노력과 선견지명의 결과로 잘사는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또 그들은 그 부의 대부분을 가난한 자들에게서 빚지고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인식해야만 한다. 그 근원은 지옥의 불꽃이다. 이것은 성경의 철학에 대응하는 사단의 철학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정복하려는 경건한 사람들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표명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반(反)성경적인 이 철학은 단순한 지적(知的) 오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멸망의 철학」, 허위적인 죄책감과 의식의 마비를 수단으로 하여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체계적인 반(反)성경적 구조이다. 이십 세기 후반에 들어서 기독교 지성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교훈들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성경적 윤리와 경제 이론에 관해 전적으로 무지(無知)하다는 것, 실로 판단력이 전무(全無)하다는 것(마 3:14,15)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 특히 대학과 신학교의 강단으로부터 「시기의 정치학」(politics of envy)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죄의식을 조작하는 자들이 들끓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다.

소유와 민주주의

도덕질을 금하는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되, 다수결에 의한 도적질은 예외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 사유 재산권은 범죄자들에 의해서만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수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부를 착취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대개의 시민들에 의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사유 재산권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도 존중되어야 하는바, 이들은 굳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관세, 수입 할당제,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정부 대부금 등의 경제 적 도움을 국가에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다른 형태인 소위 “조합 국가”(corporate state), 즉 파시즘(fascism)이나 독점 자본주의 등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이와 같은 체제가 구축될 때마다 생산성은 저하되었으며 관료화는 증대되어 왔다. 정치인들은 단순히 전체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만 능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 계획을 세우고 산업을 보호하는 체제를 진흥시키려고 하는 것은 투표함을 불법 이용하는 것, 즉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서 압력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1640 년의 청교도 혁명 이래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 예(例)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재산의 유무에 의해 투표 자격이 부여 될 수 있는가”(the property qualification for voting)하는 문제 이다. 1640 년대에 영국 청교도 군대의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롬웰 (Oliver Cromwell)은 찰스 I 세에 대항하여 그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다. 1647 년 크롬웰의 신식 군대에 대한 푸트니 논쟁 (Putney Debates)에서 크롬웰의 양자인 아이어튼(Ireton)은 민주파인 「수평파」(Levellers)의 대표 레인스버러(Rainsborough)와 토론을 벌였다(수평파는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었으나 좀더 광범위한 참정권을 주장하였다. 청교도 혁명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디거스」(Diggers)파였고 이들은 자칭 “진짜 수평파”였다).

레인스버러는 모든 국민이 다 국가의 법 아래 있으므로 그들 모두 시민 정부의 일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아이어튼은 자기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이에 맞섰다. 투표권을 부여받으려면 사회에서 어떤 밀천, 즉 방어해야 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회에서 영구한 소유권, 바뀔 말해서 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 정부의 권력을 이양받았을 때 매우 위험한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재산의 유무에 따라 투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한 사회에서 민주적 질서가 유지되느냐의 여

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하여 만약 우리가 이 원칙을 제거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유산에 의해서 또는 매입에 의해서 또는 다른 무엇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득을 제거해 버리게 될 것이다...”⁴

200 년 후에 칼 마르크스는 이와 상당히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단지 예외가 있다면, 재산의 유무에 의해 투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폐지하는 편을 택했다는 점이며, 그 이유는 그래야만 사유 재산 제도도 폐지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 국가다운 국가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유 재산」을 폐지한다(즉, 인간은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사유 재산의 ‘폐지’를 결정한다)... 무산자(無產者)가 유산자(有產者)를 위하여 법을 만들게 될 때 사유 재산은 이상적으로 폐지되지 않겠는가? 재산의 유무에 의해 선거권이 부여되는 제도는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정치의 최종적 형태이다.”⁵

다른 사람의 부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투표를 하는 것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한다면, 민주주의는 안전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있게 될 날(히 8:8-11),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오용하지 않을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때까지 죄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에, 파시즘에, 공산주의에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 것이다.

4. 우드하우스(A.S.P. Woodhouse), 『청교도주의와 자유』(Puritanism and Liberty, London: Dent, 1938), p.53.

5. 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관하여”(On the Jewish Question/1843), 보터모어(T.B. Bottomore) 편, 『칼 마르크스: 초기 문집』(Karl Marx: Early Writings, New York: McGraw Hill, 1964), pp.11-12.

보호자로서의 국가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산의 교환과 양도와 증식의 법칙을 세우셨다. 도적질은 명백하게 금지된다. 하나님의 법은 도적질을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판례법(判例法)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하나 따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신 23:24,25). 그러나 농부가 이삭줍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밭에 이삭을 남겨놓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신 24:19). 성경은 과연 어떤 것이 도적질이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표준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도 칼 마르크스도 그런 표준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부가 재산 보호자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신다. 정부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소유권에 대한 법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이웃의 밭에서 옥수수 몇 개를 따간 사람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하였으나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았다(마 12:1). 정부는 농장 소유주가 이삭줍기를 허용하는 법을 지키도록 합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부가 정해 주지는 못한다.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일에 대한 관할권은 그 밭의 주인에게 있다(룻 2:3-12).

도적질과 재산의 보호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현대 사회주의나 현대 자유주의 어느 것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관료주의적 정치 기구에 의해 세분된 목적들을 위하여, 국가가 그것도 수차례씩 하나님의 십일조를 스스로 거둬들인다.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사유 재산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모두 도적질로 규정되며 심지어 세금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 타당성 있는 표준은 성경의 표준뿐이며, 그 표준은 아주 분명하다. 즉,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제도에게도 절대적인 주권은 없다는 것이다.** 사유 재산의 사용에도 제한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사소한 것들이

다. 절도에 대한 성경의 표준들을 적용한다면, 시민 정부는 절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합법적인 주권자가 된다. 정부는 절도범들에게 재산형(財産刑)을 부과할 법적 권위를 지닌 기관이되, 정부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경제학자인 코우스(R.H. Coase)는 “자원(資源)에도 사유 재산권이 창시되지 않는 한, 사기업 체계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자원에도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면,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해야 한다”⁶⁾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시민 정부가 절도 행위에 대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존해 주는 것 자체가 성경적 자본주의의 토대이다. 경건한 시민 정부는 소유권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리고 난폭한 사람의 강제적 침범과 자기 행각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해 줌으로써 경제 성장과 번영의 기초를 확립한다.

“내 것”과 “네 것”이라는 말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성경적 설교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단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 것”과 “네 것”의 차이점이 법적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도 존중될 때 사회는 윤택하게 된다. “내 것”과 “네 것”을 인정하는 사회 질서에 의하여 제공되는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로운 거래를 통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분화(分化)를 용이하게 해준다.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임금 투쟁을 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협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들이 무엇을 소유했든 그것으로써 그들

6. 코우스, “연방 통신 위원회”(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법과 경제학 저널』(Journal of Law and Economics), II권(1959), p.14.

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마 20:15).

경제학자인 해롤드 딘세츠(Harold Demsetz)는 「사회 협동」의 관점에서 재산권의 중요성을 살피고 있다.

재산권은 사회의 한 도구이며, 재산권의 중요성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서 연원한다. 이러한 기대들은 법률과 관습과 사회의 규칙들로 표현된다. 재산권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처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소유했다는 것이다.⁷

사람들은 상호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자신이 내린 결정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아주 친숙해진 주제로 돌아와서, **재산권은 인생의 불확실 지대를 줄여 준다.**

구원자로서의 국가

국가는 현대 세계의 메시아적 제도이며 자본의 파괴자이다. 몰록 국가(Moloch state : 성경에 나오는, 인신 제사를 받는 우상인 ‘몰록’처럼 절대화된 국가-역자 주)는 그 경배자들의 경제적 장래와 그 후손들의 경제적 미래까지도 태워 없앤다. 몰록 국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과 같이 경제에 있어 강제적이며 자본을 파괴하는 집행인이다. 그러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7. 딘세츠, “재산권 이론에 대하여”(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1967), 푸루보튼(E.G. Furubotn)과 페요비치(S. Pejovich)편, 「재산권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Property Rights*, Cambridge, Massachusetts : Ballinger, 1974), p.31.

생산적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저가(低價)의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환경 오염 억제 장치를 설비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저가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가는 관리들만 고용할 뿐이며,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회 구성원들(이들 중에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도 있다)을 매수하는 일에 국가의 기금을 널리 사용하여 그들을 약속된 혜택의 그물에 사로잡아 놓고 소비자들의 유익을 위해 노동하려는 동기를 파괴시킨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앞날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자본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자본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중앙 정부에게 재정 원조와 면세 혜택과 다른 사람이 흠친 경제적 재화들을 요청하는 주요 산업체의 중견 간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극빈자들 역시 현대 경제 사회에서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 기술들을 획득할 기회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의 재산을 징발해가는 국가는 공기나 수질(水質)을 오염시키는 한 지역의 공장보다 재산과 자유에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이다.

현대 국가는 인간의 권리들에 대한 위협이다. 현대 국가는 곧 재산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는 인간 권리의 파괴자이다. 현대 국가는 재산권의 파괴자이기 때문이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지식인들, 정치가들, 부자의 아들들은 자본을 파괴하고 결국은 인간의 포부까지 파괴하는 부의 재분배 이데올로기를 진작시켜 왔다. 그들은 인권과 재산권 모두를 파괴하기 위하여 “재산권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오도(誤導)된 슬로건을 이용해 왔다. 그들은 “도적질하지 말라. 단, 다수결에 의한 도적질은 예외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계명으로 채택해 왔다. 그 결과는 기독교적 서구 사회가 점차 자본을 박탈당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코 망각하지 말자. 인류의 구원자를 자칭하는 국가는 반드시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 핵심 내용 요약 ❁❁❁❁❁❁

소유권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청지기직(stewardship)에 대한 교리이다. 하나님의 재산은 그분의 종들에 의하여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종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작정하였으며 도적질을 금하는 그분의 계명도 무시하기로 작정하였다. 현대인은 새로운 신학, 즉 국가에 의한 재산 소유권을 채택하였다. 주권적 소유자로서의 국가는 자기 종들에게 그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위임하나, 곧 자기 몫, 즉 십분의 일 세금을 요구한다. 십일조의 원칙은 피조계에 대해 세워져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누가 그 십일조를 받느냐” 하는 것뿐이다. 지금은 국가가 그 십일조를 거둬들이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이제라, 그러면 국가가 그대와 더불어 이길 것이며, 지면 그대만 질 것이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것이 바로 부자와 중산층을 위한 법칙이다.

현대 국가는 도적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을 선출하는 일에 대하여 그 민족에게 경고할 때, 그 왕이 10 퍼센트의 세금을 거둬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겁주었다(삼상 8:15-17). 고대 세계의 가장 관료적인 왕조인 애굽은 20 퍼센트를 조세로 거두었다(창 47:26). 그러나 서구 공업 국가 중 애굽이 거두었던 것보다 세금을 더 적게 거두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한 국가 총 생산량의 오분의 일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면 현재 징수되는 세금이 적어도 50 퍼센트는 감소될 것이다.

사유 재산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사유 재산은 사람들에게 생산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인간의 지평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까지 확장시켜 준다. 또한 사유 재산은 구태의연한 것을 혁신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로 하여금 생산성

중대의 가치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 사유 재산은 근검(勤儉)을 촉진시킨다. 사유 재산은 본질상 가정적인 것이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주권적 다스림이 촉진될 수 있게 해준다. 사유 재산은 소유권에 따르는 경제적 책임을 기꺼이 지려 하고 또 질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정보와 모험과 자본을 양도해 주는 것을 허용한다. 사유 재산의 보호는 문명을 지탱하는 주춧돌 가운데 하나이다. 시민 정부는 사유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되며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메시아적 국가의 발흥은 문명을 위협해 왔다. 오늘날 가정 자본을 보존하고 확장시키는 데 최대의 유일한 위험은 바로 메시아적 국가이다. 강제력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시기(猜忌)의 이데올로기들, 이를테면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케인즈주의, 사회복음주의는 지성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이런 추세가 역전되지 않는다면 이 반(反)성경적 원리들이 현대 세계의 자본을 다 박탈하고 말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는 언약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저주가 포함된 서약이 없다.
2.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은 자유 시장 체제를 핵심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아 왔다.
3. 제 8 계명은 도적질을 금하고 있다.
4. 사유 재산권(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은 주권적 다스림의 기본이다.
5. 기독교 경제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소유하신다는 전제와 더불어 시작한다.
6. 인간의 모든 소유권은 곧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청지기적이다.
7. 경제 제도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8. 부(富)의 평등이란 사단의 목표이다.
9. 성경은 가난과 게으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르친다.
10. 장기간의 빈곤은 반역적인 사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이다.
11. 부(富)는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 간다.
12. 자유 시장은 최대의 사회, 경제적 상향 이동 기회를 제공한다.
13. 복지 국가의 정치학은 계급 투쟁을 가르친다.
14. 자유가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에게 엄격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15. 사회주의는 고의적인 파괴의 철학이다.
16. 재산 없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다면 그 사회는 원칙적으로 사회주의화된 것이다(칼 마르크스).
17. 시민 정부는 보호자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
18. 그 일에는 재산권을 규정해 주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19. 보호자로서의 국가는 사회적 협동을 그 목표로 한다.
20. 현대 인본주의 국가는 인류의 구원자(및 최후의 심판자)가 되고자 한다.
21. 현대 사회주의는 세계의 자본을 박탈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해방의 불가피성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 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 니라”(신 8:18).

본문은 성경법(Biblical law)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독교의 진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 관건이 되는 구절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한 사회에 선물들을 주신다. 이 선물들(은사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인간의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런 선물들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언약에 신실해지며 이러한 신실성은 다시금 복을 더해 주는 결과를 낳는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은 언약을 확증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부(富)를 주시으로써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간의 충성이 ‘자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순환되는 가시적 체계’(visible positive feedback system)가 창조된다.

성경적 역사는 직선형(直線型)이다. 성경적 역사에는 시작(창조)

이 있고, 뜻(죄와 구속)이 있으며, 종국(최후의 심판)이 있다. 어거스틴(Augustine)이 이교(異敎)의 순환적 역사에 대항하여 직선적 역사를 강조한 것은 서구의 역사 사상을 변혁시켜 놓았다.¹ 그러나 성경적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넘어서서, 역사의 '진전'을 이야기한다. 성경적 역사관에는 가시적(可視的) 문화 확장이 포함된다. 문화의 진보에 대한 이 믿음은 현대 서구 문명의 독특한 특징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 낙관적인 전망은 17 세기의 계몽주의 사상가들과²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³ 세속화되었으며, 이십 세기에 들어 이러한 전망이 퇴색해감으로써 서구 인본주의 문명은 그 존속을 위협받고 있다.⁴

주권적 다스림의 신학 대(對) 회의주의

인간의 역사에서 승리는 회피될 수 없는 개념이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든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 승리하든, 승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언약 파괴자들이 성경법에 대항하고, 외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반신적(反神的)이며 반(反)성경적인 전제들을 고집하게 될 때, 그들은 역사적으로 무능해질 것이다.

우주의 어느 곳에도 중립 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적(知的), 도덕적 중립 상태란 없기 때문에, 문화에나 시민 생활에나 다른 어떤 종류의 공공 제도에도 중립 상태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세계

1. 찰스 노리스 코크레인(Charles Norris Cochrane), 『기독교와 고전 문화: 아우구스투스에서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의 사상과 행동에 관한 연구』(*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 A Study in Thought and Action from Augustine to Augustine*,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1944) 1957), pp.480-83.

2. 니스벳(Robert A. Nisbet), “서기 200 년과 그 모든 것”(The Year 2000 and All That), 『논평』(*Commentary*, 1968. 6).

3. 리(F.N. Lee), 『공산주의 종말론』(*Communist Eschatology*, Nutley, New Jersey: Craig Press, 1974).

4. 니스벳, 『진보 개념의 역사』(*History of the Idea of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1980), 제 9 장과 결어.

판이 생산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공되는 해방인가, 아니면 칼 마르크스에 의해 제공되는 해방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긍정적인 복을 제시하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역사 속에서 승리가 확실시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직 종말에 가서야, 즉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야 비로소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 패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라. 이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에 비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빌 2:12), 자신들이 믿는 바를 개선해 나가고 그 신조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서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배우고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법을 능숙히 적용하게 될 때, 그들은 문화적으로 무력한 사람이 된다. 그들은 메말라가게 되며 또한 그렇게 여겨진다. 그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며 중다(衆多)하게 되지도 않는다. 혹 그들이 이 계명을 좇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채로 있을 것이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적이며 도덕적인 자기 각성을 증진시켜나가면, 문화 창달에 전적으로 무력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반면에 반역자들이 반법주의(antinomianism) 철학, 이를테면 진화론적 혼란의 종교나 혁명의 종교를 발전시킬 때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된다. 서구의 과학 기술과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하나님과 사람과 법률과 시간에 대한 전제들을 떨쳐버릴 때,

그들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나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될 때, 그들은 의인이 맺는 열매를 전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심판의 날을 제외하고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잠 13:22)는 성경 말씀이 참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심판날 이후,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정한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만약 교회가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언약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적인 승리를 복으로 주시는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승리한 인본주의자들의 물질적인 부를 그대로 물려받는 일은 아예 없을 것이다. 죄에서 해방된 부활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부활 이전 세상의 오염된 문화적 누더기들을 물려받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겠는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반신적(反神的)이며 시종일관한 인본주의자들이 축적해 놓은 부를 죄를 떠난 불멸의 사람들에게 돌려주시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이 좋은 일이겠는가?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인본주의자들이 부활 이전의 하나님의 세상을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의 세계는 법칙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언약적 법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러나 시종일관한 죄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제에 충실하게 처신하고 있는 체하면서 그와 같은 언약적 법칙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명백히 거부하곤 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의 승리의 토대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승리의 원리를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 구조와 연결하여 논의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다스림의 도구는 자신이 계시하신 법(法)이다.** 성경법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장기적인 승리에의 모든 희망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한 성경법에 헌신하기를 포기한다면 당신은 반법주의자가 된다.

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실패하리라 예언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종식되는 최후의 날까지는 사단이 역사의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계 20 장). 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하고 민족들을 제자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사명에 실패한다. 이것이 비관주의자의 역사 이론의 핵심이며 정수이다. 교회는 실패한다. 비관주의자도 승리를 언급할 수 있다(사실 비관주의자들의 말은 의기양양한 수식어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의미하는 것은 역사상의 패배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나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명하신 피조계 앞에서는 당당하다. 그들에게는 성경법과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상의 패배와 재앙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관주의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것이 어찌서 실패를 낳는단 말인가? 복음의 메세지가 선했던 열매를 맺을진대, 어찌서 그 메세지가 실패한다는 것인가?

윤리에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여, 모든 자연이 개연성(蓋然性)이라는 의미없는 법칙, 즉 도덕의 혼돈을 포함한 궁극적 혼돈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실패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언약 파기자들은 도덕적, 혁명적 혼돈의 철학, 즉 혁명의 종교에 몰입함으로써 어떻게든 지구 전역에 걸쳐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 승리는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 개입에 의해서만 중단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무법(無法)에 헌신하는 것이 외적(外的)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면은 차지하고, 신학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다.

악(惡)의 지렛대로서의 선(善)

언약 파기자들은 악을 행할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외적으로 선

을 행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도(反徒)들은 그들 나름의 종교적이며 지적(知的)인 전체들에 일치되게 행동할 수는 없으면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들은 철학적 일관성보다는 권력을 더 원한다. 이것은 특별히 기독교의 주권적 다스림의 신학 그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서구의 언약 파기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언약 파기자들은 그들 자신의 철학적 일관성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효력을 발하는 것을 억누르고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비록 무법칙성과 혼돈과 무의미를 믿기는 해도 든든한 구조(structure)와 수련(discipline)과 화려한 문체로 궁극적 승리를 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교(異敎) 문화를 실제로 보고자 하는 현대의 탐험가가 있다면 “이크”(Eek)라는 아프리카의 부족을 찾아가 보라. 콜린 턴벌(Colin Turnbull)이 바로 그 부족을 찾아가 본 사람이며 그의 저서 『고산족』(*The Mountain People*, 1973)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고전(古典)이다. 턴벌은 그곳에서 가정법, 시민법 등 모든 법이 거의 완전하게 반역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거기서 그는 급속히 소멸해가고 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부족을 보았다. 이런 그들이 서구 사회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서구의 사단 숭배자들보다 더욱 철저한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인본주의적 권력 추구자들과 좀더 일관성있되 자멸적(自滅的)인 이교(異敎) 종족들의 차이점은 곧 공산주의자들과 이크족의 차이점이다. 이는 또한 권력 종교와 도피 종교 간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금욕(禁慾)이라는 기술로 세상과 단절됨을 통하여 도피처를 찾는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나 알파(α)파(波) 기계와 이어폰(earphone)을 가지고 [즉각적인 전기 요가(yoga) 수도자가 되어] 그것을 흉내내는 서양인들은 공산 혁명가보다 더욱 일관성있게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반(反)기독교 철학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요가 수도자가

완전히 일관성있는 것은 아니다. 요가 수도자에게도 수련 기술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수련은 질서정연한 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가 수도자가 공산주의자보다 일관성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가 수도자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 사단의 비밀관성

사단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명령 계통을 필요로 한다. 교회에 최대의 피해를 주기 위하여 사단과 그 추종자들은 교회를 모방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뺨을 때리기 위해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야 하는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반역자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신학을 조악(粗惡)하게나마 모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을 생각을 거부하는 아이는 아버지의 뺨을 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반(反)그리스도인들은 실존에 대한 “반(反)무릎” 이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해 왔다. 그런 사람은 무릎과 뺨 사이의 인과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이러한 견해에 더욱 일관성있게 행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데는 무능력하게 된다.

이것은 일관성있게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사이에 있는 ‘윤리적’ 측면의 격차가 더욱 본질적인 격차가 된다는 뜻이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과 얼마나 다른지를 더욱더 인식하게 되지만, 권력을 추구하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자기 이해를 더해가면 궁극적으로 무의미와 혼돈밖에 없는 사단 철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에 대한 사단의 모조품인 권력 종교를 적용하기에 이르른다.

불신자들은 혼돈뿐인 사단의 종교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거절할 경우에만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최대의 파괴를 낳기 위해서는 불신자들도 조직과 자본, 즉 생명, 지식, 법률, 시간 등의 하나님의 선물들

을 필요로 한다. 서방 세계를 파괴하기 위한 병기고를 건설하기 위하여 늘 서방에서 그 기술을 수입하거나 훔쳐야 했던 소련과 같이,⁵ 사단 승배자들은 교회에 대항하여 효과적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기독교의 지적 자본과 도덕적 자본을 수입해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견지(堅持)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를 맞춤으로써, 즉 도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일치되게 행함으로써,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법에 더욱 가까이 착념함으로써 다스림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언약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의 법은 다스림의 주권의 도구, 완전한 자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도구이다.

둘째, 언약 파기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무법칙한 자신들의 철학에 철저히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도용(盜用)함으로써만 효과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저지르고자 하는 죄악이 크면 클수록(윤리적으로 악한 충동), 그는 더욱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도덕적으로 정당한 충동 이룰테면 그 일에 사용될 비용을 계산하는 것 따위(눅 14:28-30)).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삶을 통하여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에게 반대하는 자는 성경적 세계관을 훔쳐내어 악한 목적을 위해 그것을 왜곡시킴으로써만 그리스도인들, 곧 마약과 도박으로 지탱되는 철저히 사단적이고 자멸적인 삶과 대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작전을 벌일 수 있다.

5. 서튼, 『돈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적』(*The Best Enemy Money Can Buy* Billings Montana : Liberty House, 1986), 소련의 서구 수입상품들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살펴보면 역시 서튼 저 『서구의 기술과 소련의 경제 발전』(*Western Technology and Soviet Economic Development*), 제 3 권(Stanford, California : 후버 연구소 출판부, 1968-1973)과 찰스 레빈슨(Charles Levinson)저, 『보드카 콜라』(*Vodka Cola* London : Gordon & Cremonesi, 1978)와 조셉 핀더(Joseph Funder)저, 『붉은 카펫』(*Red Carpet*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83)을 보라.

간단히 말해서 ‘진짜 악하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모든 자들이 죽음을 사랑한다고 말한다(잠 8:36). 그러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에 부합되게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Albert Camus)가 자살의 가능성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무의미의 철학에 일치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적인 위협이 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궁극적 충동을 억제해야만 한다. 즉, 죽음에 대한 탐구를 억눌러야 한다.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대되는 그들의 자기 일치는 최후의 반역 때, 곧 그들의 반역 행위가 최후의 심판에 붙여질 때에야 비로소 극에 달하게 된다.

이는 군중들을 끌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게 했던 과거 사단의 오만한 시샘 행위의 절정을 이룰 것이다. 사단의 그 행위는 완전한 심판과 패배를 자초한 폭력적 행위였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단은 양값음을 하느라고 그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자살 충동을 억제시키시던 고삐를 제거하실 때 그들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모반(謀反)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억제의 고삐를 치우시는 것은 심판의 서곡(序曲)이다.

이와 같이 윤리적인 전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이다. 이처럼 치열해지고 있는 윤리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주시는 것으로 예상해야 하는가? 일관성있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니면 일관성없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세계관을 지닌,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인가? 시간이 흘러가고 자기를 이해하는 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늘어나는 도덕적, 지적 자기 분열 증세를 나타낼 자는 누구이겠는가? 자신의 존재 철학과 일치하지 않는 정복 계획을 지닌 자는 누구이겠는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인가? 진정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가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겠는가, 반(反)그리스도인이겠는가?

그 대답은 명약관화하다. 이십 세기 기독교계의 설교에는 불행한 일이지만, 비판주의적 신학들이 분명한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1930년대 이래로 그런 신학들이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비판주의는 사태를 퇴보시킨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법과 피조계 사이의 관계를 비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퇴보적이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다. 말할 것도 없이 사단은 그것이 참된 해석이기를 바라고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성경의 법에 집착함으로써 문화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자기 추종자들이 믿게 되길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단은 틀림없이 자기 추종자들이 이 터무니없는 오류를 믿게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관성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경법을 고수하는 것이 문화적 무능을 낳고 반대로 철학적 카오스(chaos), 즉 사단의 혁명 종교에 헌신하는 것이 문화적 승리로 이어진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나로서는 비판론자들이 그와 같은 설(說)을 가르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비판론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결론으로 이어진다. 비판주의자들은 언약적 복의 「긍정적인 환류」(positive feedbacks) 현상, 즉 순종으로 말미암은 복이 더 큰 순종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에 의하여 최후의 심판 이전에 지상에서 장차 그리스도인이 주권적 다스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의 법은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을 성취함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주권적 다스림을 행할 수 있는 도구이다. 법에 관해서는 오로지 네가

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그것은 계시된 법, 자연법, 혼돈(chaos), 그리고 위의 세 가지 법을 혼합하여 결합시킨 법(예컨대 통계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성’이 바로 그런 예로서 약간의 자연법에 약간의 무법칙성이 섞인 것이다) 등이다. 금세기의 기독교적 사상은 첫번째 가능성, 즉 구약의 법률이 신약 시대에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부정해 왔다. 그래서 비판주의적 기독교 신학자들이 성경법을 현대에 적용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쓴 글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법을 다시금 진지하게 취급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인본주의 운동도 교회의 확장을 후퇴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성령에 의해 권능을 받음

그리스도인은 신약 시대의 성경법을 구약 시대의 언약과 구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큰 능력을 부어 주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점이다.⁶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근본적인 구분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더욱 큰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이 사실이 구약 시대의 신자들이 거듭 실패한 일, 즉 복이 더 큰 믿음을 넣고 이 믿음이 다시 더 큰 복을 얻도록 하는 이 「긍정적인 환류」 양식 가운데 그들이 계속 머무르지 못한 일과 뚜렷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이 반드시 역사상에 증시(證示)되어야만 한다. 성경의 법을 미래를 향한 낙관론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 성경법의 이 긍정적 환류 양상이다(주권적 다스림의 신학).

6. 그레그 반슨(Greg L. Bahnsen), 『이 표준에 의하여 : 현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법의 권위』(*By This Standard: The Authority of God's Law Today*, Tyler, Texas : 기독교 경제 연구소, 1985), pp.159-62, 185-86.

성령의 큰 권능이 역사 내에서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더욱 큰 힘을 주신다는 것이 역사에 대한 일종의 이론적 배경에 불과할 뿐이며 따라서 성경의 법은 이 최후의 심판 이전 시대에는 전파되지도 순종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역사 내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사회에 능력을 부여 주신다는 사상 전체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

“물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안에서는 성경의 법을 채택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열매들은 엄격하게 내적인 것들뿐이고 외적인 열매는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언약법의 긍정적 환류에 어떤 잘못이 있단 말인가?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일에 무슨 고장이라도 생겼단 말인가?

필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큰 권능을 내려 주시는 것이야말로, 신약 시대 성경법의 비효율을 말하는 반(反)주권적 다스림의 입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그때는 긍정적인 환류 과정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은 “영광에서 영광에”(고후 3:18) 이르기까지 파조계가 지니는 양상, 즉 법의 지배를 받는 양상의 일부이다. 만약 교회의 어떤 분파가 그 법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분파들은 영향력과 돈과 권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차지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 교회들은 언약의 외적 복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 교회들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법의 긍정적 환류 현상이다.

만약 언약의 긍정적인 환류 작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주권적

다스림을 장기간 확장하게 되리라는 역사적 불가피성을 배격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커다란 문제 하나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약의 교회와 구약 이스라엘 사이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성경의 법과 복음의 권능에 의해 가시적(可視的) 왕국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종교를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 어찌서 교회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구약의 이스라엘이 의미심장하게 개선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와 같은 신학은 복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 내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권능을 제공하는가? 사단이 아담을 시험하는 데 한 차례 성공한 것은 역사 안에서 결코 극복되지 못할 것인가? 사단은 아담을 거꾸러뜨림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실 앞에서도 역사 내에서 다스림의 주권의 언약을 이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영원히 자위하게 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성령께서 권능 주신 성경의 법 질서가 가시적 왕국을 건설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역사 속에 승리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불경스럽지만 불가피한 물음이 하나 생기게 되니, 그것은 “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패배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문화적인 면에서의 종말론적 무력함을 설교함으로써 스스로 유사(流砂 : 해안 등에 있으며 배나 동물 따위를 빨아들이는 모래 - 역자 주), 반법주의의 유사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빨아들이는 속도가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빠른 유사도 있다. 마침내 그 모래들은 그곳을 지나가려고 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모두 다 삼켜 버린다. 반법주의는 사람을 무능과 퇴보의 구렁텅이로 이끈다.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령관이 지휘하는 전투에 목숨을 포함하여 자기

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강심장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신학으로 게토(ghetto : 유대인 집단 거주지를 말하나 흔히 빈민 지구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 역자 주)는 형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문명은 건설할 수 없다.

성경법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성경법은 문화 재건의 도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법은 신약 시대인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법으로 여겨져야 한다. 또한 언약에 대한 충성과 성경법에 대한 순종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의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즉, 성경법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감정적으로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복음이 (얼마 동안은) 아무리 달콤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충성은 없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법 질서에 언약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외적인 복이 따른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패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것과 똑같은 방법, 곧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이긴다. 죄악된 세상을 흉내냄으로써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자들의 권력 종교를 본받음으로써 더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 자의식」을 갖도록

부름받고 있다. 이 윤리적 자의식에서 자기 이해의 정도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윤리는 근본적인 문제(fundamental issue)이지 철학적 지식이나 정치적, 군사적 권력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면 지식에 관한 성경의 원칙들을 이해하는 정도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조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3-5).

문제는 철학적 엄격함이 아니라 ‘복종’이다. 결국에 가서 교회의 지혜와 철학적 엄밀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바로 복종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사단의 추종자는 지적(知的)인 면에서 교회와 경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mind : 知性)을 가졌기 때문이다(고전 2:16).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 미치게 되거나 자살하게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반신적(anti-God) 존재들의 논리를 따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억제시키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살 충동도 억제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 안에서 중생치 못한 자들의 협력과 부가적인 생산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억제시키심이 없다면 그들은 전적으로 무력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경쟁적 나라들과의 어떠한 공개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사실이 해당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은 사단적인 세상 체계가 점점 극악해져가며, 악이 점점 흥성해가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점점 쇠퇴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의(義)의 나라는 불공평한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공평한 싸움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적인 패배자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책임 회피

비관적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자신들이 사회적, 지적, 문화적, 경제적 인 공개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경법을 법과 질서의 토대로 확립하려는 모든 시도는 잠재적 독재자를 천거하는 것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정말 자의식적인 기독교 사회를 건설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들은 전체적 세력(*tyrannical force*)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 틀림없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권력 종교를 폐퇴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승리를 제시하는 계획안은 모두 비장의 무기로서 권력 종교에 필적할 만한 세력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권력 종교의 세계관을 타당한 것으로써 받아들여 왔다. 그들은 권력이, 오로지 권력만이 성공적 정치 프로그램의 기반이라고 결론내려 왔다. 그들은 “권력(그리고 여타의 모든 것)이 총구(銃口)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말을 받아들여 왔다. 그들은 현재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오래 지속되는 권위는 주권적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전략, 성경법 아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전략이 밑바닥에서부터 확장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법이 사회 안정과 번영을 낳는다고

믿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주권적 다스림을 전제적 권력으로 오해하고 또 ‘기독교적’ 전제 정치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적 다스림의 책임을 두려워하면서, 인본주의의 정치 전략 중 용인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채택하여 권력을 가지려고 하며, 주권적 다스림의 종교에 대항하여 인본주의적 권력 종교가들과의 연합을 추구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개적 무대에서 도피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사람으로 하여금 주권적 다스림을 행하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의 지성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대체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mind)을 소유하고 있는(고전 2:16) 중생한 자들의 마음이 사단의 마음(mind)을 가지고 있는, 거둬나지 못한 자들의 마음보다 주권적으로(dominically) 우월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와 지성의 전투장에서 자꾸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들은 가시적(可視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패퇴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종말론(주로 무천년설을 염두에 둔 표현임—역자 주)들을 고안해 냄으로써 이런 거듭된 후퇴를 정당화해 왔다. 이것은 항복의 표시로 백기를 드는 것을 좀더 용이하게 해준다. “패배 이외에 우리가 달리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데...”

우리의 적들은 승리에 대한 성경의 비전과 섭리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도적질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게 이 교리들을 뜯어고쳤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모든 것을 흠쳐내가 자기들의 병기고에 두고 있는 적군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칙을 만드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대적들은 무엇이 승리하는지를 알고 있다. 만약 사단의 추종자들이 사단 고유의 혼돈의 교리를 고집한다면 사단은 이길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비전과 세계관을 훔쳐간 것이다.

누가 그와 같은 승리의 프로그램을 채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갈보리에서 어느 쪽의 사령관이 그 대적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혔는가?(창 3:15) 틀림없이 교회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창 32:25) 절름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발뺨꿈치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시피(창 3:15), 교회의 발뺨꿈치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원수의 머리는 박살이 났다. 싸움이 진행될 때 당신은 어떤 상처를 입고 진군(進軍)하고자 하는가? 박살난 머리인가 아니면 상처입은 발뺨꿈치인가?

오늘날은 불신자들이 문화적으로 우세한 듯이 보인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인본주의자들이 이따금씩 빵조각을 조금 떨어뜨려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밥상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있는 개들로 여겨 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해 걱정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급(二級) 시민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부과한 이 “이급 시민” 의식을 책잡아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지상을 다스릴 주권을 위한 다섯 가지 교리

신자들은 일 세기 이상 반법주의적인 경건주의와 비관주의 속으로 후퇴하여 왔다. 이 후퇴는 18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때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장악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승리에 의 비전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전진을 가능케 하는 기독교 사회 철학의 다섯 가지 특징들 중 한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다섯 가지 국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둘째 /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언약

셋째 / 그 언약의 도구인 성경의 법.

넷째 / 성경적 전제주의(presuppositionalism), 즉 만물에 대한 궁극적 판단의 근거인 무오(無誤)한 성경의 자기 검증적 진리.

다섯째 / 「종말론적 낙관론」의 역동성.

따라서 우리는 현대의 인본주의 문화가 붕괴되는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중생한 자들이 한때 상실했던 신학적 유산, 즉 주권론적 낙관주의와 성경의 법에 관한 통찰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다섯 가지 사항 모두를 왜곡 해석하여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그들은 “프롤레타리아의 전위”인 무오(無誤)한 공산당이 오늘날 명백하게 증시하고 있다시피, 인간의 주권을 믿는다.

둘째로, 그들은 한 언약을 믿으니, 그것은 공산당의 당원 자격으로서 이 언약은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갖는다.

셋째로, 그들은 사회주의 법률과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의 모든 것이 독특한 한 철학의 산물이라 믿는다. 그들은 일을 성취하는 그들의 독자적인 방식을 믿는다.

넷째로, 그들은 변증법적 역사의 비인격적 세력의 섭리를 믿는다. 이 섭리는 어떤 역사 시기에 오로지 그들의 지도자들만이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섭리이다. 당(黨)은 그들의 “경전”(經典)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오류한 판결을 집행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무오한” 책들 이외의 다른 어떤 논리나, 다른 어떤 권위의 원천에도 호소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완전히 신

봉한다.

다섯째로, 그들은 낙관론자들이다(어쨌든 소련 이외의 나라에서는). 그들은 역사의 힘이 그들의 역사적 승리를 보증해 왔다고 믿는다. 그들은 장차 마르크스주의가 불가피하게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혁명적 폭력의 권능을 믿는다.

급진적인 이슬람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확신을 볼 수 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역사적 라이벌이다.

첫째로, 모슬렘교도들은 주권적 신(神)인 알라를 믿는다. 알라는 만물을 예정한다. 이 신앙은 때때로 운명론으로 흐르기도 하지만 그들을 장기간의 확신으로 인도한다.

둘째로, 그들은 군대의 위계 질서와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는 언약적인 종교 조직을 믿는다. 그들은 전투에서 적들에게 승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셋째로, 그들은 이슬람 법과 이슬람 문명을 믿는다. 그들은 서구 사회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길이라고 믿는다.

넷째로, 그들은 “거룩한 경전”인 코란을 믿는다. 그들은 코란의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문서나 논리에 결코 호소하지 않는다. 그들은 코란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다섯째로, 그들은 자기들이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라가 그들의 승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현대 인본주의 학문은 기독교에 대한 또 하나의 주요 종교적 라이

별이 되어 왔다. 상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본주의 과학은 다섯 가지 특징을 견지해 왔다.

첫째로, 과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체시켜 놓았다. 그들의 우주는 과학적 방법이 주관할 수 있는 엄격한 인과율에 의하여 지배되는 듯이 보였으며, 그럼으로써 자연(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세는 과학 엘리트들에게 이양되는 것처럼 보였다.

둘째로, 이 엘리트들은 가르칠 수 있는 지위, 학문적 저서 출판권, 정부의 연구 자금 등을 확보함으로써 통제력을 유지한다. 정교수에서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이어지는 위계 질서가 지배한다.

셋째로, 현대 과학은 주권적 다스림의 과학적 도구, 과학적 방법, 즉 실험(實驗)과 수학(數學)을 신봉해 왔다. 컴퓨터의 등장은 이 방법론적 도구를 믿을 만한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한 듯하다.

넷째로, 그들은 전제주의(presuppositionalism)를 믿어 왔다. 그것은 자가 검증적(self-attesting) 진리라는 거의 무오한 방식으로, 전적으로 오류가 없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라이벌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완벽한 방법이다. 과학은 자가 검증적 진리, 다른 모든 형태의 이 세상 지식들, 특히 종교의 유효성을 판별해 주는 진리로 간주되어 왔다. 과학적 방법은 모든 경쟁적 형태의 이 세상 진리들을 판단한다.

다섯째로, 과학자들은 과학과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을 호전시킬 가능성에 대하여 지극히 낙관적이다. 과학은 회소성과 무지라는 한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할 것이다! 과학에 대한 이러한 신앙은 제 1차 세계 대전 이전에 특히 강렬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다섯 가지 사항들은 승리에 대한 비전의 기본을 이루는 것들이다. 이 다섯 가지는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계를 변혁시킨 움직임들을 진작시켜 왔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쟁적 진리들에 대한 신앙이 쇠퇴해가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승리의 비전으로 사람들의 지성을 다시 사로잡을 절호의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의 장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추종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종교가 아니다.

회복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된 법을 외적 문화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합리적”이라고 하는 배교자(背敎者)들의 사변(思辨)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채택했을 때 상실한 리더십을 재확보해야 한다.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불신자들이 아프리카의 이크 부족을 닮게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문화 지배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을 다시 얻지도 못하고 불신자들이 자멸하지도 않는다면, 사회는 결국 야만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필자는 불경건한 자들이 중생하는 것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 미래의 회심자(回心者)들이 성경의 법과 정확한 성경적 종말론을 재발견하는 일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시대에 그와 같은 부흥을 보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라 믿을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⁷ 동시에 그와 같은

7. 게리 노스, 『시나이 전략: 경제학과 십계명』(The Sinai Strategy: Economics and the Ten Commandment, Tyler Texas: 기독교 경제 연구소, 1986), pp.86-92: “안식일 천년왕국”(The Sabbath Millennium).

낙관론을 의심할 만한 이유들도 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

우리는 반법주의 자체와 본질상 반법주의적인 비관주의적 종말론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성경 전반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사람들이 “케홀한 자를 케홀하다고 하고 존귀한 사람을正大(正大)하다고 하게 될”(사 32 장), 자기 각성이 증대되는 때가 있음을 확언해야 한다. 이 날은 위대한 외적 복락의 시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가 될 것이다. 오랜 기간 계속될 그와 같은 자기 인식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는 케홀한 자와 존귀한 자를 구별할 줄 아는 반역자들의 세대가 대두해서 경건한 자들과 더불어 싸움을 벌일 것이다(계 20:7,8). 그들은 악의 이 최후의 전장에서 패배할 것이다(계 20:9).⁸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사 65:17-20)에 대한 「지불 보증금」(preliminary down payment)을 파괴시키시지라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에서 준수되었으며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거의 성취되었다는 증표를 없애시지라도 한단 말인가? 대(大) 파괴자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뤄 놓은 작품들이 사단의 떼거리들에게 훼손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인가? 비관주의자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주권적 다스림을 믿는 낙관주의자는 온 힘을 다해서 이를 부인해야 한다.

간혹 두절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연속성이 있다. 죄인의 부(富)는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사단은 하나님의 발을 불태

8. 게리 노스, 『주권적 다스림과 일반 은총 : 진보의 성경적 기반』(*Dominion and Common Grace: The Biblical Basis of Progress*, Tyler, Texas : 기독교 경제 연구소, 1987).

우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가라지와 알곡이 다 자라면, 추수꾼들이 나가서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잘라내어 불 속에 던져 넣는다(마 13:24-43).

사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되돌려 제로의 상태,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이 처음 주어졌던 에덴 동산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역사는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즉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인류가 이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취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다. 그때가 되면 사단은 최후의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타를 가하기 위하여 마지막 안간힘을 다 쓸 것이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 사용하여 거의 파멸의 지경에 이를 때 사단은 위로부터 배임을 당해 거꾸러질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며 하나님의 피조계 앞에 서는 능동적인 자들이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새롭게 된 땅과 새롭게 된 하늘을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와 그 아들을 영접한 자들에게 최종적인 잔금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기독교는 지상에서 승승장구하며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 다스림의 신학이 기대하고 있는 바이다.

●●●●●●●● 핵심 내용 요약 ●●●●●●●●

사단에게 윤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자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법에 외적으로 순종한다면 외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최후의 날에 그들은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적 다스림의 신학을 믿는 자들은 장차 온 세상이 증생한 사람들로만 가득차게 될 것이라고는 전파하지 않는다.

구약 율법이 신약 시대에도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문화 명령」)의 조항들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다스림의 도구를 버린

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정적 환류” 프로그램, 즉 문명의 점진적인 성화(聖化) 계획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역사 속에서의 승리」라는 성경의 종말론을 버리게 되었다.

만약 신명기 28 장 1-14 절의 조건부 약속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역사적 진보의 교리 또한 진지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보는 긍정적 환류라는 성경적 체계를 통하여 현실화되어야 한다(신 8:18). 그와 같은 역사적, 제도적 진보를 부정하기 위해서 비판주의자들은 성경의 법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진보의 길목에는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인본주의자들과의 전쟁이다. 인본주의는 기독교의 성역(聖域)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물리쳐야 한다. 성경의 법은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권능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무기이다. 주권적 다스림의 신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병기인 성경의 법을 들고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한다. 문화적 무능에 대한 변명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주권적 다스림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 역사 가운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병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그것은 그 전투에 가담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그러나 드보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싸우지 않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미래의 드보라가 나타나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이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삿 5:17)라는 노래를 현대어로 노래할 것이다.

만약 진보를 오로지 내적(內的)인 것으로만 보거나 기껏해야 교회 차원의 것으로만 본다면, 역사는 불가피하게 반법주의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법은 포기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신약

시대의 성경법이 장기간의 실패를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의 법은 반드시 긍정적이며 가시적인 결과들을 거두어야 하며, 그 결과들은 다시금 우리의 충성을 강화시켜 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신 4:6-8), 산 위의 동리 역할을(마 5:14) 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인 성공을 허락하신다.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약속들의 신빙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3. 우리는 언약적 복락의 이 체계를 「긍정적 환류」라고 부른다.
4. 역사는 직선적이다.
5. 역사는 또한 발전적(진보적)이다.
6. 승리는 피할 수 없는 개념이다.
7.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이기느냐?”이다.
8.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역사적 패배를 설파한다.
9.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의 긍정적 환류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10. 성경은 악인의 부(富)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말하고 있다(잠 13:22).
11. 만약 이 구절(잠 13:22)이 심판 후의 죄없는 세상에만 적용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12. 성경의 법은 주권적 다스림의 도구이다.
13. 언약 파기자들이 권력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사단의 철학과 세계관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14.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에 더욱 철저히 부합함으로써 더욱더 강력하게 된다.
15.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요 이점이다. 즉, 일관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게 역사한다.

16.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단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의 주요 부분들을 도용해야 한다.
17.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할 것이다.
18.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받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19. 권능을 부여 주신다는 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20.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패배자가 되실 것이라고 믿는 자가 있는가?
21.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승리하는 다섯 가지 원리를 소유하고 있다.
22. 세계 정복을 꿈꾸는 주요한 경쟁 종교 운동들 역시 이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한 모조품을 가지고 있다.
23. 그들의 신앙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
24.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법의 타당성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5.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미래에 관한 반법주의와 비관주의적 견해를 버려야만 한다.
26. 영적이며 경제적인 위대한 축복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
27. 사단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28. 사단은 비록 원하기는 해도 시계 바늘을 되돌릴 수 없다.
29.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30. 성경법의 긍정적 환류 현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성령에 의하여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인 실패를 허용치 않는다.

결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 : 27-30).

참된 해방을 발견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代案)은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해방에 대한 대안도 오직 한 가지, 예속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의 지배하에 존재한다. 우리는 위계 질서 아래서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 있든지 사단 아래 있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인간에게 자율이란 없다. 자기의 법(self-law)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명을 건설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 아래 아니면 사단 아래 있다. 우리는 기독교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든지, 사단의 문명을 위하여 수고한다. 인간의 자율적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희망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와 같은 문화는 불가능하다.

만일 개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만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지 않은 참 자유(liberty)를 제공하는 사회를 발견하길 기대해야 하는가? 만일 참된 자유(freedom)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개인으로서의’ 우리에게만 유효하다면, 왜 우리는 사단과 사단의 법(사단의 법은 사실 무법이다) 아래에서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를 기대해야 하는가? “자연인”(natural man)에 의해 주장되는 “자연법”(natural law)아래서의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란 없다.

“육(肉)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靈的)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主)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4-16).

“누가 여호와와 신(神)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사 40:13).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만이 참된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고 모든 거짓된 인본주의 철학에 대항하여 이를 전파할 때에야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그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요일 2:3-7).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 1:25).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主)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列王)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시 119:43-46).

자유와 하나님의 법,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 법에 거슬러 설교하는 자는 자유에 거슬러 설교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법 아닌 다른 기반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정부를 세울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장이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며, 폭정(tyranny)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全) 경륜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 ‘전체’를 전파해야 한다. 그 사람은 출애굽기 한두 장, 아모스서, 사도행전 2 장과 4 장, 고린도후서 8 장에 자기의 설교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법, 법 전체를 설교하고 전파해야 한다. 성경 한두 곳을 근거로 하여 무장 혁명의 논리를 세

우면서, 사유 재산이나 근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충실함, 이웃 사람에게 대한 순종,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소원대로 할 수 있는 재산 소유자의 천부적 권리 등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은 무시하는 식으로 선별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히므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마 20:15).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으나 그 눈이 사악한 설교자들이 많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두 눈이 다 사악한 자도 있다. 그들은 도적질을 통한 해방을 전파한다. 그들은 테러를 통한 평화를 설교한다. 그들은 관료 제도를 통한 번영을 설교한다. 그들은 입법(立法)에 의한 구원을 설교한다. 그들이 전파하는 해방은 예측 상태로의 행진이다. 그들은 계급 투쟁을 통한 이웃 사랑을 전파하며 혁명을 통한 정의(正義)를 전파한다. 그들은 독실한 무신론자인 칼 마르크스를 통하여 예수를 전하며, 복음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파한다.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복음은 자신의 환경에 만족할 것을 가르친다. 또한 복음은 기도와 근면과 아내에 대한 신절(信節), 역사 가운데 마침내 임할 해방에 대한 소망을 가르친다. 복음은 자유가 노예 상태보다 더 좋다고 가르치지만, 그와 동시에 당분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만약 노예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 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전 7:20-24).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사람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에게로 회심(回心)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할 기회를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사람의 충성스런 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포로 시대의 히브리 민족은 한동안 노예로서 그리고 부자유한 사람으로서 수고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신음 소리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사람들에게 대한 예속과 거짓 신에 대한 예속에서 건져내사 자유인으로서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도록 자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만일 지금 복음이 제공하고 있는 자유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부자유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더 좋은 일꾼, 더 나은 자유인이 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예속 상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마르쿠스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은 노예 상태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3)고 경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창 26:2-4).

‘애굽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팡야에 있는 네게 아무리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라. 그 약속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고센 땅이 아무리 비옥하게 보일지라도 애굽에서는 예속이 있을 뿐이다. 애굽 땅 밖에 머물라!’

오늘날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영역이 바로 애굽의 영토이다.

이삭이 무엇을 받았는가? 그가 받은 것은 약속된 땅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이삭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이삭은 자기 생전에는 그 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족해야 했다. 이삭은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다. 그것으로 이삭에게는 충분했다.

이 약속은 왜 실현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신신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창 26:5).

이삭은 순종했는가? 그렇다. 그도 순종했다.

“이삭은 그랄에 거하였더니”(창 26:6).

그랄 땅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 약속의 땅이 최종 목적지였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실 때까지 당분간 그랄에서 만족해야 했다.

우리 역시 그랄에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악이 선이라거나 압제가 동정이라고 가르쳐서는 분명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인식하게 될 더 좋은 날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야가 약속한 그 날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궤훈한 자를 다시 정대(正大)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된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궤환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행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어니와 고명(高明)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사 32:5-8).

관대한 사람은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지상에서” 더 좋은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여 의(義)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나와”(사 32:16-18).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인 차원 또는 사회 차원의 도덕적 악에 대하여 영구히 만족할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되며, 혁명과 폭력을 통한 즉각적인 해방을 설교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나 생명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만족해야 한다. 그 삶에는 시간이라는 선물과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악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고하되 먼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행하였던 바대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왕의 궁전으로 복귀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되(창 40:14), 그가 그 부탁을 잊어 버리면(40:23)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날까지 감옥 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수로 하여금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게 만드는 방법이다(창 39:22,23). 더 많은 책임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분의 충성되며 순종하는 종으로 증명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충성된 종」,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

시어 우리가 「불충한 중」이 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기를 다스림

해방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집단에게 있어서나 정당한 목표이다. 그 해방이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정부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해방을 낳을 수 있는 신학은 단 한 가지밖에 없으니, 그 한 가지란 성경적 기독교이다. 이 성경적 기독교는 「해방신학」이 가르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전망을 가르친다. 오늘날 해방신학으로 알려져 있는 신학은 단지 관료주의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 수탈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해방신학은 성직자의 옷을 입은 마르크스주의일 뿐이다. 그것은 “정치적 약탈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다.

성경은 하나님 아래서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체계를 가르친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자기 다스림을 가르친다. 당신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법의 계속적 타당성을 제거해 보라. 그것은 곧 자기 「다스림」의 성경적 기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반법주의는 무능과 예측 상태를 낳는다. 또한 그것은 상대주의와 접목된다. 반법주의는 또한 상대주의에 대한 반동(反動)으로서 하나님의 법보다는 인간의 권위에 근거한 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를 낳는다.

성경은 또한 언약(covenant) 신학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을 폭정으로부터 풀어 놓아 주는 5개 항목의 구조로 특징지워진다. 이 하나님의 언약 구조가 사회 제도 가운데서 존중될 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성경은 권력 분산(decentralization)과 노동의 분화와 생산의 전문화를 가르친다(고전 12장). 이렇게 분산화된 사회 질서는 새로운 통찰력과 혁신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동료들에게 자신들의 그 아

이디어의 가치를 입증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아주 이상적이다. 그러한 사회 질서는 책임감 있으며 분권화된 창조력을 낳는다. 그러한 질서는 또한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위한 큰 부(富)를 낳는다.

해방신학자들은 어째서 이 분권화된 사회 질서를 배격하는가? 이는 그 사회 질서가 “너희는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성경적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이 아니라 완전한 인성(人性)이 하나님에 의해 중생한 사람들에게 전가된다고 가르친다. 자기 안에 “신성의 불꽃”(spark of divinity)을 소유한 사람은 없다. 사람도, 사람의 정치적 대의 기관인 국가도 결코 신성하지 않다. 국가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적 사회 질서는 국가 관료들로부터 권력의 대부분을 제거시킨다. 성경적 사회 질서는 이 땅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삶을 일구어 나가려고 애쓰는(빌 2:12) 개인들에게 권력을 이양시킨다.

● 사단의 중앙 집권적 위계 질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단의 사회 질서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 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이 중앙 엘리트에 의해 감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앙 집권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중앙 집권적 체계는 하나님의 전지(全知)와 전능(全能)에 대한 사단의 대체물이다. 사단은 모든 것을 볼 수도 없으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다.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단은 유한(有限)한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이 되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화된 정치 권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사단의 위계 질서는 전체주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로서는 하나님 아래서 자기를 주관하는 인간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단은 분권화시킬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른 모든 유형의 정치적 통제력을 집중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강압적인 사회주의적 부(富)의 재분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 사단적 사회 철학은 환경 결정론의 변이형(變異形)이다. 환경 결정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을 축소시키며, 인간의 책임이 축소됨에 따라 자기 다스림과 개인의 자유도 줄어든다. 이 이론은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계속되는 악행을 변명할 구실을 제공한다. 실제로 죄인은 “나는 타락한 (depraved) 사람이 아니라 박탈당한 (deprived)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그와 같은 인간관은 인간 환경의 비인격적 결정적 영향들을 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엘리트층 과학 입안자들에게 모든 권위를 이양시킨다. 그 엘리트 계획자들만이 좀더 나은 환경을 창조해냄으로써 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 제도들을 재형성할 능력이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라. 인간을 결정짓는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인간을 초월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만약 중앙의 입안자들이 어떤 종류의 비인격화된 예정적(豫定的) 과정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면 환경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사단의 오랜 유혹이기도 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창 3-5)는 것이 바로 그 말 아닌가. 이는 엘리트를 신격화하는 체계이며, 위로부터 아래로의 예측 체계이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해방신학에 의해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 주권적 하나님, 책임있는 인간

이와 반대로 기독교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자연 자체의 비인격적 진화론적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단언한다. 사람들을 중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지 국가가 아니다.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자는 인간의 비인격적 신 (impersonal god)이 아니다.

인간의 환경은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섭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대하여 분권화된 주권적 다스림을 행할 기회를 소유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인류는 환경

의 대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사람의 이지(理智)는 외부 환경에 대응할 책임을 떠맡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이지가 특히 수학과 과학적 실험에 의하여 이런 힘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은 기적이나 우연(다아윈이 말하는 우연도 어쨌든 우주적 질서를 낳았다)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이 비합리적인 연관 관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¹

자유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에 해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역사 내에서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이다. 해방은 기독교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다. 이 해방은 인본주의를 비롯하여 기독교와 경쟁하는 모든 미신적 철학들이 점차 명성을 잃어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때까지 인간 자신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제도들과 더 나은 세계를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 이상의 인간 능력에 대한 인간의 숭배는 인간을 도덕적이며 제도적인 예속 상태에 계속 잡아둘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복음이 역사를 변혁시키는 데 무능하다고, 즉 복음이 사람과 문명을 동시에 구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 비판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추종자들에게 승리를 설교하는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에게 역사적으로 시의적절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 경건주의자들은 「무」(無 : 역사적 패배의 약속과 반법주의적 윤리 체계)를 가지고 「유」(有 : 표면에 드러나는 문화적 승리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약속과 그 프로그램)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무를 가지고 유를 패퇴시킬 수는 없다.

1. 개리 노스, 『주권적 다스림의 언약 : 창세기』(The Dominion Covenant : Genesis, Tyler, Texas : 기독교 경제학 연구소, 1982), 부록 A, “우주적 무목적성에서 인본주의적 주권으로”(From Cosmic Purposelessness to Humanistic Sovereignty).

● 언약 구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약속된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모델을 늘 명심해야 한다. 사단은 이 언약을 흉내낼 경쟁적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사단의 언약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언약 대(對) 비언약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항상 ‘누구의’ 언약이나 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매 순간마다 그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인간의 위계 질서를 세우셨다.

이 위계 질서들은 밑에서 위로의 청원 범정적 질서이다. 그 질서 중 교회, 가정, 국가 이 세 가지는 진정한 언약적 제도들이다.

셋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해방시키는 권위와 힘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법은 주권적 다스림의 기반이다.

넷째, 역사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기도 하며 하나님의 합법적인 언약 제도들로부터 오기도 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다른 모든 경쟁자들은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권능은 모

든 제도와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필자는 『성경의 청사진 시리즈』(Biblical Blueprints Series)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무(無)를 가지고 유(有)를 패퇴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성경이 삶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정말 구체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의해 입증시키는 책들을 편집 중이다. 우리는 모든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답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까지,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행동을 취하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속박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예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 즉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자유에로 복귀하는 길은 「기독교 재건」(Christian Reconstruction), 즉 ‘하나님의 계시된 법의 맥락에서 모든 제도와 모든 인간 관계를 재형성하는 길’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환상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자유를 제공할 것이다.

핵심 내용 요약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상(地上)의 참된 해방자이신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수중에 넘겨졌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윤리적 명예를 지도록 부름받았다.
3. 해방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길뿐이다.
4. 우리는 위계 질서를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것이든 사단의 것이든 우리는 어느 한 쪽의 위계 질서에 반드시 속한다.
5. 문명은 기독교의 견지에서 건설되든지 사단주의에 의하여 건설되든지 둘 중 하나이다.
6. 하나님의 법 아래에 개인을 위한 자유가 있다.
7. 하나님의 법 아래에는 사회를 위한 자유도 있다.
8. 자연법, 자연인, 자연적 자유는 인본주의의 신화이다.

9.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전파해야 한다.
11.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자들은 혁명과 사회주의와 관료 제도를 전파한다.
12. 우리는 우리의 현 상황을 감내하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충성되이 수고해야 한다.
13. 우리는 노예 생활을 선택해선 안 된다.
14. 마르크스주의는 노예 제도, 현대판 애굽이다.
15. 우리는 현시대의 사회악을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16. 우리는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는 시도로 혁명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17. 만약 상황이 요구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전체 정치라는 “감옥”에서 살아야 하며, 그러는 한편 기독교 문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항상 일해야 한다.
18. 죄로부터의 해방에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자기 다스림이 포함된다.
19. 성경은 분권화를 가르친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위계 질서이다.
20. 사단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위계 질서를 부파한다.
21. 사단의 신학은 「환경 결정론」을 가르친다. 즉, 인간의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도 악하다는 것이다.
22. 환경 결정론의 체계는 환경을 완전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변혁시키는 일을 엘리트층의 계획 입안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23. 기독교는 개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24. 인격적 변혁의 과정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25. 해방은 기독교의 한 효과이다.
26. 복음은 개인들과 제도들을 변혁시킨다.
27. 이 변혁의 기반은 언약에 대한 충성이다.
28. 언약은 다섯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다.
29. 언약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예측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참고 문헌

- Bahnsen, Greg L. *By This Standard : The Authority of God's Law Today*. Tyler, Texas :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85.
- Chilton, David. *The Days of Vengeance :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7.
- _____. *Paradise Restored : A Biblical Theology of Dominion*.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5.
- DeMar, Gary. *Ruler of the Nations : Biblical Blueprints for Government*.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7.
- Grant, George. *The Changing of the Guard : Biblical Blueprints for Politics*.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7.
- _____. *In the Shadow of Plenty : Biblical Blueprints for Welfare*.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6.
- Jordan, James. *Judges : God's War Against Humanism*. Tyler, Texas : Geneva Ministries, 1985.
- _____. *The Law of the Covenant : An Exposition of Exodus 21-23*. Tyler, Texas :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84.

North, Gary. *The Dominion Covenant : Genesis*. Tyler, Texas :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82.

_____. *Honest Money : Biblical Blueprints for Money and Banking*.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6.

_____. *Inherit the Earth : Biblical Blueprints for Economics*.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7.

_____. *Marx's Religion of Revolution : The Doctrine of Creative Destruction*. Nutley, New Jersey : Craig Press, 1968.

_____. *Moses and Pharaoh : Dominion Religion vs. Power Religion*. Tyler, Texas :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85.

_____. *Healer of the Nations : Biblical Blueprint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7.

_____. *The Sinai Strategy : Economics and the Ten Commandments*. Tyler, Texas :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87.

_____. *Tools of Dominion : The Case Laws of Exodus*. Tyler, Texas :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87.

_____. *Unconditional Surrender : God's Program for Victory*.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1) 1987.

Rushdoony, Rousas J. *The Institutes of Biblical Law*. Nutley, New Jersey : Craig Press, 1973.

Sutton, Ray. *Second Chance : Biblical Blueprints for Divorce and Remarriage*.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7.

_____. *That You May Prosper : Dominion by Covenant*. Tyler, Texas :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87.

_____. *Who Owns the Family : God of the State?*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6.

Thoburn, Robert L. *The Children Trap : Biblical Blueprints for Education.* Ft. Worth, Texas : Dominion Press, 1986.



“나침반 것이면
 뭐든지 산답니다.”
 저두요 거긴 꼭
 필요한 것만
 만드니까요.

10

책번호 / 나·6008

성경이 주장하는 사회 변혁론

발행소 ● 종 합 선 교 - 나 침 반 사
NACHIMBAN MINISTRIES

(등록 1980년 3월 18일 / 제 2-32호)

편집겸 발행인 ● 김 용 호
 © 1990 KIM YONG-HO

초판발행시 출판 선교사역의 동참자들

김기화 김응국 김호원 문화영 민소란
 박동운 신선희 오현미 원은실 유경문
 윤덕애 이재복 이문숙 이무국 이정석
 이해경 이해정 이호영 임남주 임해선
 정우일 진윤미 최수경 최종국 홍은주
 (*가나다순)

연락처

●우편 / 11101-0000 서울·광화문 사서함 1641 호
 K. P. O. BOX 1641, SEOUL 110-616, KOREA

●우체국대체구좌 / 010041-31-1201888

●은행지로번호 / 각 은행 99번 창구 3000366번

●전화 / 본사사무용 (02) 279-6321~3
 서점주문용 (02) 356-1633, 358-2617

●FAX / 본사사무용 (02) 275-6003
 서점주문용 (02) 357-7790

지은이 / 게리 노스

옮긴이 / 김 재 영

제 1 판 발행 / 1990년 6월 1일

나침반신앙상담실 / 02 278 - 6947 · 278 - 6948

값 3,800원

PRINTED IN KOREA